



OECD Health Statistics 2023



보건복지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ECD Health Statistics

2023



보건복지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TENTS

01 건강상태

>> 14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연령표준화 사망률
 - 3-1. 암
 - 3-2. 순환기계 질환
 - 3-3. 호흡기계 질환
 - 3-4. 당뇨병
 - 3-5. 치매
 - 3-6. 자살
4. 회피가능사망률
5.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02 건강 위험요인

>> 56

6. 주류 소비량
7. 흡연율
8.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03 보건의료 자원

>> 70

9. 임상 의사 수
10. 의학계열 졸업자 수
11. 의사 임금소득
12. 임상 간호인력 수
13. 간호대학 졸업자 수
14. 간호사 임금소득
15. 총 병원 병상 수
16. 급성기 병원 병상 수
17.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18.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04 보건의료 이용

>> 104

19.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20.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 진료 횟수
21.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22.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
23. 제약절개 건수
24.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건수
25.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수
2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05 보건의료 질

>> 130

27.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
28. 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
29.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의 총 처방량

06 보건의료 비용

>> 142

30.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31.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3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33. 경상의료비 중 개인의료서비스 비중

07 의약품 시장

>> 156

34. 의약품 소비량
35. 의약품 판매액

08 장기요양

>> 164

36.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37.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
38.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

I 이용자를 위하여

OECD Health Statistics 개요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각종 보건의료 분야 통계를 수집하여 매년 6월말~7월초 통계 포털*을 통해 「OECD Health Statistics」를 발표함('23. 7. 3. 발표)

* OECD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http://oecd.org/health/health-data.htm>

- 건강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등 다양한 주제의 통계를 수록함
- » OECD는 경제사회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 통계를 개발하고 필요도가 낮아진 통계는 삭제하면서 통계 지표를 관리함
- » 최근 들어 다른 국제기구(WHO, EU 등)와 공동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데이터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통계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
- »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 가입 이후 매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협조로 산출함(가나다 순)

이용 시 유의점

» 이 책자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통계는 2021년을 기준 시점*으로 함

* 2021년 수치가 없는 국가는 과거 2개년까지 인접 정보로 대체

» 각 그림 하단에 있는 Statlink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인터넷 창에 입력하면 해당 표와 그림이 수록된 엑셀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함

OECD Health Statistics 2023 요약표

분야	지표명
건강 상태	1. 기대수명 (년)
	2. 영아사망률 (명/출생아 1,000명)
	3. 연령표준화 사망률
	3-1.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명/인구 100,000명)
	3-2.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명/인구 100,000명)
	3-3.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명/인구 100,000명)
3-4. 당뇨병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명/인구 100,000명)	
3-5.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명/인구 100,000명)	
3-6.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명/인구 100,000명)	
건강 위험요인	4. 회피가능사망률 (명/인구 100,000명)
	5.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 , 15세 이상 인구)
	6. 주류 소비량 (순수 알코올 리터, 15세 이상 인구 1인당)
	7. 흡연율 (% , 15세 이상 인구)
보건의료 자원	8.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 , 15세 이상 인구)
	9. 임상 의사 수 (명/인구 1,000명)
	10. 의학계열 졸업자 수 (명/인구 100,000명)
	11. 의사 임금소득 (의사 1인당 US\$ PPP)
	12. 임상 간호인력 수 (명/인구 1,000명)
	13. 간호대학 졸업자 수 (명/인구 100,000명)
	14. 간호사 임금소득 (간호사 1인당 US\$ PPP)
	15. 총 병원 병상 수 (개/인구 1,000명)
16. 급성기 병원 병상 수 (개/인구 1,000명)	
보건의료 이용	17.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대/인구 1,000,000명)
	18.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대/인구 1,000,000명)
	19.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회)
	20. 국민 1인당 치과외사 외래 진료 횟수 (회)
	21.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일)
	22.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 (일)
	23. 제왕절개 건수 (건/출생아 1,000명)
	24.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건수 (건/인구 1,000명)
	25.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수 (건/인구 1,000명)
	2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 65세 이상 인구)
보건의료 질	27.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 (%)
	28. 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 (%)
	29.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의 총 처방량 (DDD / 약제처방 인구 1,000명/1일)
보건의료 비용	30.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
	31.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US\$ PPP)
	3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
	33. 경상의료비 중 개인의료서비스 비중 (%)
의약품 시장	35. 의약품 판매액 (국민 1인당 US\$ PPP)
장기요양	36.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개/65세 이상 인구 1,000명)
	37.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
	37-1. 재가서비스 인력 (명/65세 이상 인구 100명)
	37-2. 시설서비스 인력 (명/65세 이상 인구 100명)
	38.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
	38-1. 재가서비스 수급자 (%)
38-2. 시설서비스 수급자 (%)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3(2023.7.5.)

주: 34. 의약품 소비량 지표는 9개의 대분류와 19개의 소분류로 구분되어 제공되므로 요약표에 기재하지 않음. 해당 지표는 34. 의약품 소비량(156p)을 참조

한국	OECD 평균		최대		최소
83.6	80.3	84.5	일본	73.1	라트비아
2.4	4.0	16.5	콜롬비아	1.7	일본, 노르웨이
160.2	201.7	286.4	헝가리('19)	125.9	멕시코
128.8	292.9	645.6	리투아니아	128.8	한국
80.7	68.3	145.3	멕시코	23.8	핀란드
17.6	28.2	220.4	멕시코	6.2	일본
7.3	27.6	64.2	영국	0.5	튀르키예('19)
24.1	11.0	24.1	한국	3.9	그리스
142.0	239.1	665.0	멕시코	131.0	아이슬란드
49.6('20)	68.6	88.3	캐나다	36.6	일본('19)
7.7	8.6	12.2	라트비아	1.4	튀르키예
15.4	15.9	28.0	튀르키예('19)	7.2	아이슬란드
36.7	57.5	74.1	멕시코('20)	27.2	일본('19)
2.6	3.7	5.4	오스트리아	2.5	멕시코
7.3	14.0	27.3	라트비아	2.5	칠레
192,749('20)	115,818	192,749	한국('20)	47,055	폴란드('20)
8.8	9.8	18.9	핀란드('20)	2.9	멕시코
43.0	32.1	77.5	노르웨이	3.2	슬로베니아
52,033('20)	53,453	108,036	룩셈부르크	28,665	멕시코
12.8	4.3	12.8	한국	1.0	멕시코
7.3	3.5	7.3	콜롬비아('20)	1.5	콜롬비아('20)
42.2	29.8	115.7	일본('20)	5.9	콜롬비아('20)
35.5	19.6	57.4	일본('20)	2.9	멕시코
15.7	5.9	15.7	한국	1.5	멕시코
1.6	1.1	3.1	네덜란드	0.0	멕시코
18.5	8.1	27.5	일본	4.4	튀르키예
7.6	6.6	16.0	일본	4.4	튀르키예, 뉴질랜드('20)
537.7('20)	280.3	584.2	튀르키예	143.4	이스라엘
281.5	161.0	281.5	한국	44.7	핀란드('20)
80.1	83.7	159.6	오스트리아	2.2	코스타리카
80.1	52.4	80.9	영국	5.9	튀르키예('19)
8.4	6.9	23.7	멕시코	1.7	아이슬란드
3.3	8.0	20.5	라트비아	2.9	일본('20)
16.0	13.3	25.9	호주	5.3	포르투갈
9.3	9.7	17.4	미국	4.6	튀르키예
4,189	4,715	12,197	미국	1,262	멕시코
62.3	76.0	86.4	체코	50.2	멕시코
87.1	88.5	94.3	노르웨이	81.7	프랑스
785.3	594.4	943.3	벨기에	238.3	뉴질랜드
57.3	45.6	79.6	룩셈부르크	0.1	칠레
3.8	2.7	10.9	이스라엘	0.1	그리스
1.1	2.4	5.3	네덜란드	0.1	튀르키예
8.1	10.2	26.4	이스라엘	0.6	포르투갈
2.6	3.5	10.3	리투아니아	0.4	라트비아

I 주요내용(요약)

이 책자는 OECD가 2023년 7월 3일 공표한 보건 의료 통계(Health Statistics 2023) 중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업무상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주로 2021년 기준의 수치를 수록하고 있음. 연령표준화 사망률 등 사망률 관련 통계는 자료의 제출 시점상 2020년이 최종 연도임.

* 관련 자료는 OECD 홈페이지(<http://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평균 80.3년보다 3.3년 긴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에 비해 0.2년 감소한 OECD 평균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2년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84.5년)이고, 스위스(83.9년), 한국(83.6년), 스페인(83.3년), 호주(83.3년)가 그 뒤를 이음
- 반면, 라트비아(73.1년), 리투아니아(74.2년), 헝가리(74.3년), 슬로바키아(74.6년)는 기대수명이 짧은 국가임

»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0.2명으로 OECD 평균(201.7명)보다 낮음

-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암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125.9명),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286.4명, 2019년)임

- ▶▶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OECD 평균(11.1명)보다 높음
 - 다만, 2015년 26.8명에서 2020년 24.1명으로 2.7명 감소함(OECD 평균 1.1명 감소)

- ▶▶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2.0명으로 OECD 평균(239.1명)보다 낮음
 - 2015년(177.0명)에 비해 35.0명 감소함(OECD 평균은 11.3명 증가)

-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비율(흡연율)은 15.4%로 OECD 평균(15.9%)과 비슷함
 - 2016년 18.4%에서 2021년 15.4%로 3.0%p 감소함(OECD 평균 2.5%p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7.2%)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튀르키예(28.0%, 2019년)임
 - 성별에 따른 흡연율을 살펴보면, 여자 흡연율은 4.5%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낮지만, 남자는 26.3%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아홉 번째로 높음(OECD 평균 여자 12.3%, 남자 19.9%)

- ▶▶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음(OECD 평균 3.7명)
 - 2016년 2.3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0.3명 증가함 (OECD 평균 0.3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4명)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2.5명)임

- ▶▶ 임상 간호인력 수는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9.8명)보다 1.0명 적음
 - 우리나라는 간호사(4.6명)와 간호조무사(4.1명)를 임상 간호인력으로 보고하는 바, 2016년 6.8명에서 2021년 8.8명으로 2.0명 증가함(OECD 평균 0.6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임상 간호인력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핀란드(18.9명, 2020년)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2.9명)임

- ▶▶ 총 병원 병상 수(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3.0배임
 - 2016년 12.0개에서 2021년 12.8개로 0.8개 증가함 (OECD 평균 0.2개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총 병원 병상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1.0개)이고,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 (12.8개)임

-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음(OECD 평균 5.9회)

 - 2016년 17.1회에서 2021년 15.7회로 1.4회 감소함 (OECD 평균 0.9회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0회를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11.1회, 2020년), 슬로바키아(11.0회)가 있음

- »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깊(OECD 평균 8.1일)

 - 2016년 17.4일에서 2021년 18.5일로 1.1일 증가함 (OECD 평균 2016년과 2021년 8.1일로 동일)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 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27.5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튀르키예(4.4일)임

- » 입원환자가 급성기 진료를 위해 병원에 머문 평균 기간(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은 7.6일로 OECD 평균(6.6일)보다 1.0일 깊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 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16.0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튀르키예(4.4일)와 뉴질랜드(4.4일, 2020년)임

-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8.4%로 OECD 평균(6.9%)보다 높았지만, 허혈성 뇌졸중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8.0%)보다 낮음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와 의약품 총 판매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4,189US\$ PPP로 OECD 평균(4,715US\$ PPP)보다 낮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16년 대비 1,543US\$ PPP 증가)

- 국민 1인당 의약품 총 판매액은 785.3US\$ PPP로 OECD 평균(594.4US\$ PPP)보다 높은 가운데,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62.3%)은 OECD 평균(76.0%)보다 낮지만, 2016년에 비해 4.4%p 증가함(OECD 평균은 2.3%p 증가)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상과 침상(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을 모두 집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57.3개로 OECD 평균(45.6개)보다 많음

- 장기요양 병원 병상 및 침상은 2016년 61.3개에서 2021년 57.3개로 4.0개 감소함(OECD 평균 3.8개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79.6개)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칠레(0.1개)임



01

건강상태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연령표준화 사망률
 - 3-1. 암
 - 3-2. 순환기계 질환
 - 3-3. 호흡기계 질환
 - 3-4. 당뇨병
 - 3-5. 치매
 - 3-6. 자살
4. 회피가능사망률
5.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1 >> 기대수명

- >>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평균 80.3년보다 3.3년 긴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에 비해 0.2년 감소한 OECD 평균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2년 증가함
- >>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84.5년)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라트비아(73.1년)임
- >> 최근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기대수명이 증가함
 - 기대수명 증가의 배경 요인으로는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등이 있음
 - 단, 2020~2021년은 COVID-19의 영향으로 기대수명의 증가폭이 둔화됨

표 1 기대수명

(단위: 년)

	2016			2021 ²⁾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2.4	80.4	84.6	83.3	81.3	85.4
오스트리아	81.8	79.3	84.1	81.3	78.8	83.7
벨기에	81.5	79.0	84.0	81.9	79.4	84.3
캐나다	82.0	79.9	84.0	81.7	79.5	84.0
칠레	80.0	77.2	82.9	81.0	78.3	83.8
콜롬비아	75.7	72.5	79.1	76.8	73.7	80.0
코스타리카	80.0	77.5	82.6	80.8	78.2	83.3
체코	79.1	76.1	82.1	77.2	74.1	80.5
덴마크	80.9	79.0	82.8	81.5	79.6	83.3
에스토니아	78.0	73.3	82.2	77.2	72.7	81.4
핀란드	81.5	78.6	84.4	81.9	79.3	84.6
프랑스	82.7	79.5	85.8	82.4	79.3	85.5
독일	81.0	78.6	83.5	80.8	78.4	83.3
그리스	81.5	78.9	84.0	80.2	77.4	82.9
헝가리	76.2	72.6	79.7	74.3	70.7	77.8
아이슬란드	82.2	80.4	84.1	83.2	81.8	84.6
아일랜드	81.7	79.8	83.6	82.4	80.5	84.3
이스라엘	82.5	80.7	84.2	82.6	80.5	84.6
이탈리아	83.4	81.0	85.6	82.7	80.5	84.9
일본	84.1	81.0	87.1	84.5	81.5	87.6
한국	82.4	79.3	85.4	83.6	80.6	86.6
라트비아	74.9	69.8	79.6	73.1	68.2	78.0
리투아니아	74.9	69.5	80.1	74.2	69.5	78.8
룩셈부르크	82.7	80.1	85.4	82.7	80.5	84.8
멕시코	74.8	72.0	77.7	75.4	72.5	78.2
네덜란드	81.7	80.0	83.2	81.4	79.7	83.0
뉴질랜드	81.7	80.0	83.4	82.3	80.5	84.0
노르웨이	82.5	80.7	84.2	83.2	81.7	84.7
폴란드	78.0	73.9	82.0	75.5	71.6	79.6
포르투갈	81.3	78.1	84.3	81.5	78.5	84.4
슬로바키아	77.3	73.8	80.7	74.6	71.2	78.2
슬로베니아	81.2	78.2	84.3	80.7	77.7	83.8
스페인	83.5	80.5	86.3	83.3	80.4	86.2
스웨덴	82.4	80.6	84.1	83.1	81.3	84.9
스위스	83.7	81.7	85.6	83.9	81.8	85.8
튀르키예	78.0	75.3	80.7	78.6	75.9	81.3
영국	81.2	79.4	83.0	81.0	79.0	82.9
미국	78.7	76.2	81.1	76.4	73.5	79.3
평균¹⁾	80.5	77.7	83.2	80.3	77.6	83.0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8개국의 평균임

2) 튀르키예는 2019년, 캐나다, 영국은 2020년 수치임

01. 건강상태

02. 건강 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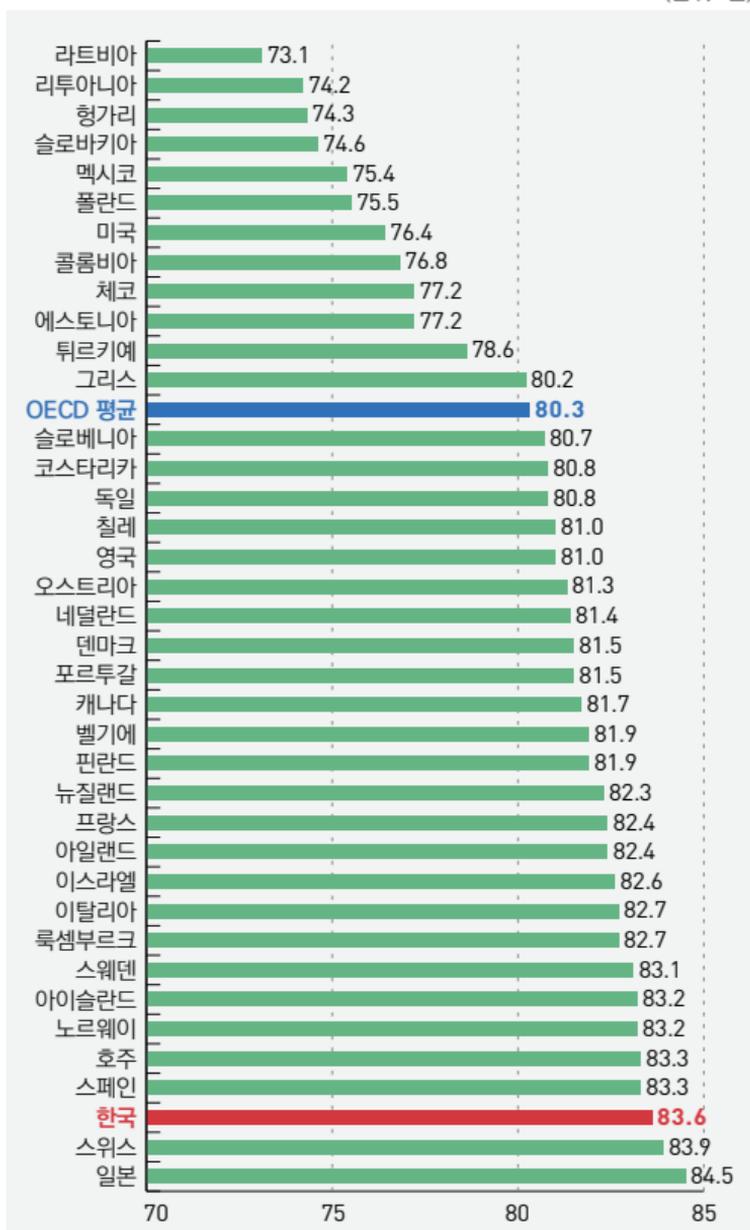
06. 보건의료비용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그림 1-1 기대수명(전체), 2021년

(단위: 년)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8개국의 평균임

2) 튀르키예는 2019년, 캐나다, 영국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10>

그림 1-2 기대수명(성별), 2021년

(단위: 년)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8개국의 평균임
 2) 튀르키예는 2019년, 캐나다, 영국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10>

2 영아사망률

- ▶▶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평균 (4.0명)보다 낮음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2016년에 비해 0.4명 감소함 (OECD 평균 0.3명 감소)
- ▶▶ OECD 회원국의 영아사망률은 콜롬비아(16.5명), 멕시코(12.7명)를 제외하고 출생아 1,000명당 10.0명 미만으로 나타남
 - OECD 회원국 38개 중에서 16개 국가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0명 미만임
 - 특히,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일본, 노르웨이는 영아사망률이 1,000명당 2.0명 이하임

표 2 영아사망률

(단위: 명/출생아 1,000명)

	2016	2021 ²⁾
호주	3.1	3.3
오스트리아	3.1	2.7
벨기에	3.2	2.9
캐나다	4.5	4.5
칠레	7.0	5.8
콜롬비아	18.7	16.5
코스타리카	7.9	8.7
체코	2.8	2.2
덴마크	2.8	2.4
에스토니아	2.3	2.2
핀란드	1.9	1.8
프랑스	3.7	3.7
독일	3.4	3.0
그리스	4.2	3.5
헝가리	3.9	3.3
아이슬란드	0.7	3.3
아일랜드	3.0	3.2
이스라엘	3.1	2.8
이탈리아	2.8	2.3
일본	2.0	1.7
한국	2.8	2.4
라트비아	3.7	2.7
리투아니아	4.5	3.1
룩셈부르크	3.8	3.1
멕시코	13.4	12.7
네덜란드	3.5	3.3
뉴질랜드	4.2	-
노르웨이	2.2	1.7
폴란드	4.0	3.9
포르투갈	3.2	2.4
슬로바키아	5.4	4.9
슬로베니아	2.0	1.8
스페인	2.7	2.5
스웨덴	2.5	1.8
스위스	3.6	3.1
튀르키예	9.7	9.1
영국	3.8	4.0
미국	5.9	5.4
평균¹⁾	4.3	4.0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8개국, 2021년 37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미국은 2020년 수치임

01. 건강상태

02. 건강 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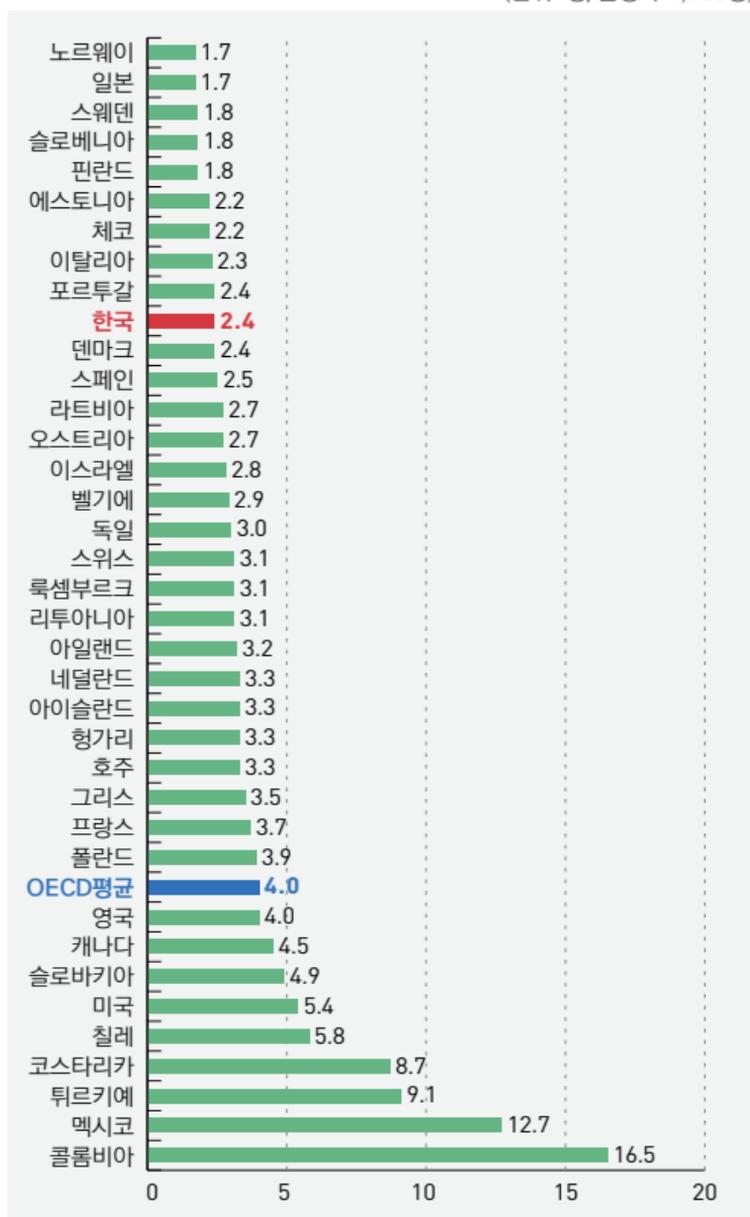
06. 보건의료비용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그림 2-1 영아사망률, 2021년

(단위: 명/출생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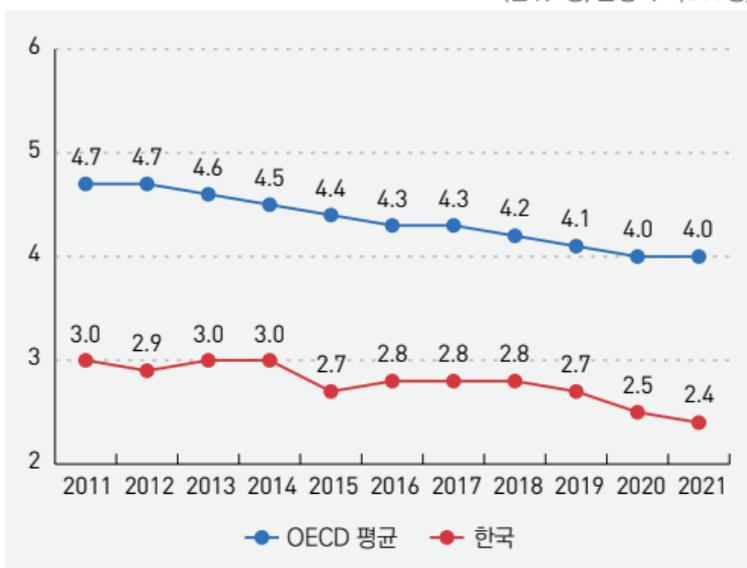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미국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20>

그림 2-2 연도별 영아사망률, 2011~2021년

(단위: 명/출생아 1,000명)



- 주 1) 2011년은 튀르키예가, 2019~2021년은 뉴질랜드가 제외됨
 2) 2021년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20>

3 연령표준화 사망률

- » 2021년 사망률 정보를 질병별로 제공한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여, 질병별 사망률은 2020년을 기준(혹은 인접 과거 연도)으로 비교함
- » 국가 간 또는 시기별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5년 OECD 표준 인구구조¹⁾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사망률
- » 측정 산식

$$\text{연령표준화 사망률} = \frac{\sum (\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1) OECD 표준인구 기준이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통계 소책자 (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서 제시된 값과의 차이가 있음

3-1. 암²⁾

- »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0.2명으로 OECD 평균(201.7명)보다 낮음
- » 2015년 182.7명에서 2020년 160.2명으로 22.5명 감소함(OECD 평균 15.0명 감소)
-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1.1명이고, 여자의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06.6명으로 OECD 평균(남자 262.1명, 여자 160.9명)보다 낮음
 - 우리나라 남자와 여자의 암 사망률의 차이는 2.3배로 튀르키예와 함께 남녀 암 사망률의 차이가 가장 큼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 보다 높음

2) 국제질병분류(ICD-10)의 C00-C97에 해당하는 질병

표 3-1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5 ²⁾			2020 ³⁾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207.0	258.7	166.6	188.0	231.9	152.5
오스트리아	208.9	267.4	168.2	196.6	248.2	159.3
벨기에	214.8	279.5	168.3	196.9	253.3	156.4
캐나다	213.9	254.8	184.7	200.3	239.9	170.7
칠레	209.8	263.1	174.2	181.9	218.1	156.7
콜롬비아	167.8	197.6	147.6	165.7	198.1	145.6
코스타리카	164.4	204.9	132.9	160.4	191.0	136.4
체코	239.9	319.1	186.8	229.3	302.7	179.2
덴마크	250.7	301.0	215.9	231.1	274.9	199.4
에스토니아	255.0	397.7	182.3	228.3	351.3	165.0
핀란드	187.5	240.2	153.7	181.0	225.9	149.2
프랑스	214.5	301.1	156.0	-	-	-
독일	216.9	275.9	175.0	206.2	257.4	168.3
그리스	216.7	298.4	151.3	207.8	279.8	150.2
헝가리	303.5	412.3	234.5	286.4	388.1	221.1
아이슬란드	211.5	238.1	194.8	192.2	216.3	174.3
아일랜드	238.5	290.3	201.7	233.7	275.8	201.3
이스라엘	192.5	228.1	166.1	176.8	210.9	151.2
이탈리아	211.1	278.9	163.4	-	-	-
일본	189.0	267.2	134.1	174.8	241.6	127.2
한국	182.7	281.7	120.1	160.2	241.1	106.6
라트비아	255.7	385.3	192.2	256.2	383.5	192.9
리투아니아	252.1	391.5	177.0	241.3	371.1	171.6
룩셈부르크	200.1	238.6	170.8	168.4	201.5	144.8
멕시코	127.6	141.6	116.7	125.9	143.9	112.7
네덜란드	243.1	302.4	202.5	217.2	259.5	186.0
뉴질랜드	230.3	273.2	197.9	-	-	-
노르웨이	210.2	261.9	174.9	-	-	-
폴란드	263.7	367.8	199.2	240.4	325.7	186.7
포르투갈	210.4	303.4	144.4	210.9	300.5	147.4
슬로바키아	280.8	399.3	207.5	252.9	354.2	188.9
슬로베니아	264.3	366.8	199.5	247.4	332.2	188.7
스페인	200.0	285.4	135.8	185.8	257.9	131.5
스웨덴	201.1	240.1	174.9	188.9	222.7	165.7
스위스	189.7	245.4	150.9	167.6	209.2	137.9
튀르키예	174.3	257.0	110.8	154.1	224.7	98.9
영국	236.8	286.6	200.5	221.8	264.2	189.9
미국	199.3	239.8	169.5	182.2	215.1	157.4
평균¹⁾	216.7	285.3	171.1	201.7	262.1	1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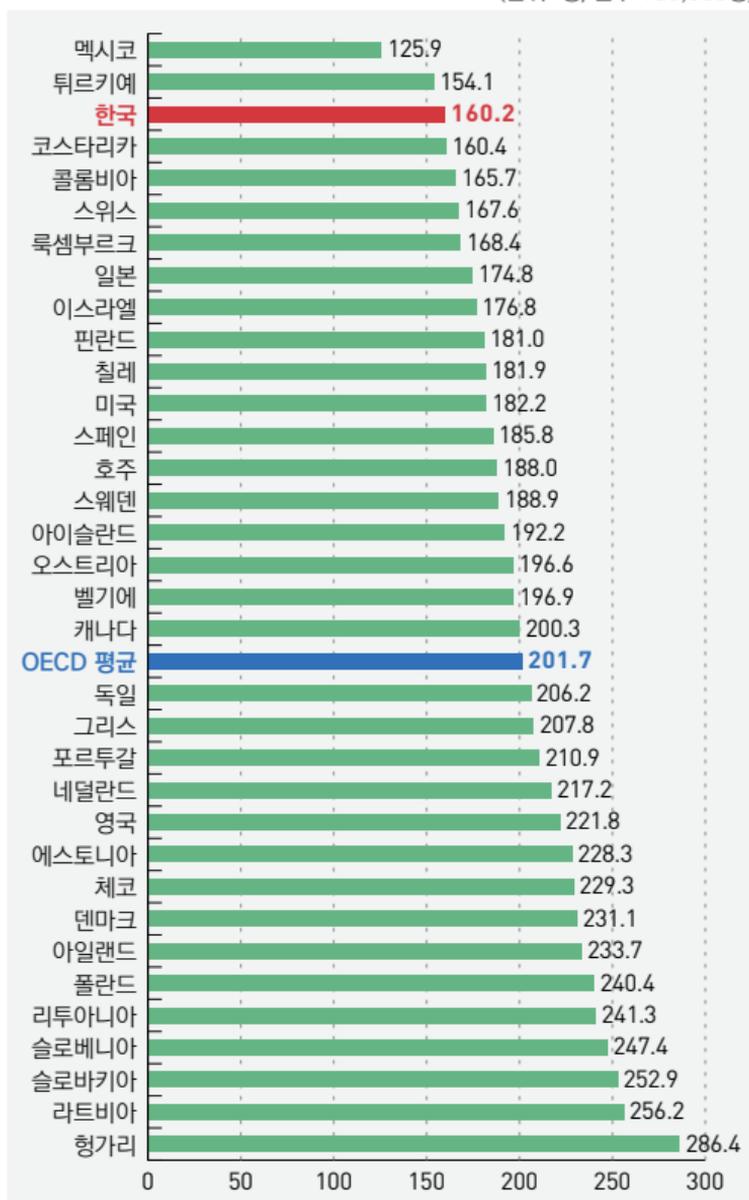
주 1) 2015년과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5년 38개국, 2020년 34개국)의 평균임

2) 핀란드, 슬로바키아는 2014년 수치임

3)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그림 3-1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2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31>

그림 3-2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성별), 202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31>

3-2. 순환기계 질환³⁾

- »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8.8명으로 OECD 평균(292.9명)보다 낮음
- » 2015년 167.1명에서 2020년 128.8명으로 38.3명 감소함(OECD 평균 24.5명 감소)
- »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가장 높은 국가(리투아니아 645.6명)와 가장 낮은 국가(한국 128.8명)는 5.0배가량 차이를 보임

3) 국제질병분류(ICD-10)의 I00-I99에 해당하는 질병

표 3-2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5 ²⁾			2020 ³⁾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206.0	236.7	178.0	158.6	184.5	134.8
오스트리아	348.7	401.8	305.5	294.6	341.6	255.4
벨기에	232.0	274.3	197.9	200.0	237.7	169.8
캐나다	195.1	235.9	161.2	178.4	216.0	146.3
칠레	246.5	293.8	208.2	199.0	235.0	168.3
콜롬비아	370.2	437.9	319.6	406.7	508.4	336.6
코스타리카	228.3	275.4	188.1	191.2	233.8	154.8
체코	496.2	591.8	423.1	445.8	538.4	374.1
덴마크	209.8	255.7	173.0	171.5	213.9	136.9
에스토니아	525.8	662.3	435.9	454.0	589.7	367.5
핀란드	307.0	390.7	242.3	254.3	332.7	192.8
프랑스	172.3	230.8	134.7	-	-	-
독일	330.6	383.0	285.1	282.4	332.5	239.7
그리스	315.1	359.6	273.3	278.9	321.8	240.1
헝가리	643.5	776.2	551.5	594.2	725.0	500.3
아이슬란드	261.8	316.8	217.3	214.4	243.4	186.8
아일랜드	267.7	322.7	220.7	247.5	292.9	205.5
이스라엘	182.6	216.8	155.6	158.6	188.6	134.0
이탈리아	267.2	312.3	231.6	-	-	-
일본	159.8	201.7	126.0	142.9	184.5	108.9
한국	167.1	199.1	142.8	128.8	152.9	108.9
라트비아	705.6	908.7	577.7	643.0	843.5	516.5
리투아니아	703.1	894.7	577.5	645.6	850.0	516.0
룩셈부르크	223.2	261.5	188.6	180.3	228.1	143.3
멕시코	316.6	351.6	285.9	427.5	517.2	354.5
네덜란드	222.5	261.9	190.6	171.2	199.6	146.5
뉴질랜드	257.0	290.8	226.4	-	-	-
노르웨이	219.4	260.6	184.8	-	-	-
폴란드	495.6	615.1	407.4	428.5	537.0	349.0
포르투갈	244.7	288.3	210.8	221.6	267.9	186.0
슬로바키아	539.3	658.8	456.5	470.1	575.3	392.2
슬로베니아	347.8	387.8	308.9	291.0	323.5	258.5
스페인	209.3	247.8	176.4	182.5	220.0	150.7
스웨덴	272.9	332.9	225.2	246.0	294.3	205.5
스위스	226.0	267.3	193.0	191.3	226.4	162.3
튀르키예	443.5	509.3	391.5	383.6	438.7	337.5
영국	221.9	269.7	181.8	196.3	243.3	156.0
미국	280.7	338.3	233.7	279.2	337.8	229.4
평균¹⁾	317.4	382.1	268.1	292.9	358.1	2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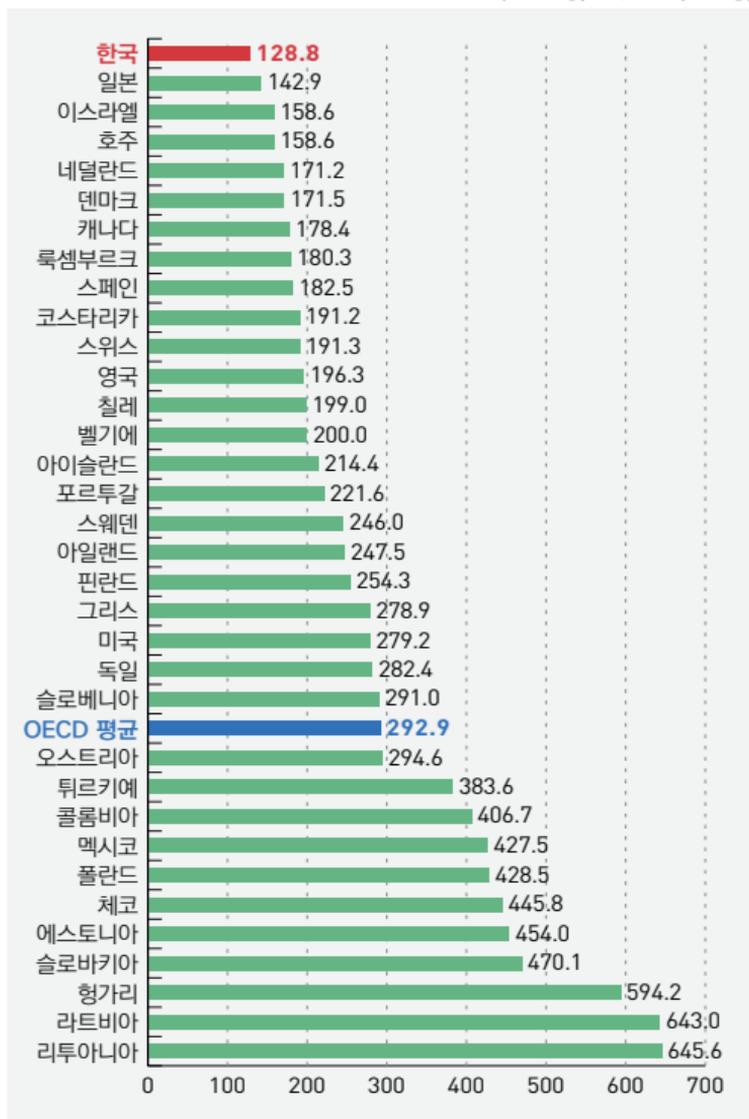
주 1) 2015년과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5년 38개국, 2020년 34개국)의 평균임

2) 핀란드, 슬로바키아는 2014년 수치임

3)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그림 3-3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전체),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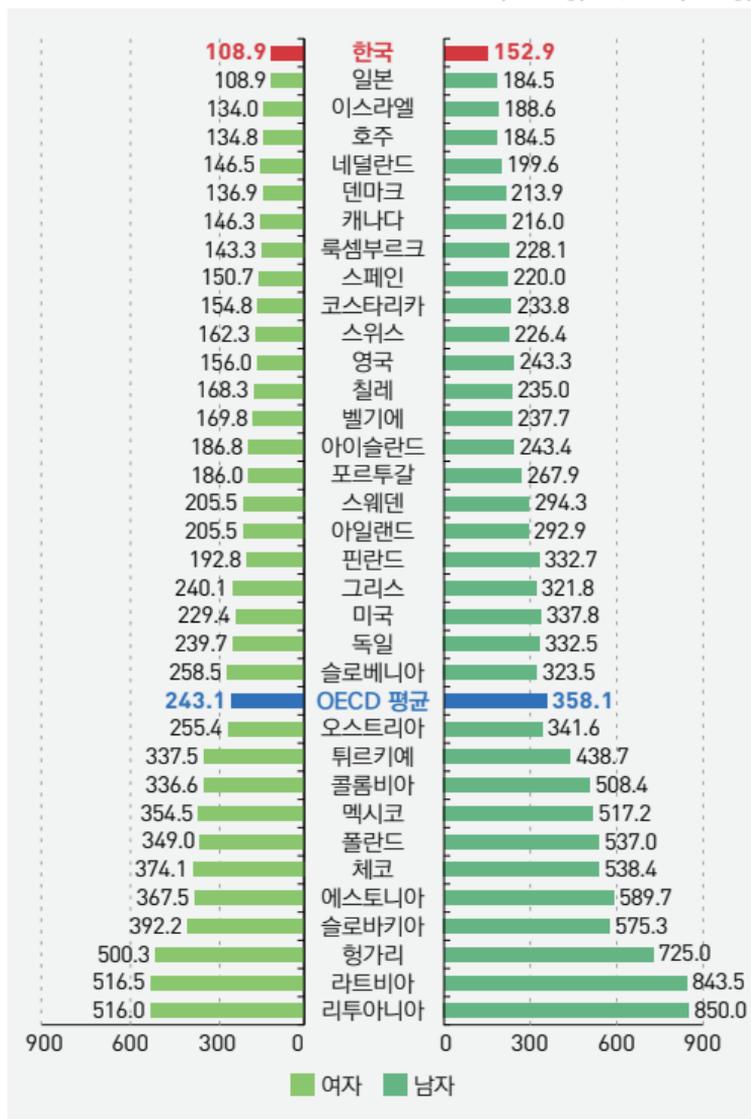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그림 3-4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성별, 202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32>

3-3. 호흡기계 질환⁴⁾

- »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80.7명으로 OECD 평균(68.3명)보다 높음
- » 2015년 83.5명에서 2020년 80.7명으로 2.8명 감소함(OECD 평균 6.6명 감소)
- » OECD 회원국 중에서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23.8명) 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145.3명)임
-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호흡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7.9명이고, 여자의 호흡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54.4명으로 OECD 평균(남자 91.4명, 여자 53.1명)보다 높음
 - 우리나라 남자와 여자의 호흡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차이는 2.4배임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보다 높음

4) 국제질병분류(ICD-10)의 J00-J98에 해당하는 질병

표 3-3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5 ²⁾			2020 ³⁾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65.4	78.1	55.8	50.1	60.9	41.9
오스트리아	44.7	62.5	33.1	44.4	58.4	34.8
벨기에	88.1	119.8	68.0	90.7	118.7	72.1
캐나다	70.4	85.8	60.0	63.7	76.1	54.8
칠레	89.1	113.2	72.8	69.5	87.8	56.3
콜롬비아	142.5	172.1	121.4	125.2	164.2	99.0
코스타리카	79.7	98.7	64.6	54.9	67.8	44.7
체코	70.5	99.5	51.6	70.9	101.5	50.8
덴마크	97.9	116.6	85.9	84.0	100.2	72.9
에스토니아	35.4	68.3	19.2	31.2	59.1	16.8
핀란드	28.7	46.4	17.7	23.8	37.5	14.5
프랑스	50.8	74.2	37.7	-	-	-
독일	63.5	87.2	48.1	52.4	70.3	39.8
그리스	98.3	115.7	84.7	73.7	88.4	62.1
헝가리	81.3	119.5	59.8	76.0	106.2	57.7
아이슬란드	58.3	54.4	61.3	58.0	64.0	52.8
아일랜드	111.8	135.5	96.5	111.6	124.2	102.2
이스라엘	64.4	79.1	53.3	65.0	78.8	54.2
이탈리아	54.0	77.3	39.9	-	-	-
일본	93.3	148.3	60.4	66.7	110.3	39.3
한국	83.5	134.7	57.7	80.7	127.9	54.4
라트비아	31.4	63.1	15.4	30.6	57.9	15.5
리투아니아	41.0	78.2	20.9	35.6	68.1	17.6
룩셈부르크	62.0	73.7	54.0	55.2	72.7	42.9
멕시코	105.0	125.1	88.6	145.3	190.8	108.8
네덜란드	71.6	91.7	59.8	50.5	62.1	42.6
뉴질랜드	74.3	84.9	66.6	-	-	-
노르웨이	80.7	100.5	68.1	-	-	-
폴란드	66.4	101.4	46.4	70.6	107.8	48.4
포르투갈	100.6	138.2	77.5	81.8	114.1	61.1
슬로바키아	62.3	98.4	42.1	65.9	93.6	49.2
슬로베니아	56.7	82.3	43.6	30.2	47.5	20.0
스페인	86.5	127.7	59.2	64.4	93.8	44.5
스웨덴	55.2	65.6	48.8	56.7	65.1	51.5
스위스	48.8	63.4	39.3	35.6	46.3	28.2
튀르키예	121.0	170.4	87.4	137.2	184.3	103.6
영국	119.0	139.4	104.7	88.6	105.8	75.8
미국	92.2	106.9	82.0	82.6	95.6	72.9
평균¹⁾	74.9	99.9	59.3	68.3	91.4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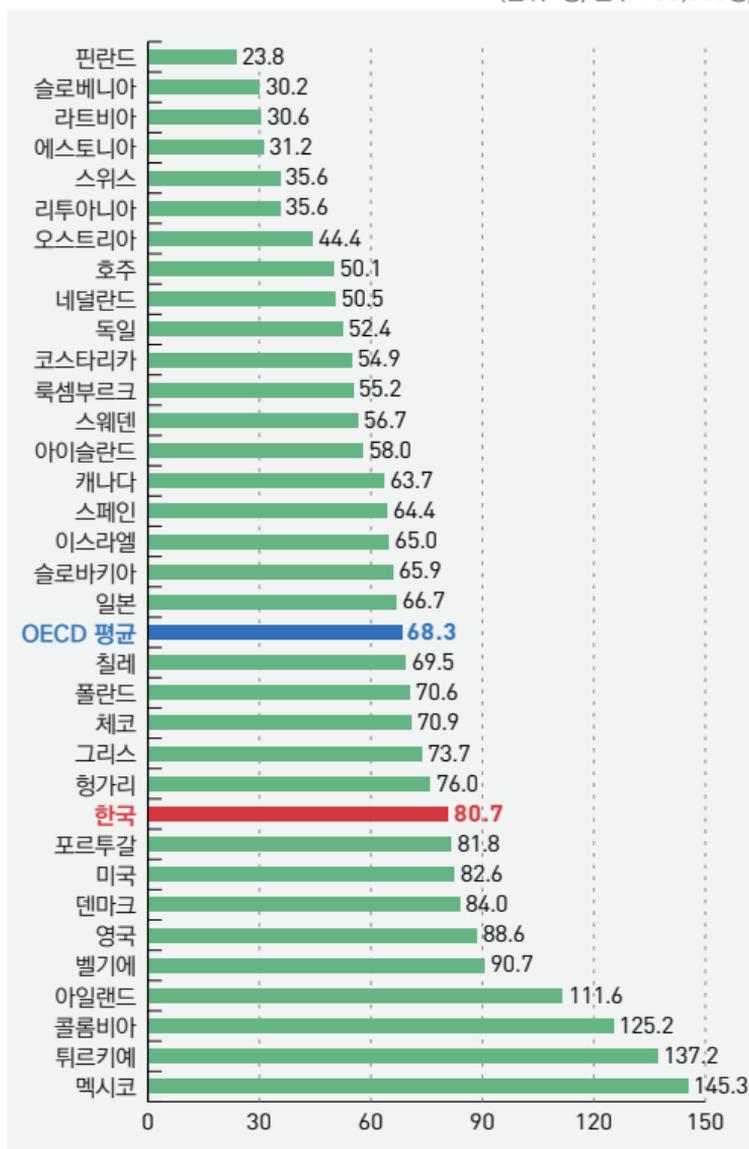
주 1) 2015년과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5년 38개국, 2020년 34개국)의 평균임

2) 핀란드, 슬로바키아는 2014년 수치임

3)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그림 3-5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전체), 202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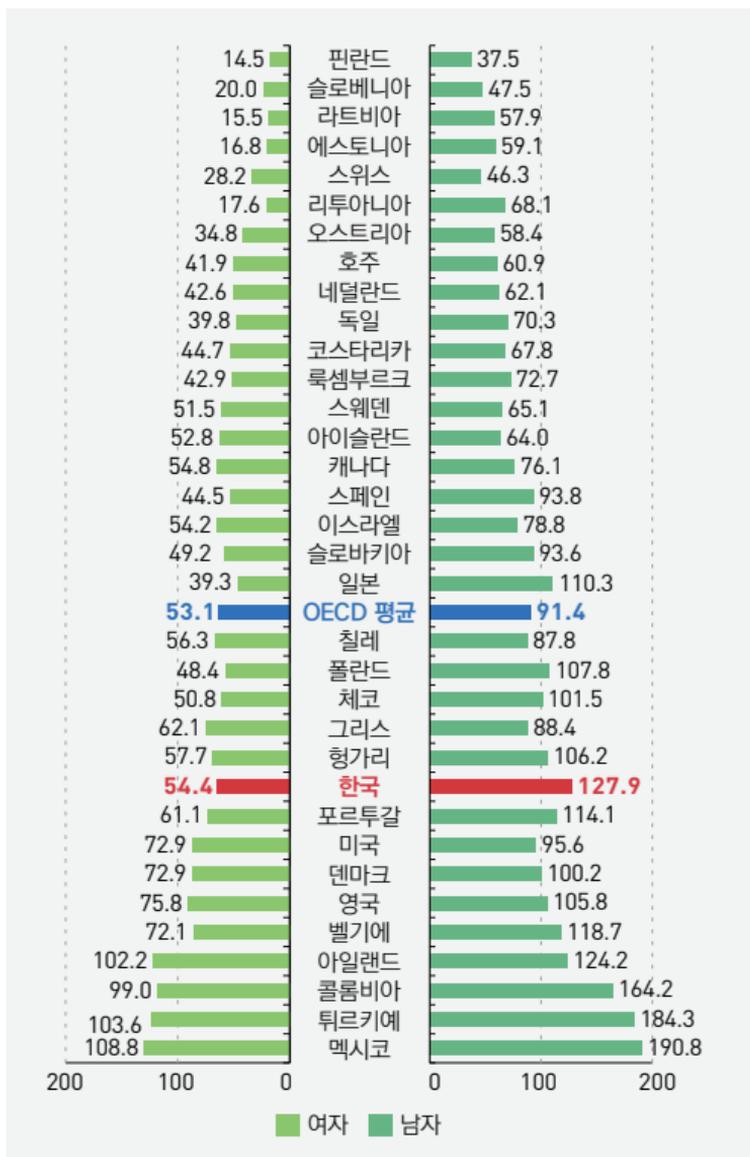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19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33>

그림 3-6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성별, 202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9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33>

3-4. 당뇨병⁵⁾

- » 당뇨병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6명으로 OECD 평균(28.2명)보다 낮음
- » 2015년 27.9명에서 2020년 17.6명으로 10.3명 감소함(OECD 평균 2.9명 증가)
- » OECD 회원국 중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6.2명)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220.4명)임
-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당뇨병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9명이고, 여자의 당뇨병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4.2명으로 OECD 평균(남자 32.9명, 여자 24.4명)보다 낮음
 - 튀르키예를 제외한 OECD 회원국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보다 높음

5) 국제질병분류(ICD-10)의 E10-E14에 해당하는 질병

표 3-4 당뇨병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5 ²⁾			2020 ³⁾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21.4	26.0	17.5	20.3	25.4	16.0
오스트리아	34.4	40.7	29.3	25.9	31.8	21.2
벨기에	11.3	12.7	10.0	10.6	12.7	8.8
캐나다	20.0	25.4	15.6	17.3	22.0	13.4
칠레	41.1	47.4	36.4	25.0	29.2	21.6
콜롬비아	36.9	37.7	36.2	42.5	46.6	39.7
코스타리카	37.6	39.0	35.9	71.3	74.9	67.4
체코	35.6	41.6	31.2	43.1	50.2	37.5
덴마크	22.4	28.7	17.4	18.7	24.6	13.8
에스토니아	9.1	10.1	8.1	20.2	22.9	18.6
핀란드	7.9	10.5	6.0	9.6	12.7	6.8
프랑스	14.6	19.9	11.2	-	-	-
독일	22.7	25.7	19.8	21.7	25.4	18.5
그리스	12.5	14.8	10.6	15.7	18.6	13.2
헝가리	26.3	30.9	23.0	28.0	33.3	24.3
아이슬란드	8.2	12.3	5.0	10.5	16.8	5.7
아일랜드	14.9	20.3	11.5	14.5	18.8	11.2
이스라엘	44.4	50.9	39.1	39.9	45.8	34.8
이탈리아	25.5	29.3	22.3	-	-	-
일본	6.5	8.8	4.6	6.2	8.7	4.1
한국	27.9	34.1	23.3	17.6	21.9	14.2
라트비아	20.4	24.1	18.2	29.0	31.2	26.7
리투아니아	9.6	11.9	8.1	20.0	24.5	17.6
룩셈부르크	16.1	20.5	13.2	12.6	14.4	10.8
멕시코	169.5	174.8	164.3	220.4	249.5	195.6
네덜란드	15.9	17.8	14.1	13.6	16.2	11.3
뉴질랜드	20.5	23.1	18.4	-	-	-
노르웨이	11.6	14.7	9.0	-	-	-
폴란드	22.4	24.5	20.2	29.9	35.0	25.5
포르투갈	33.0	37.1	29.7	26.1	29.7	23.4
슬로바키아	19.5	21.0	17.9	13.5	15.5	11.7
슬로베니아	14.0	17.9	11.3	16.9	21.5	13.6
스페인	17.1	19.4	15.2	17.1	20.0	14.7
스웨덴	17.7	22.3	14.0	17.8	22.3	14.1
스위스	13.9	17.1	11.6	9.6	12.5	7.3
튀르키예	41.8	40.3	42.5	32.5	31.4	32.9
영국	9.2	10.9	7.9	11.6	13.9	9.6
미국	26.6	32.8	21.6	31.0	38.8	24.5
평균¹⁾	25.3	28.9	22.4	28.2	32.9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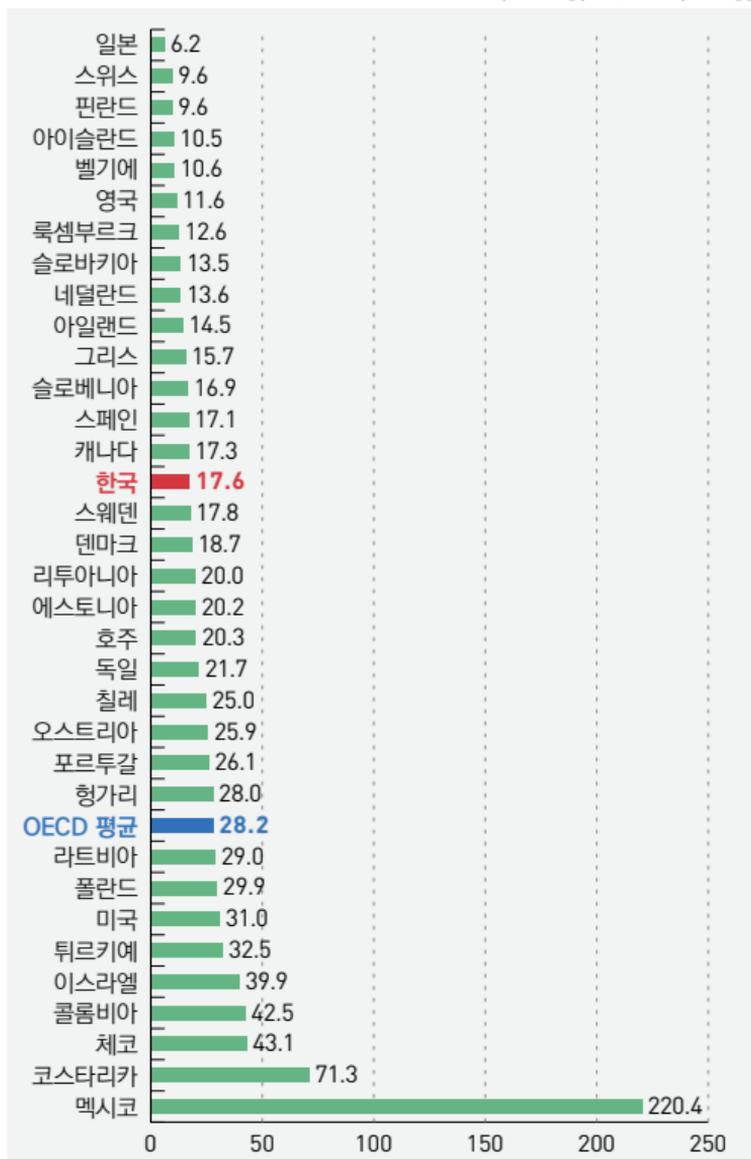
주 1) 2015년과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5년 38개국, 2020년 34개국)의 평균임

2) 핀란드, 슬로바키아는 2014년 수치임

3)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그림 3-7 당뇨병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2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34>

그림 3-8 당뇨병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성별), 202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34>

3-5. 치매⁶⁾

- »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27.6명)보다 낮음
- » 2015년 14.7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7.4명 감소함 (OECD 평균 1.8명 증가)
- » OECD 회원국 중에서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0.5명, 2019년)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64.2명)임
-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한국, 일본,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보다 높음

6) 국제질병분류(ICD-10)의 F00-F03에 해당하는 질병

표 3-5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5 ²⁾			2020 ³⁾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39.5	35.7	41.6	38.7	34.1	41.5
오스트리아	10.7	9.8	11.1	22.1	19.7	23.1
벨기에	32.0	30.3	32.3	31.6	29.5	32.5
캐나다	48.6	45.4	49.9	59.5	55.9	61.2
칠레	13.2	12.7	13.3	15.6	14.7	16.0
콜롬비아	3.4	3.4	3.4	6.6	6.6	6.6
코스타리카	11.3	9.9	12.2	16.9	17.2	16.5
체코	13.1	13.6	12.7	16.0	15.8	15.8
덴마크	43.4	40.1	44.9	43.0	37.7	45.9
에스토니아	1.6	1.7	1.6	6.0	5.3	6.3
핀란드	29.4	27.6	29.6	30.1	28.4	30.3
프랑스	21.8	24.1	20.5	-	-	-
독일	33.5	30.3	34.5	41.2	36.6	43.4
그리스	6.6	5.8	7.1	13.6	11.5	15.0
헝가리	30.2	29.7	30.1	36.4	33.9	37.1
아이슬란드	23.3	21.5	25.0	29.4	25.6	32.2
아일랜드	44.9	41.6	46.6	54.6	50.8	57.0
이스라엘	23.8	23.2	24.1	32.4	27.2	35.4
이탈리아	20.8	18.5	21.8	-	-	-
일본	4.7	4.0	4.9	7.4	8.0	6.9
한국	14.7	14.4	14.5	7.3	7.2	7.1
라트비아	8.6	5.8	9.4	21.3	22.0	20.7
리투아니아	2.4	2.7	2.4	9.2	9.7	8.8
룩셈부르크	35.8	37.8	33.8	40.9	32.8	45.0
멕시코	3.1	2.7	3.4	3.0	2.8	3.1
네덜란드	59.4	52.2	62.7	51.1	45.1	54.4
뉴질랜드	44.3	40.2	46.5	-	-	-
노르웨이	43.3	33.8	48.5	-	-	-
폴란드	0.5	0.4	0.6	0.9	0.8	1.0
포르투갈	22.7	24.1	21.8	34.7	34.2	34.7
슬로바키아	20.5	21.9	19.5	12.6	12.4	12.5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32.4	29.6	33.5	29.3	25.9	31.0
스웨덴	47.6	42.7	50.0	50.5	45.6	52.7
스위스	48.6	42.1	51.8	46.3	40.7	49.1
튀르키예	0.8	1.0	0.7	0.5	0.5	0.5
영국	71.5	63.1	75.8	64.2	57.1	68.3
미국	41.0	35.6	43.8	38.8	32.5	42.6
평균¹⁾	25.8	23.8	26.6	27.6	25.1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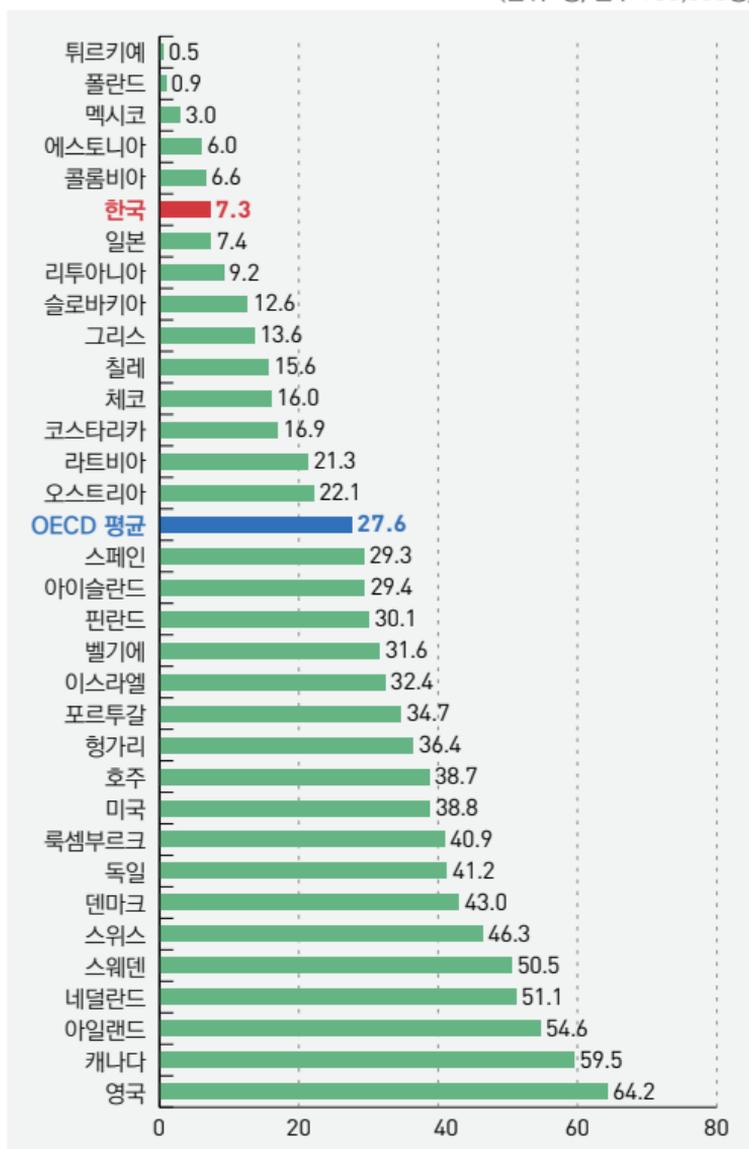
주 1) 2015년과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5년 37개국, 2020년 33개국)의 평균임

2) 핀란드, 슬로바키아는 2014년 수치임

3)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그림 3-9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2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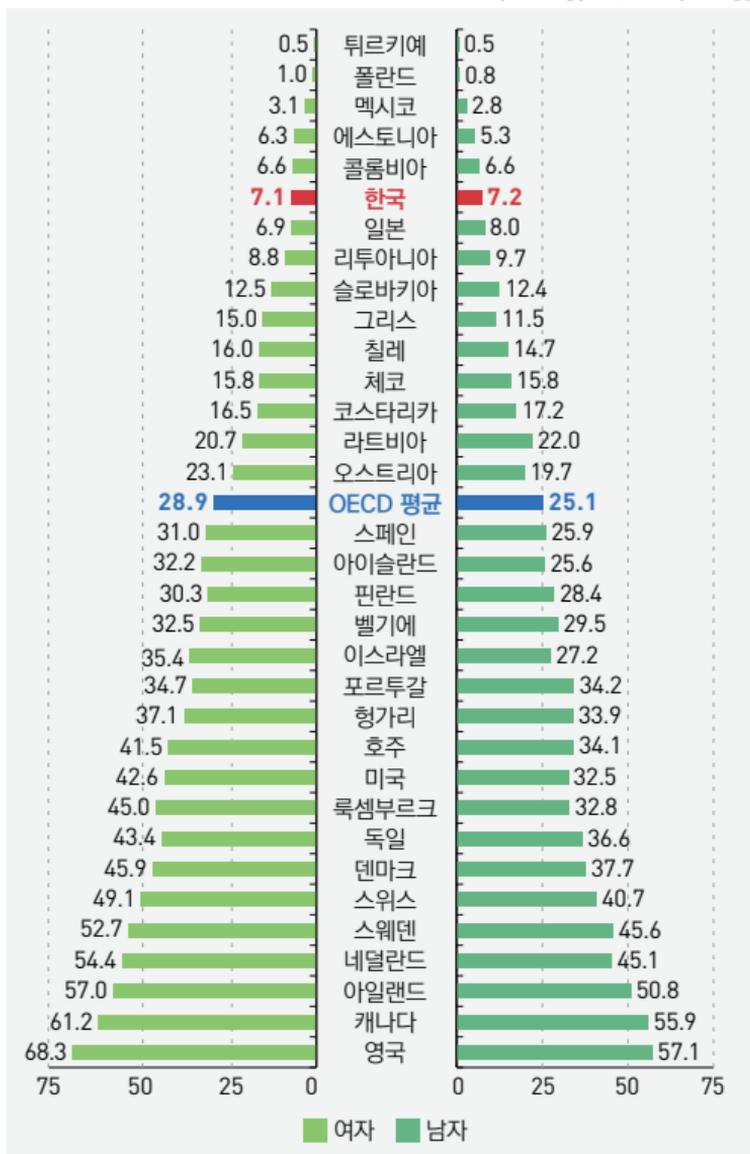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35>

그림 3-10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성별), 202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35>

3-6. 자살⁷⁾

- ▶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OECD 평균(11.0명)보다 높음
- ▶ 2015년 26.8명에서 2020년 24.1명으로 2.7명 감소함(OECD 평균 1.1명 감소)
 - 2010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증가하였음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35.0	34.7	30.3	29.8	27.6	26.8	25.5	23.8	25.5	25.4	24.1
남자	52.2	52.5	45.3	45.4	41.8	41.3	39.1	36.5	39.1	38.0	34.9
여자	22.1	20.9	18.5	17.3	15.8	15.1	14.5	13.1	14.0	14.9	14.9

- ▶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3.9명)임
-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4.9명이고, 여자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4.9명으로 OECD 평균(남자 17.7명, 여자 5.1명)보다 높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보다 높음

7) 국제질병분류(ICD-10)의 X60-X84, Y87.00에 해당하는 외인

표 3-6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5 ²⁾			2020 ³⁾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3.2	20.3	6.4	12.4	19.2	5.9
오스트리아	13.4	22.3	5.9	10.8	18.2	4.6
벨기에	16.2	23.6	9.2	15.2	22.6	8.4
캐나다	12.0	18.1	6.2	10.5	16.2	5.0
칠레	10.9	18.2	4.3	8.4	14.4	2.8
콜롬비아	5.3	9.2	1.9	5.6	9.8	1.9
코스타리카	6.7	11.6	2.1	7.0	11.3	2.8
체코	12.6	21.8	4.6	10.9	19.2	3.7
덴마크	9.7	13.9	5.8	9.6	14.1	5.4
에스토니아	14.5	27.0	4.6	15.2	26.9	6.2
핀란드	14.3	22.3	6.8	12.9	19.2	6.9
프랑스	13.6	22.6	6.0	-	-	-
독일	10.9	17.2	5.6	9.7	15.4	4.6
그리스	4.6	7.6	1.8	3.9	6.7	1.5
헝가리	18.0	30.7	8.1	14.8	25.2	6.8
아이슬란드	12.4	17.5	6.9	12.7	16.4	8.4
아일랜드	9.5	15.1	4.0	9.4	14.3	4.7
이스라엘	5.0	8.1	2.1	5.7	9.4	2.4
이탈리아	5.9	9.7	2.5	-	-	-
일본	17.0	24.8	9.6	15.4	21.2	9.8
한국	26.8	41.3	15.1	24.1	34.9	14.9
라트비아	18.6	34.0	6.5	14.9	28.5	4.4
리투아니아	29.6	54.3	9.7	20.3	35.9	7.5
룩셈부르크	11.5	16.5	7.0	9.4	14.8	4.3
멕시코	5.5	9.6	1.8	6.3	11.0	2.0
네덜란드	10.7	15.1	6.7	10.0	13.8	6.4
뉴질랜드	11.8	17.8	6.2	-	-	-
노르웨이	11.4	15.6	7.4	-	-	-
폴란드	13.7	25.1	3.6	11.5	21.1	2.9
포르투갈	9.7	15.6	5.1	8.4	14.2	3.7
슬로바키아	10.0	18.8	2.8	6.6	12.0	1.9
슬로베니아	18.9	32.3	7.6	15.7	26.8	5.7
스페인	7.2	11.3	3.6	7.5	11.8	3.7
스웨덴	12.0	17.6	6.7	12.4	17.5	7.6
스위스	12.3	19.1	6.2	10.6	15.7	5.9
튀르키예	2.2	3.4	1.0	4.4	7.0	2.0
영국	7.6	11.8	3.6	8.4	12.9	4.0
미국	14.0	22.4	6.3	14.1	23.0	5.7
평균¹⁾	12.1	19.6	5.6	11.0	17.7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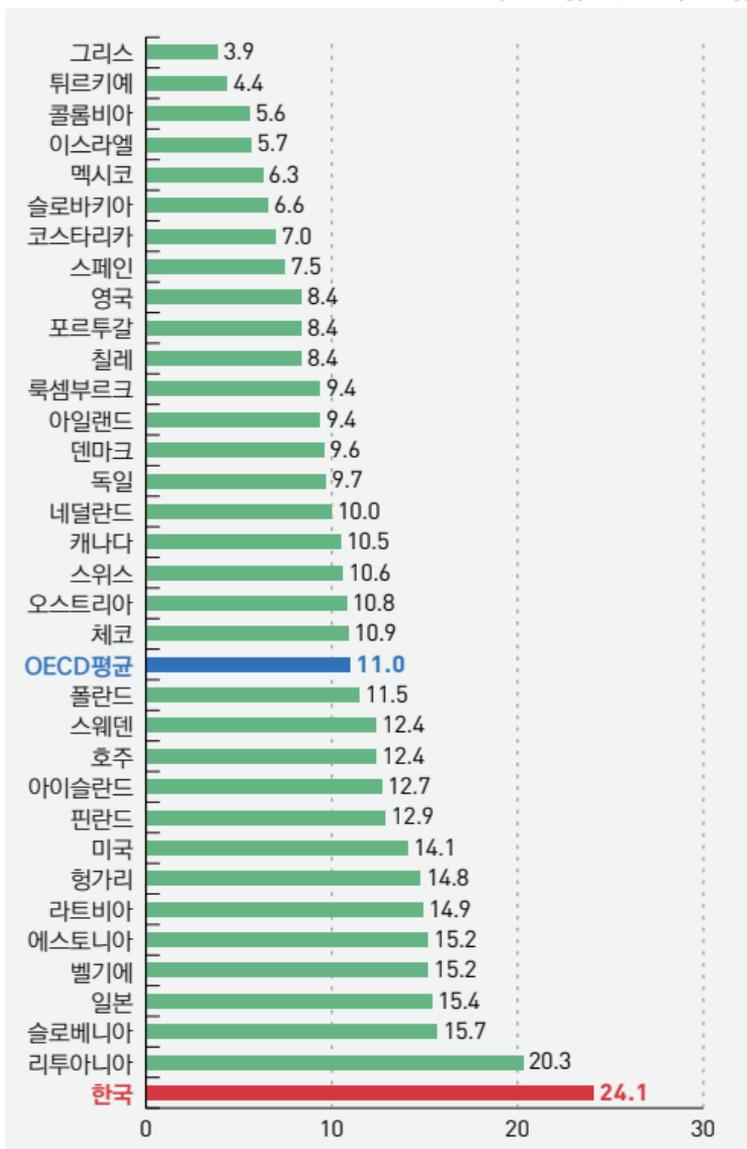
주 1) 2015년과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5년 38개국, 2020년 34개국)의 평균임

2) 핀란드, 슬로바키아는 2014년 수치임

3)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그림 3-11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2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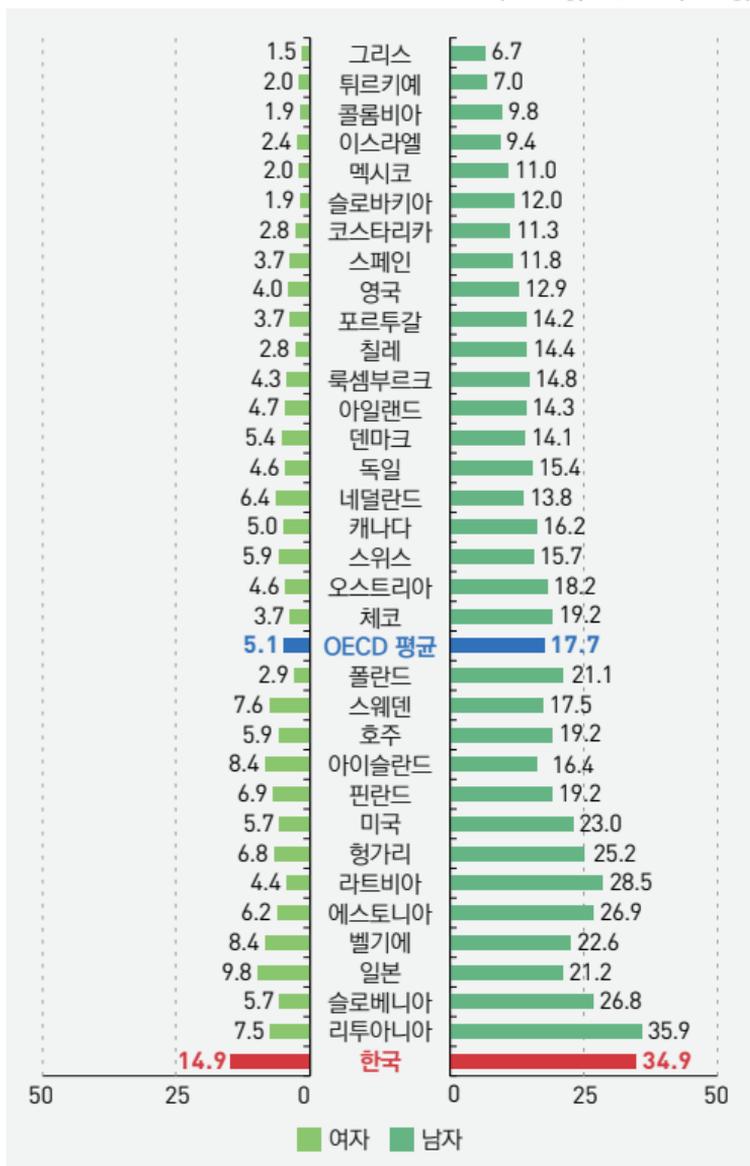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36>

그림 3-12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성별), 202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36>

4 회피가능사망률

-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2.0명으로(예방가능사망률 99.0명, 치료가능사망률 43.0명) OECD 평균인 239.1명(예방가능사망률 157.3명, 치료가능사망률 81.8명) 보다 낮음
- 2015년 177.0명에서 2020년 142.0명으로 35.0명 감소함(OECD 평균 11.3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회피가능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131.0명)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665.0명)임

표 4 회피가능사망률(예방가능사망률 및 치료가능 사망률)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5 ²⁾			2020 ³⁾		
	회피가능 사망률	예방가능 사망률	치료가능 사망률	회피가능 사망률	예방가능 사망률	치료가능 사망률
호주	162.0	108.0	54.0	144.0	96.0	48.0
오스트리아	201.0	137.0	64.0	191.0	134.0	57.0
벨기에	193.0	133.0	60.0	178.0	121.0	57.0
캐나다	188.0	125.0	63.0	171.0	113.0	58.0
칠레	231.0	143.0	88.0	247.0	171.0	76.0
콜롬비아	258.0	155.0	103.0	328.0	223.0	105.0
코스타리카	211.0	125.0	86.0	237.0	148.0	89.0
체코	279.0	170.0	109.0	277.0	178.0	99.0
덴마크	198.0	135.0	63.0	174.0	120.0	54.0
에스토니아	331.0	215.0	116.0	322.0	217.0	105.0
핀란드	200.0	138.0	62.0	186.0	129.0	57.0
프랑스	164.0	113.0	51.0	-	-	-
독일	204.0	131.0	73.0	195.0	129.0	66.0
그리스	206.0	126.0	80.0	204.0	128.0	76.0
헝가리	430.0	279.0	151.0	404.0	262.0	142.0
아이슬란드	154.0	103.0	51.0	131.0	83.0	48.0
아일랜드	184.0	115.0	69.0	172.0	109.0	63.0
이스라엘	152.0	82.0	70.0	141.0	83.0	58.0
이탈리아	154.0	95.0	59.0	-	-	-
일본	152.0	97.0	55.0	134.0	85.0	49.0
한국	177.0	125.0	52.0	142.0	99.0	43.0
라트비아	455.0	286.0	169.0	413.0	262.0	151.0
리투아니아	469.0	293.0	176.0	449.0	285.0	164.0
룩셈부르크	160.0	105.0	55.0	154.0	107.0	47.0
멕시코	374.0	216.0	158.0	665.0	435.0	230.0
네덜란드	166.0	109.0	57.0	161.0	113.0	48.0
뉴질랜드	186.0	118.0	68.0	-	-	-
노르웨이	157.0	105.0	52.0	-	-	-
폴란드	291.0	184.0	107.0	344.0	227.0	117.0
포르투갈	191.0	119.0	72.0	180.0	114.0	66.0
슬로바키아	346.0	207.0	139.0	321.0	189.0	132.0
슬로베니아	226.0	154.0	72.0	221.0	164.0	57.0
스페인	157.0	100.0	57.0	169.0	118.0	51.0
스웨덴	162.0	103.0	59.0	150.0	97.0	53.0
스위스	140.0	95.0	45.0	133.0	94.0	39.0
튀르키예	273.0	155.0	118.0	233.0	126.0	107.0
영국	202.0	128.0	74.0	222.0	151.0	71.0
미국	274.0	181.0	93.0	336.0	238.0	98.0
평균¹⁾	227.8	144.9	82.9	239.1	157.3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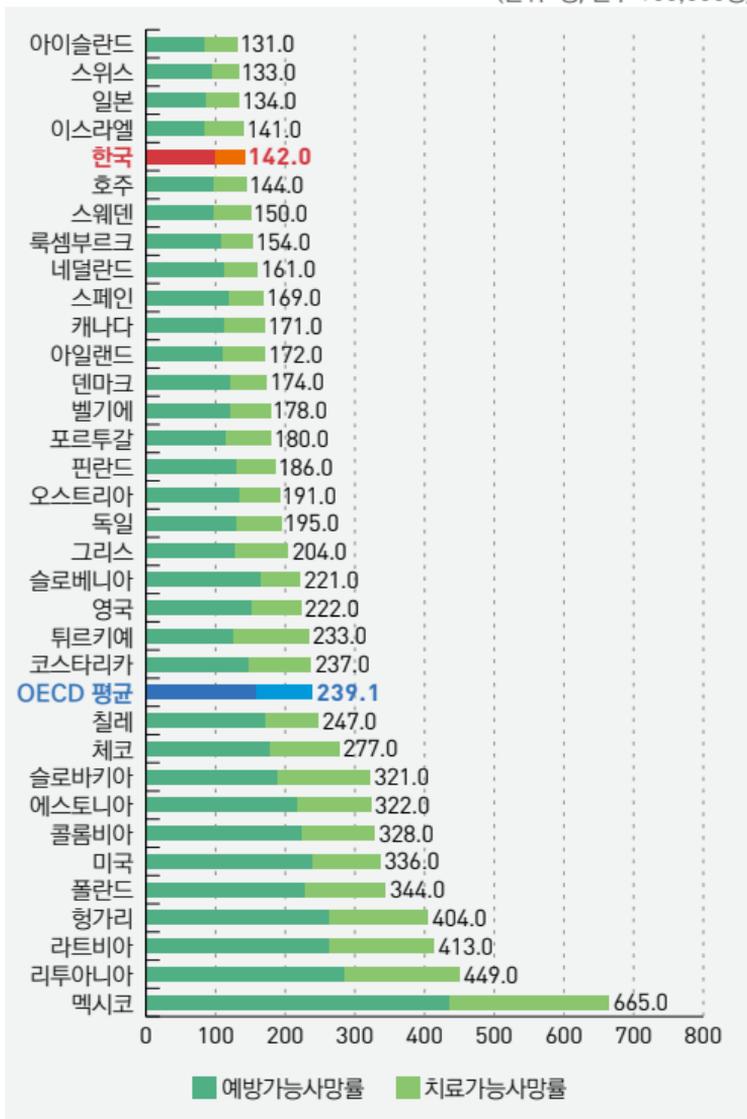
주 1) 2015년과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5년 38개국, 2020년 34개국)의 평균임

2) 핀란드, 슬로바키아는 2014년 수치임

3)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그림 4-1 회피가능사망률(예방가능사망률 및 치료가능사망률), 202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 주 1) 그래프 수치는 회피가능사망률로서, 예방가능사망률과 치료가능사망률의 합임
 2)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3)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40>

5 >>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⁸⁾

- >>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좋음, 매우 좋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9.6%로 OECD 평균(68.6%)보다 낮음
- >>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36.6%, 2019년), 리투아니아(47.8%), 한국(49.6%, 2020년), 라트비아(49.8%)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은 반면, 캐나다(88.3%), 뉴질랜드(88.0%), 미국(86.4%)은 높음
- >> 주관적 건강상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54.0%이고, 여자는 45.3%로 OECD 평균(남자 70.8%, 여자 66.5%)보다 낮음
 -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8) 우리나라는 「통계청. 사회조사」를 자료원으로 사용하는 바, 2년 주기(짝수 해)로 OECD에 통계를 제공함

표 5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단위:%)

	2016 ²⁾			2021 ³⁾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5.2	85.4	85.1	-	-	-
오스트리아	70.2	72.0	68.5	72.2	72.6	71.8
벨기에	73.9	76.6	71.2	76.3	78.7	74.0
캐나다	88.4	89.1	87.8	88.3	88.5	88.1
칠레	57.4	62.3	53.1	50.5	54.0	47.2
콜롬비아	-	-	-	80.4	83.6	77.5
코스타리카	-	-	-	-	-	-
체코	60.3	62.2	59.0	67.7	70.3	65.3
덴마크	71.3	72.4	70.2	68.6	70.0	67.1
에스토니아	52.8	56.1	50.6	58.2	60.6	56.1
핀란드	70.2	71.7	68.7	70.1	72.0	68.3
프랑스	66.3	68.3	64.5	67.8	69.9	65.9
독일	65.2	66.8	63.5	63.0	65.0	61.0
그리스	73.9	76.6	71.4	78.2	80.0	76.4
헝가리	59.5	63.2	56.2	64.7	68.0	61.8
아이슬란드	76.1	78.9	73.2	-	-	-
아일랜드	82.9	82.7	83.1	81.1	80.9	81.3
이스라엘	83.6	85.4	81.9	73.8	74.6	73.0
이탈리아	70.9	74.3	67.7	73.5	76.2	71.0
일본	35.5	37.0	34.1	36.6	38.0	35.3
한국	46.3	50.4	42.3	49.6	54.0	45.3
라트비아	47.2	52.8	42.8	49.8	54.7	46.0
리투아니아	43.2	48.5	40.0	47.8	52.3	44.9
룩셈부르크	69.1	71.6	66.7	76.4	78.4	74.3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75.9	78.6	73.2	73.1	73.7	72.5
뉴질랜드	87.7	87.9	87.4	88.0	88.6	87.5
노르웨이	77.1	79.1	75.2	74.5	76.9	72.1
폴란드	58.4	61.9	55.5	64.4	67.9	61.4
포르투갈	47.6	52.5	43.3	50.1	54.2	46.5
슬로바키아	66.3	69.9	63.0	65.1	68.4	62.0
슬로베니아	64.4	68.1	60.9	69.1	71.5	66.7
스페인	72.4	75.2	69.8	71.1	73.9	68.5
스웨덴	75.0	77.6	72.4	72.3	74.3	70.4
스위스	77.6	79.6	75.7	81.9	83.3	80.5
터키	69.4	73.9	65.0	67.8	72.3	63.4
영국	69.0	69.0	68.9	72.9	74.3	71.6
미국	87.6	88.3	87.1	86.4	86.8	86.1
평균¹⁾	67.9	70.5	65.7	68.6	70.8	66.5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5개국, 2021년 34개국)의 평균임

2) 호주는 2014년, 칠레는 2015년 수치임

3) 콜롬비아, 일본, 영국은 2019년, 한국, 노르웨이는 2020년 수치임

그림 5-1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전체), 2021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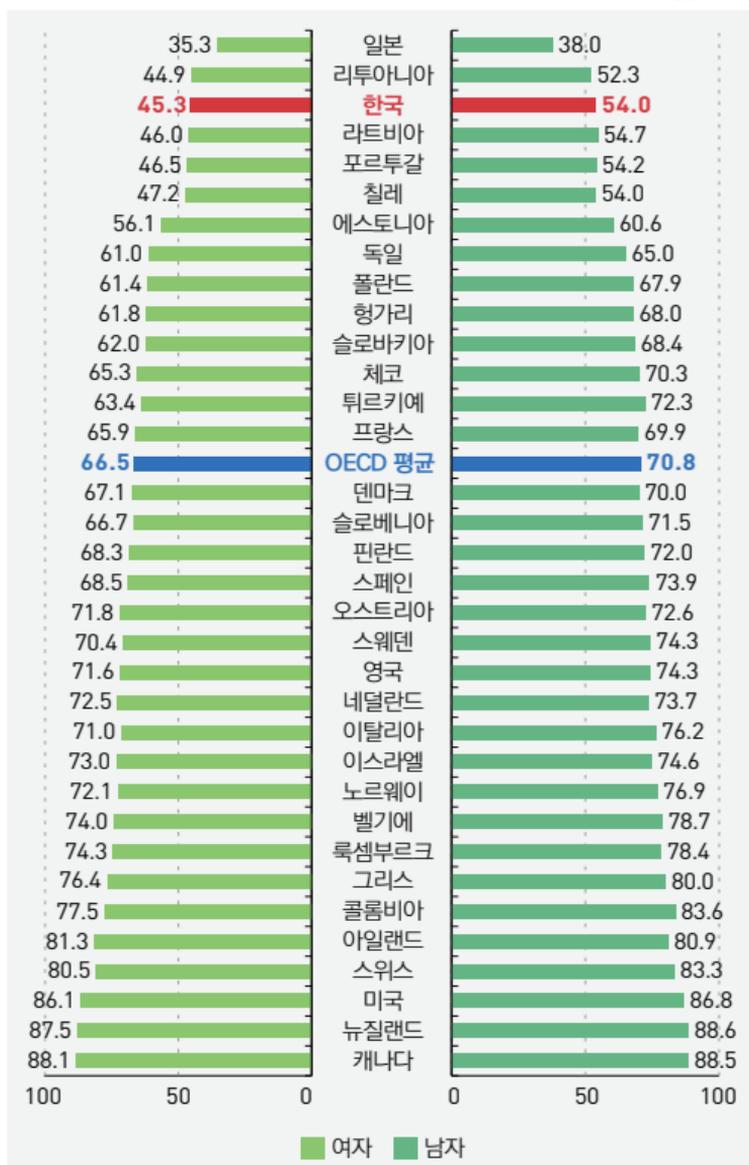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콜롬비아, 일본, 영국은 2019년, 한국, 노르웨이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50>

그림 5-2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성별, 2021년)

(단위:%)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콜롬비아, 일본, 영국은 2019년, 한국, 노르웨이는 2020년 수치임



02

건강 위험요인

- 6. 주류 소비량
- 7. 흡연율
- 8.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6 >> 주류 소비량

-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7.7리터로 OECD 평균(8.6리터) 보다 적었음
 - 순수 알코올은 맥주는 4~5%, 포도주는 11~16%, 독주는 40%의 알코올로 환산함
- >> 주류 소비량은 2016년 8.7리터에서 2021년 7.7리터로 1.0리터 감소함(OECD 평균 0.1리터 감소)
- >> OECD 회원국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가장 적은 국가는 튀르키예(1.4리터)이고, 가장 많은 국가는 라트비아(12.2리터)임
 - OECD 회원국 15개 국가에서 연간 1인당 10.0리터 이상의 주류를 소비하고 있음

표 6 주류 소비량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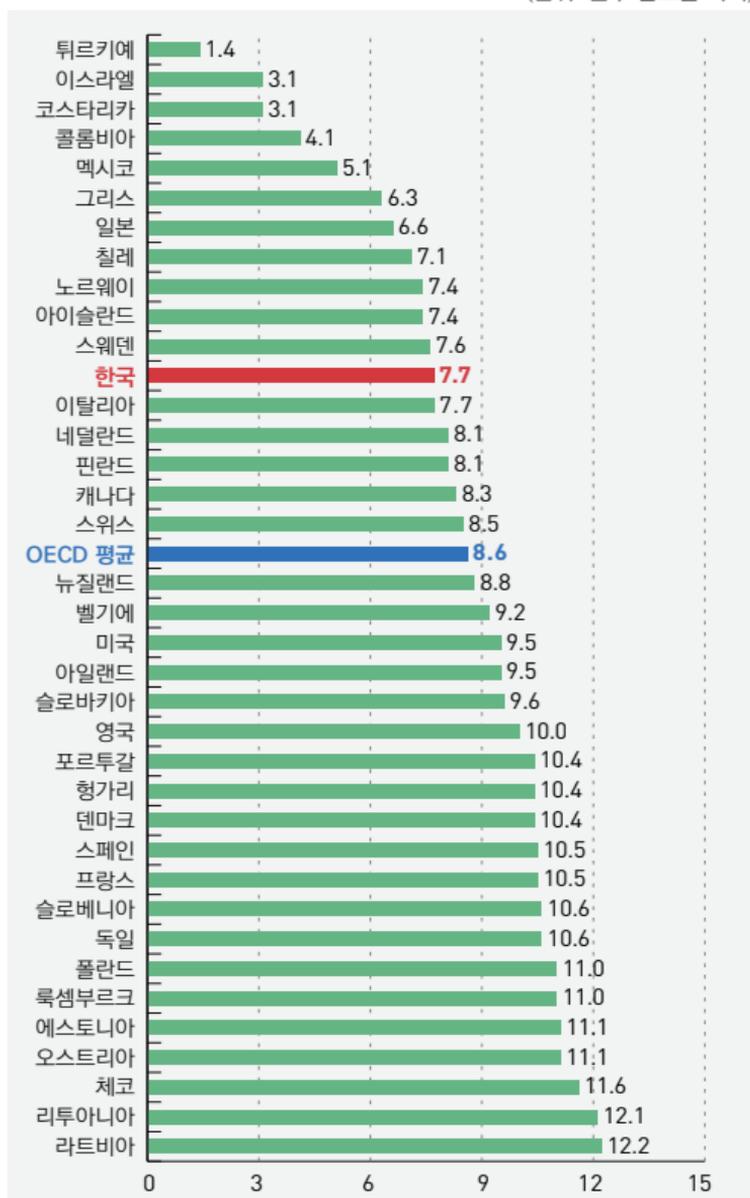
	2016	2021 ²⁾
호주	9.5	-
오스트리아	11.4	11.1
벨기에	9.4	9.2
캐나다	8.1	8.3
칠레	6.4	7.1
콜롬비아	4.5	4.1
코스타리카	3.4	3.1
체코	11.7	11.6
덴마크	10.0	10.4
에스토니아	10.2	11.1
핀란드	8.4	8.1
프랑스	11.7	10.5
독일	11.0	10.6
그리스	6.7	6.3
헝가리	11.1	10.4
아이슬란드	7.5	7.4
아일랜드	11.2	9.5
이스라엘	2.7	3.1
이탈리아	7.1	7.7
일본	7.2	6.6
한국	8.7	7.7
라트비아	11.3	12.2
리투아니아	13.2	12.1
룩셈부르크	11.4	11.0
멕시코	4.4	5.1
네덜란드	8.2	8.1
뉴질랜드	8.9	8.8
노르웨이	6.0	7.4
폴란드	10.5	11.0
포르투갈	10.4	10.4
슬로바키아	9.9	9.6
슬로베니아	10.5	10.6
스페인	10.9	10.5
스웨덴	7.2	7.6
스위스	8.7	8.5
튀르키예	1.3	1.4
영국	9.5	10.0
미국	8.9	9.5
평균¹⁾	8.7	8.6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8개국, 2021년 37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은 2019년, 아이슬란드는 2020년 수치임

그림 6-1 주류 소비량, 2021년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은 2019년, 아이슬란드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60>

그림 6-2 연도별 주류 소비량, 2011~2021년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



- 주 1) 2018년~2020년은 호주가 제외,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은 2020년이 제외됨
 2) 2021년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60>

-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비율 (흡연율)은 15.4%로 OECD 평균(15.9%)과 비슷함
- ▶▶ 흡연율은 2016년 18.4%에서 2021년 15.4%로 3.0%p 감소함(OECD 평균 2.5%p 감소)
- ▶▶ OECD 회원국 중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7.2%)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튀르키예 (28.0%, 2019년)임
- ▶▶ 성별에 따른 흡연율을 살펴보면, 여자 흡연율은 4.5%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낮지만, 남자는 26.3%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아홉 번째로 높음(OECD 평균 여자 12.3%, 남자 19.9%)

표 7 흡연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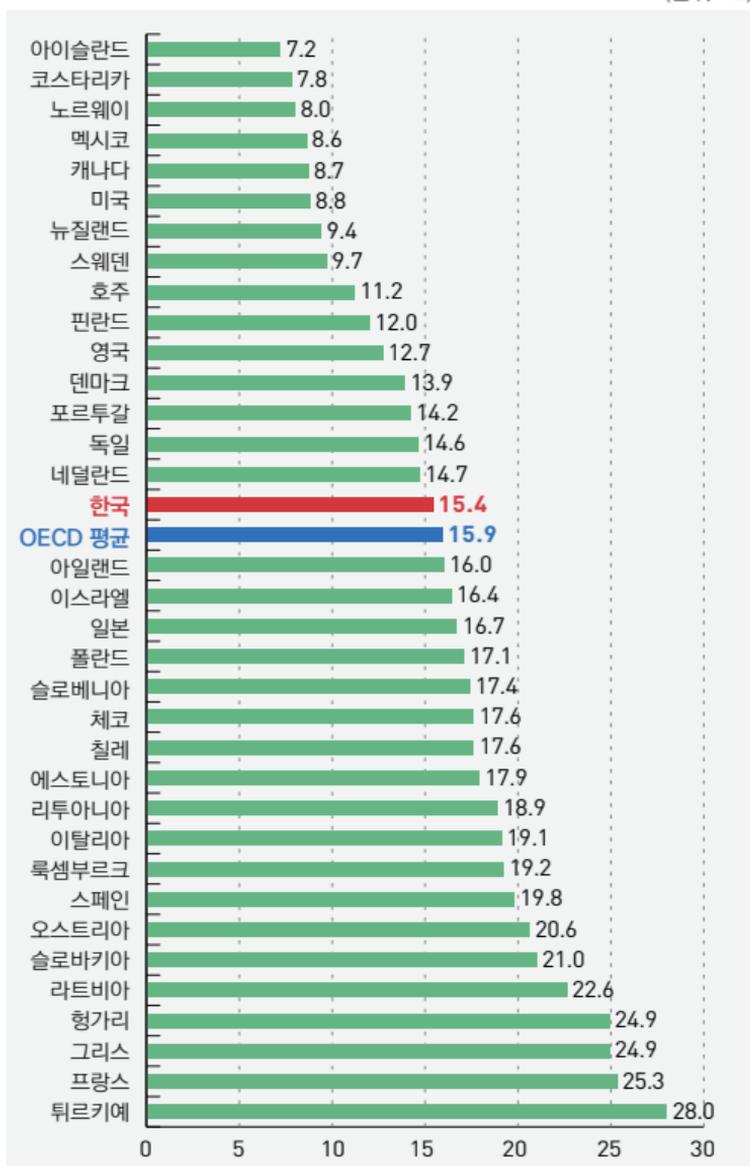
	2016 ²⁾			2021 ³⁾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2.4	14.0	10.8	11.2	12.4	10.0
오스트리아	24.3	26.5	22.1	20.6	23.5	17.8
벨기에	-	-	-	-	-	-
캐나다	12.5	14.2	10.8	8.7	9.5	7.9
칠레	24.5	28.2	20.9	17.6	17.7	17.5
콜롬비아	-	-	-	-	-	-
코스타리카	10.5	15.3	5.9	7.8	11.5	4.3
체코	19.6	23.8	15.6	17.6	22.0	13.3
덴마크	-	-	-	13.9	15.2	12.7
에스토니아	21.3	29.9	15.5	17.9	25.7	12.6
핀란드	15.0	16.0	15.0	12.0	14.0	11.0
프랑스	29.4	33.0	26.0	25.3	27.8	23.0
독일	-	-	-	14.6	17.5	11.8
그리스	27.3	33.8	21.4	24.9	31.3	19.0
헝가리	25.8	31.6	20.8	24.9	27.7	22.3
아이슬란드	10.2	9.5	10.8	7.2	7.5	6.8
아일랜드	19.0	21.0	17.0	16.0	17.0	14.0
이스라엘	19.6	25.3	14.1	16.4	21.7	11.4
이탈리아	20.0	25.1	15.3	19.1	23.1	15.5
일본	18.3	30.2	8.2	16.7	27.1	7.6
한국	18.4	32.9	4.1	15.4	26.3	4.5
라트비아	24.6	37.0	14.6	22.6	35.2	12.3
리투아니아	20.3	33.9	9.2	18.9	29.9	9.7
룩셈부르크	14.9	17.3	12.6	19.2	21.0	17.4
멕시코	6.4	10.0	3.1	8.6	13.2	4.4
네덜란드	18.0	20.9	15.2	14.7	17.6	11.9
뉴질랜드	14.5	15.9	13.1	9.4	9.5	9.2
노르웨이	12.0	13.0	11.0	8.0	6.0	9.0
폴란드	22.7	28.8	17.2	17.1	20.8	14.1
포르투갈	16.8	23.5	10.9	14.2	20.2	9.0
슬로바키아	22.9	30.4	15.8	21.0	26.9	15.4
슬로베니아	18.9	21.8	16.0	17.4	19.3	15.6
스페인	23.0	27.6	18.6	19.8	23.3	16.5
스웨덴	10.9	10.6	11.2	9.7	10.2	9.1
스위스	-	-	-	-	-	-
튀르키예	26.5	40.1	13.3	28.0	41.3	14.9
영국	16.1	17.7	14.5	12.7	13.7	11.7
미국	11.8	13.2	10.5	8.8	9.7	8.0
평균¹⁾	18.4	23.4	14.0	15.9	19.9	12.3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3개국, 2021년 35개국)의 평균임

- 2)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은 2014년 수치임
- 3)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는 2019년,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페인은 2020년 수치임

그림 7-1 흡연율(전체), 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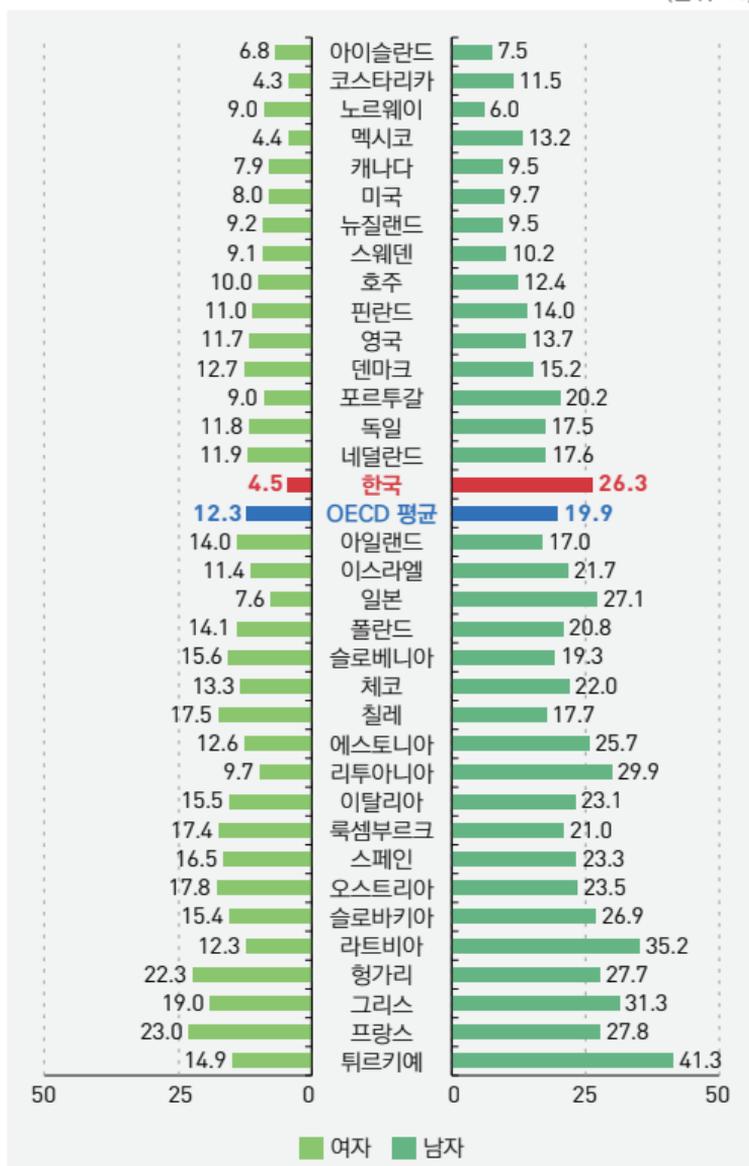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5개국의 평균임
 2)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는 2019년,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페인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70>

그림 7-2 흡연율(성별), 2021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5개국의 평균임
 2)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는 2019년,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페인은 2020년 수치임

- »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해서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6.7%로 OECD 평균(57.5%)보다 낮음
- »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은 2016년 34.5%에서 2021년 36.7%로 2.2%p 증가함(OECD 평균 0.2%p 감소)
- » OECD 회원국 중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27.2%, 2019년)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74.1%, 2020년)임
- »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44.3%, 여자 29.0%로 남녀 모두 OECD 평균(남자 61.6%, 여자 53.5%)보다 낮음

9) OECD는 측정된 키와 몸무게로 산출된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과 자가 보고된 값에 따른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지표를 함께 수집하고 있음. OECD는 Health at a glance에서 두 지표를 섞어서 비교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측정된 값에 기반을 둔 결과를 살펴봄

표 8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단위:%)

	2016 ²⁾			2021 ³⁾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63.4	70.8	56.3	-	-	-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51.0	55.5	46.4	-	-	-
캐나다	64.2	68.4	60.0	59.8	66.3	53.4
칠레	74.2	73.6	74.9	-	-	-
콜롬비아	-	-	-	-	-	-
코스타리카	-	-	-	-	-	-
체코	-	-	-	-	-	-
덴마크	-	-	-	-	-	-
에스토니아	51.3	58.1	44.9	-	-	-
핀란드	-	-	-	-	-	-
프랑스	49.0	53.9	44.2	-	-	-
독일	-	-	-	-	-	-
그리스	-	-	-	-	-	-
헝가리	62.3	64.8	60.0	67.6	76.0	60.0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61.0	68.0	54.0	61.0	66.0	55.0
이스라엘	50.9	55.1	46.4	-	-	-
이탈리아	-	-	-	-	-	-
일본	25.4	31.3	20.6	27.2	33.0	22.3
한국	34.5	40.5	28.5	36.7	44.3	29.0
라트비아	54.6	56.2	53.2	58.8	57.6	60.0
리투아니아	-	-	-	-	-	-
룩셈부르크	-	-	-	-	-	-
멕시코	72.5	69.4	75.6	74.1	72.1	76.0
네덜란드	-	-	-	-	-	-
뉴질랜드	67.0	70.7	63.5	68.1	70.7	65.5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67.6	70.3	65.2	-	-	-
슬로바키아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튀르키예	-	-	-	-	-	-
영국	61.4	65.7	57.1	64.2	68.2	60.4
미국	71.0	74.1	67.9	-	-	-
평균¹⁾	57.7	61.6	54.0	57.5	61.6	53.5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17개국, 2021년 9개국)의 평균임

2) 호주, 벨기에, 에스토니아, 헝가리는 2014년,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포르투갈은 2015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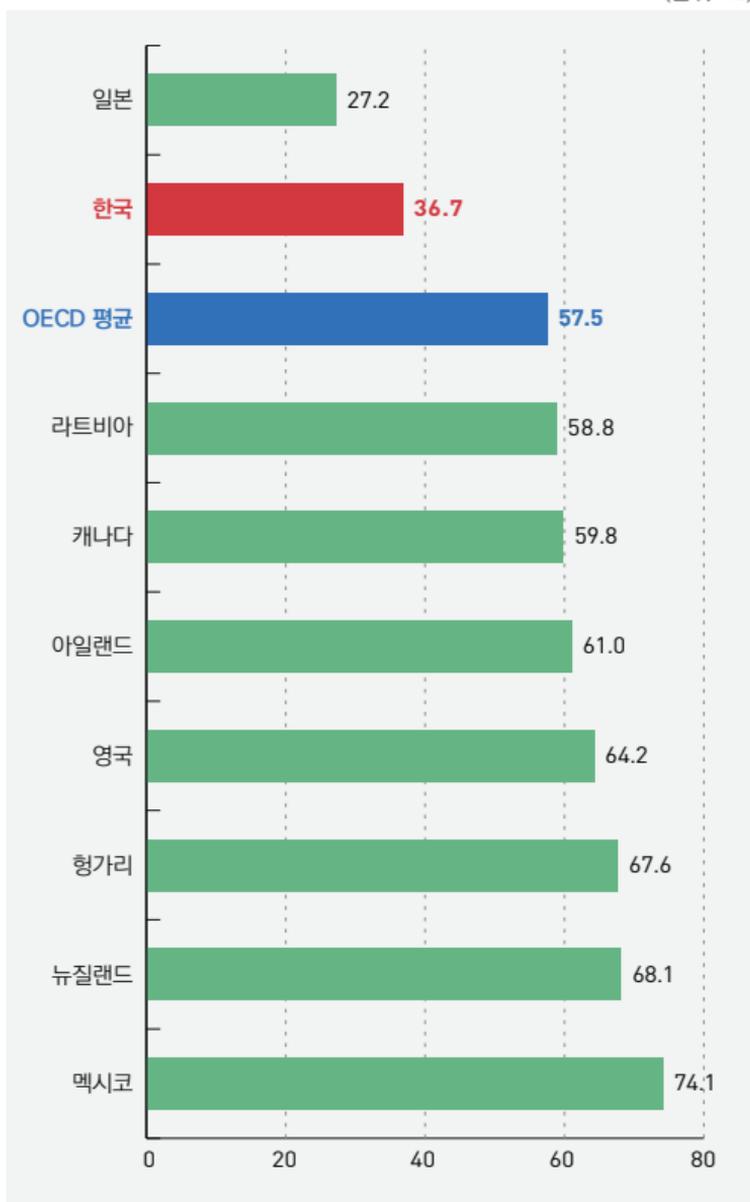
3) 캐나다,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영국은 2019년, 라트비아, 멕시코는 2020년 수치임

4)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튀르키예, 영국, 미국은 자가 보고된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값을 OECD에 제공하고 있음

01. 건강상태
02. 건강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06. 보건의료비용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그림 8-1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전체), 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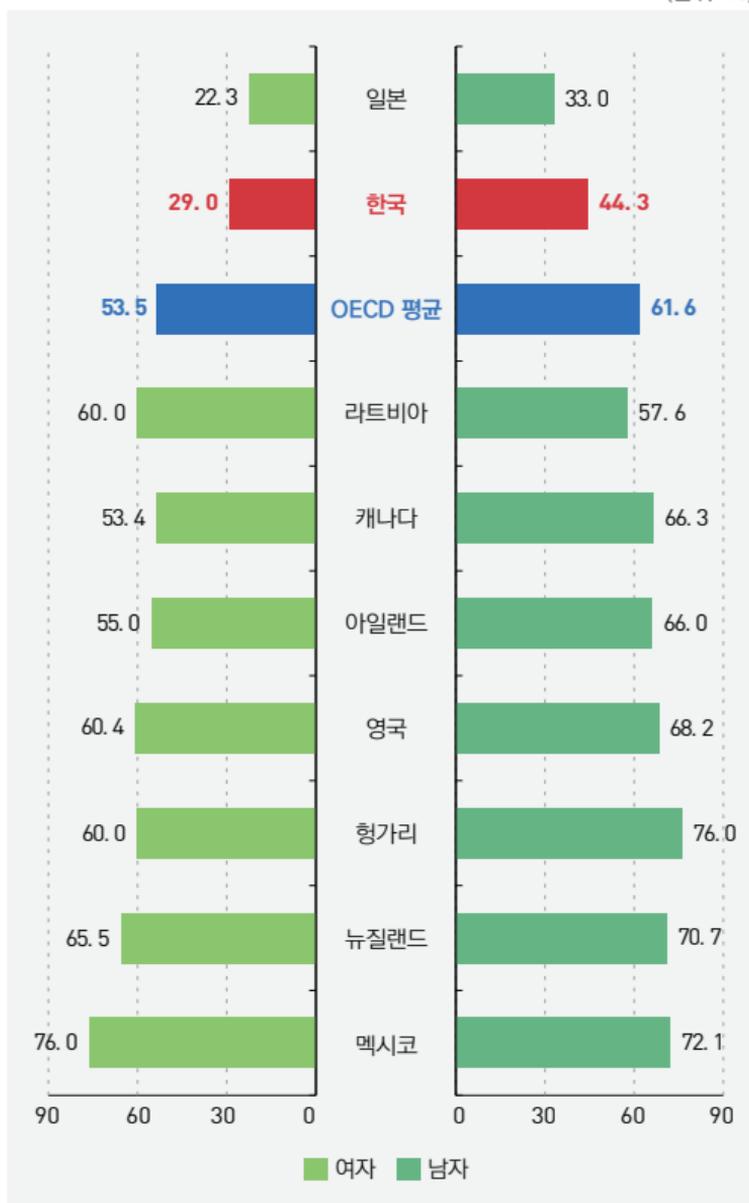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9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영국은 2019년, 라트비아, 멕시코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80>

그림 8-2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성별), 2021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9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영국은 2019년, 라트비아, 멕시코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80>



03

보건의료자원

9. 임상 의사 수
10. 의학교육 졸업자 수
11. 의사 임금소득
12. 임상 간호인력 수
13. 간호대학 졸업자 수
14. 간호사 임금소득
15. 총 병원 병상 수
16. 급성기 병원 병상 수
17.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18.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9 >> 임상 의사 수

- >>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음(OECD 평균 3.7명)
- >> 2016년 2.3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0.3명 증가함 (OECD 평균 0.3명 증가)
- >>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4명임
- >> OECD 회원국 중에서 2016년 대비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아일랜드(0.8명)와 스페인(0.7명), 노르웨이(0.6명)임

표 9 임상 의사 수

(단위: 명/인구 1,000명)

	2016	2021 ²⁾
호주	3.6	4.0
오스트리아	5.1	5.4
벨기에	3.1	3.3
캐나다	2.6	2.8
칠레	-	-
콜롬비아	-	-
코스타리카	-	-
체코	-	4.3
덴마크	4.0	4.4
에스토니아	3.5	3.4
핀란드	3.4	3.6
프랑스	3.1	3.2
독일	4.2	4.5
그리스	-	-
헝가리	3.2	3.3
아이슬란드	3.9	4.4
아일랜드	3.2	4.0
이스라엘	3.1	3.4
이탈리아	4.0	4.1
일본	2.4	2.6
한국	2.3	2.6
라트비아	3.2	3.4
리투아니아	4.5	4.5
룩셈부르크	2.9	-
멕시코	2.3	2.5
네덜란드	3.5	3.9
뉴질랜드	3.1	3.5
노르웨이	4.6	5.2
폴란드	2.4	3.4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3.0	3.3
스페인	3.8	4.5
스웨덴	4.2	4.3
스위스	4.3	4.4
튀르키예	-	-
영국	2.8	3.2
미국	2.6	2.7
평균¹⁾	3.4	3.7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0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핀란드, 일본, 스웨덴은 2020년 수치임

01. 건강상태

02. 건강 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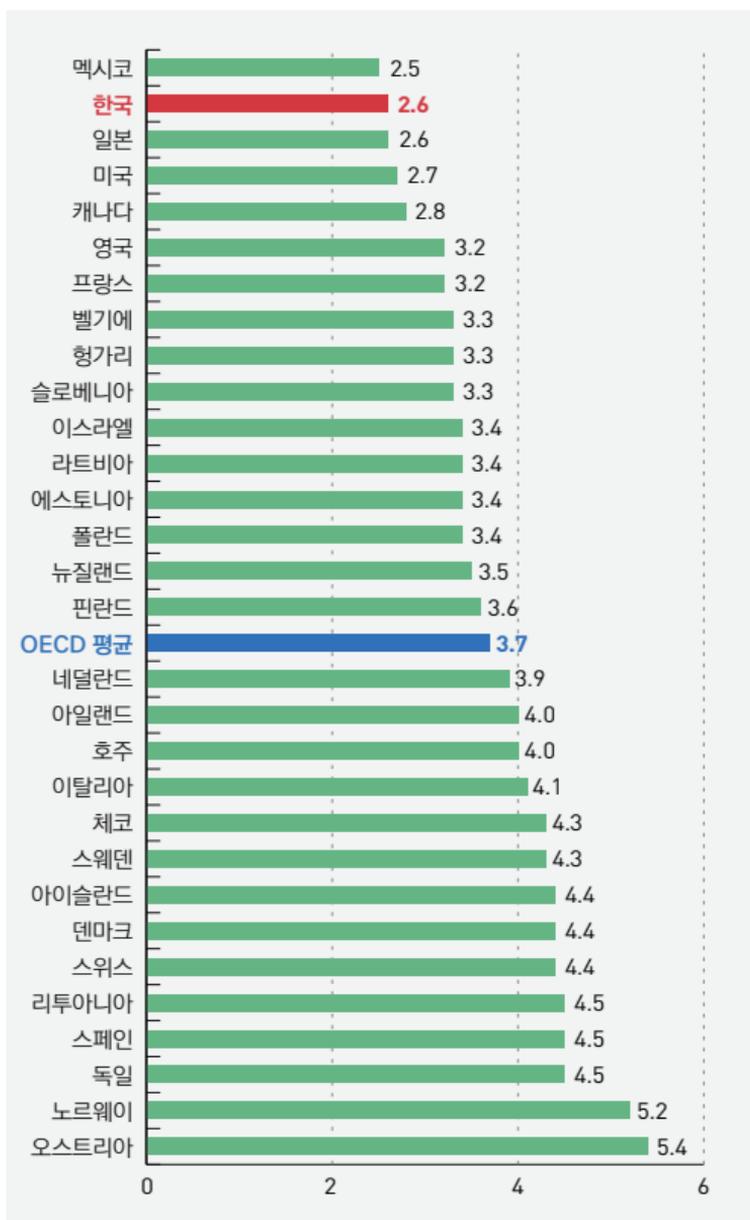
06. 보건의료비용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그림 9 임상 의사 수, 2021년

(단위: 명/인구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0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핀란드, 일본, 스웨덴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090>

10 > 의학계열 졸업자 수

- ▶▶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14.0명)보다 적음
- ▶▶ OECD 회원국 중에서 의학계열 졸업자가 많은 국가는 라트비아(27.3명), 아일랜드(26.0명) 순으로 나타남
 - 아일랜드(26.0명)는 의학계열 졸업자가 많이 배출되기도 하지만 많은 졸업생이 다른 국가로 이민을 하고 있음*
 - * RCSI health workforce research group, 「The Doctor Emigration Project」 (<http://www.healthworkforceireland.com/>)
 - OECD 국가의 통계 산출 매뉴얼(Definitions, Sources and Methods)에 따르면 룩셈부르크는 의과대학이 없어서 의학계열 졸업자가 없고,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은 주로 해외에서 졸업장(자격증)을 취득해 오며, 칠레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2021년 2.5명으로 줄었음
- ▶▶ 의학계열 졸업자는 2016년 인구 10만 명당 7.6명에서 2021년 7.3명으로 0.3명 감소함(OECD 평균 1.4명 증가)

표 10 의학계열 졸업자 수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6	2021 ²⁾
호주	16.0	15.4
오스트리아	13.9	16.3
벨기에	14.2	16.4
캐나다	7.9	7.5
칠레	9.1	2.5
콜롬비아	10.8	11.7
코스타리카	-	-
체코	15.1	17.0
덴마크	21.5	22.0
에스토니아	11.0	11.8
핀란드	12.0	12.7
프랑스	9.5	11.9
독일	11.7	12.4
그리스	10.2	13.7
헝가리	14.1	16.2
아이슬란드	15.8	11.4
아일랜드	24.4	26.0
이스라엘	6.8	6.8
이탈리아	13.3	18.2
일본	6.7	7.2
한국	7.6	7.3
라트비아	16.3	27.3
리투아니아	16.1	20.4
룩셈부르크	-	-
멕시코	12.5	15.0
네덜란드	15.3	15.5
뉴질랜드	9.4	10.6
노르웨이	11.1	10.3
폴란드	10.5	13.4
포르투갈	16.4	16.2
슬로바키아	16.0	19.2
슬로베니아	-	13.0
스페인	13.4	14.2
스웨덴	12.0	14.2
스위스	10.6	12.5
터키	9.7	15.7
영국	12.9	13.1
미국	7.6	8.5
평균¹⁾	12.6	14.0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5개국, 2021년 36개국)의 평균임

2) 아이슬랜드는 2019년,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는 2020년 수치임

그림 10 의학계열 졸업자 수, 2021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아이슬란드는 2019년,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는 2020년 수치임

- » 우리나라 전문의 중 봉직의의 임금소득은 192,749US\$ PPP¹²⁾(2020년)로 OECD 평균(115,818US\$ PPP)보다 많음
- » 2021년 OECD 회원국 중에서 전문의(봉직의)의 임금소득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192,749US\$ PPP, 2020년)이며, 가장 적은 국가는 폴란드(47,055US\$ PPP, 2020년)임
- » 우리나라 전문의(봉직의)의 임금소득은 2016년 163,622US\$ PPP에서 2020년 192,749US\$ PPP로 29,127US\$ PPP만큼 증가함(OECD 평균 12,979US\$ PPP 증가)¹³⁾

10) 의사 임금소득은 봉직의 기준 임금소득임

11)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자료원으로 사용하는 바, 3년 주기로 OECD에 통계를 제공함

12) 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하며, 의사 임금소득은 사적소비(Private consumption)에 대한 구매력평가환율임

13) 우리나라는 2016~2020년 증감을 나타내며, OECD 평균은 2016~2021년 증감을 나타냄

표 11 의사 임금소득¹⁾

(단위: 1인당 US\$ PPP)

	2016 ³⁾	2021 ⁴⁾
	전문의	전문의
호주	-	-
오스트리아	-	-
벨기에	136,005	141,490
캐나다	-	-
칠레	133,600	133,068
콜롬비아	-	-
코스타리카	82,988	73,445
체코	57,029	81,139
덴마크	132,480	151,150
에스토니아	55,482	77,566
핀란드	114,202	131,124
프랑스	95,880	105,603
독일	169,148	188,149
그리스	60,983	64,043
헝가리	49,783	118,680
아이슬란드	130,359	148,137
아일랜드	163,887	165,727
이스라엘	131,833	138,300
이탈리아	89,260	105,746
일본	-	-
한국	163,622	192,749
라트비아	30,423	-
리투아니아	34,894	-
룩셈부르크	264,634	-
멕시코	54,798	52,774
네덜란드	174,829	192,264
뉴질랜드	122,311	135,361
노르웨이	88,486	106,753
폴란드	36,381	47,055
포르투갈	64,401	64,823
슬로바키아	51,143	63,403
슬로베니아	74,354	108,355
스페인	90,327	107,515
스웨덴	98,143	106,826
스위스	-	-
튀르키예	91,827	86,238
영국	144,518	155,419
미국	-	-
평균²⁾	102,839	115,818

주 1) 의사 임금소득은 봉직의 기준 임금소득임

2)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1개국, 2021년 28개국)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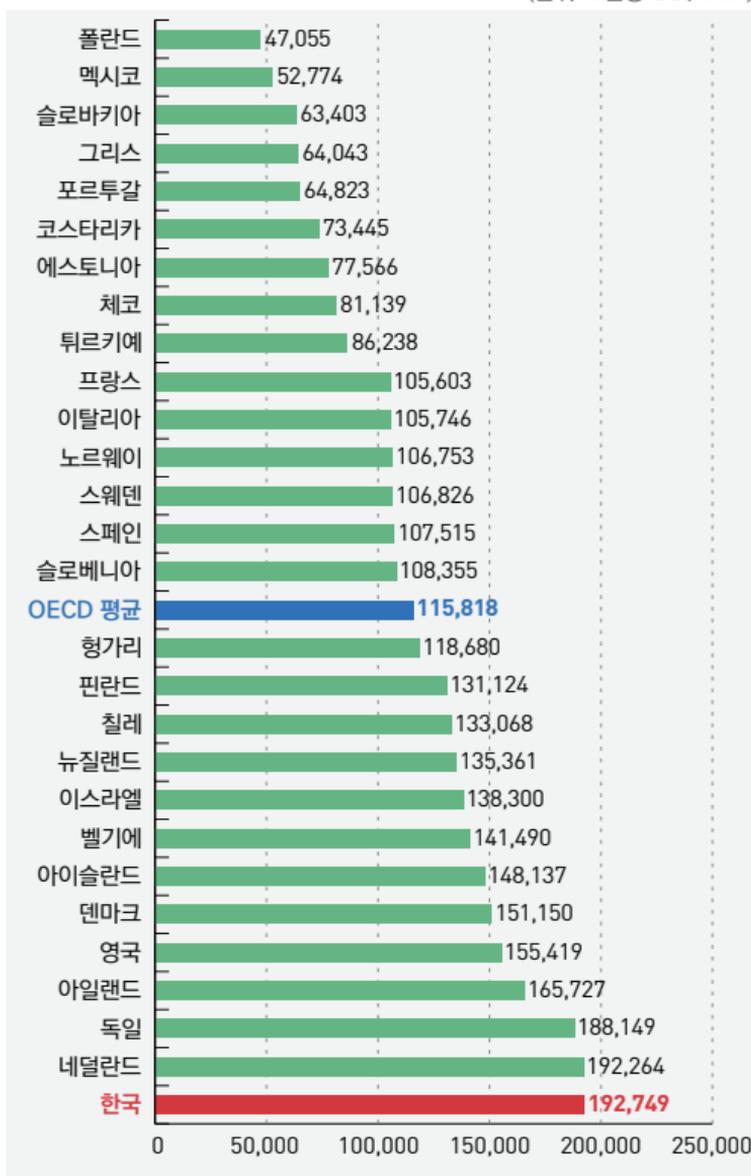
3)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2014년, 그리스, 룩셈부르크는 2015년 수치임

4) 코스타리카, 프랑스, 한국, 폴란드, 영국은 2020년 수치임

01. 건강상태
02. 건강 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06. 보건의료비용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그림 11-1 의사(전문의) 임금소득, 2021년

(단위: 1인당 US\$ PPP)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28개국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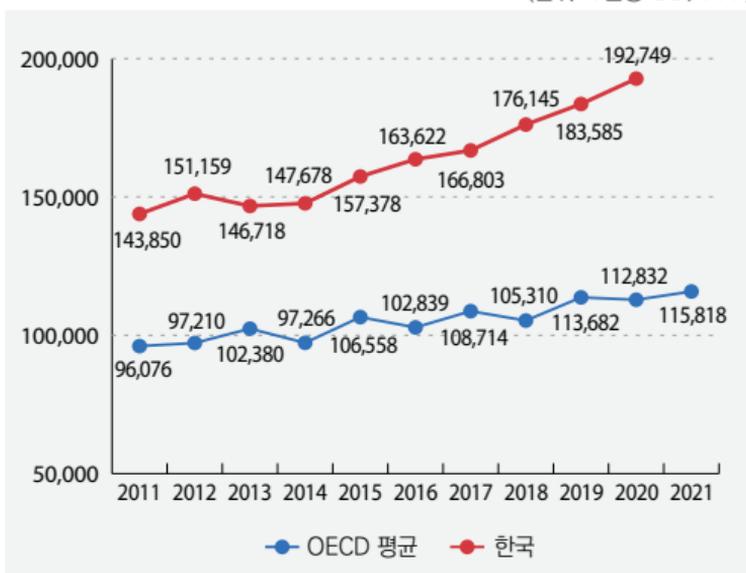
2) 전문의 중 봉직의 기준 임금소득임

3) 코스타리카, 프랑스, 한국, 폴란드, 영국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110>

그림 11-2 연도별 의사(전문의) 임금소득, 2011~2021년

(단위: 1인당 US\$ PPP)



주 1) 전문의 중 봉직의 기준 임금소득 추이임

2) 2011년~2020년 OECD 평균은 당해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들의 평균이며 국가 수는 연도마다 상이함

3) 2021년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28개국의 평균임

4) 우리나라는 3년 주기로 통계가 생산되는 바, 2021년 수치는 2025년에 업데이트될 예정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110>

12 >> 임상 간호인력 수

- >> 임상 간호인력(전문직 간호사 및 준 전문직 간호사)¹⁴⁾은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9.8명)보다 적음
- 우리나라는 간호사(4.6명)와 간호조무사(4.1명)를 임상 간호인력으로 보고함
- >> 2016년 인구 1,000명당 6.8명에서 2021년 8.8명으로 2.0명 증가함(OECD 평균 0.6명 증가)
- >> OECD 회원국 중에서 임상 간호인력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핀란드(18.9명, 2020년)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2.9명)임

14) 우리나라는 임상 간호사를 '전문직 간호사'로, 간호조무사를 '준 전문직 간호사'로 분류함

표 12 임상 간호인력 수

(단위: 명/인구 1,000명)

	2016		2021 ³⁾	
	간호인력 전체 ¹⁾	전문직 간호사	간호인력 전체 ¹⁾	전문직 간호사
호주	11.6	9.6	12.8	10.8
오스트리아	6.8	6.8	10.6	10.6
벨기에	11.0	-	-	-
캐나다	10.0	7.2	10.3	7.2
칠레	-	-	-	-
콜롬비아	-	-	-	-
코스타리카	-	-	-	-
체코	7.9	7.9	9.0	8.3
덴마크	10.0	10.0	10.2	10.2
에스토니아	6.1	6.1	6.5	6.5
핀란드	18.3	13.0	18.9	13.9
프랑스	-	-	8.6	8.6
독일	10.9	10.9	12.0	12.0
그리스	3.3	1.9	3.8	2.2
헝가리	6.4	4.8	5.3	3.7
아이슬란드	14.2	8.2	15.0	9.8
아일랜드	-	-	12.7	12.7
이스라엘	5.0	4.5	5.4	5.1
이탈리아	5.6	5.6	6.2	6.2
일본	11.3	8.8	12.1	9.9
한국	6.8	3.5	8.8	4.6
라트비아	4.6	-	4.2	-
리투아니아	7.7	7.7	7.9	7.9
룩셈부르크	11.8	11.8	-	-
멕시코	2.9	1.7	2.9	1.8
네덜란드	10.7	-	11.4	-
뉴질랜드	10.2	9.7	10.9	10.5
노르웨이	17.5	17.5	18.3	18.3
폴란드	5.2	5.2	5.7	5.7
포르투갈	-	-	-	-
슬로바키아	-	-	-	-
슬로베니아	9.7	3.1	10.5	4.5
스페인	5.5	5.5	6.3	6.3
스웨덴	11.0	11.0	10.7	10.7
스위스	17.0	11.4	18.4	11.8
튀르키예	-	-	-	-
영국	7.9	6.5	8.7	6.9
미국	-	-	-	-
평균²⁾	9.2	7.7	9.8	8.4

주 1) 간호인력 전체는 전문직 간호사와 준 전문직 간호사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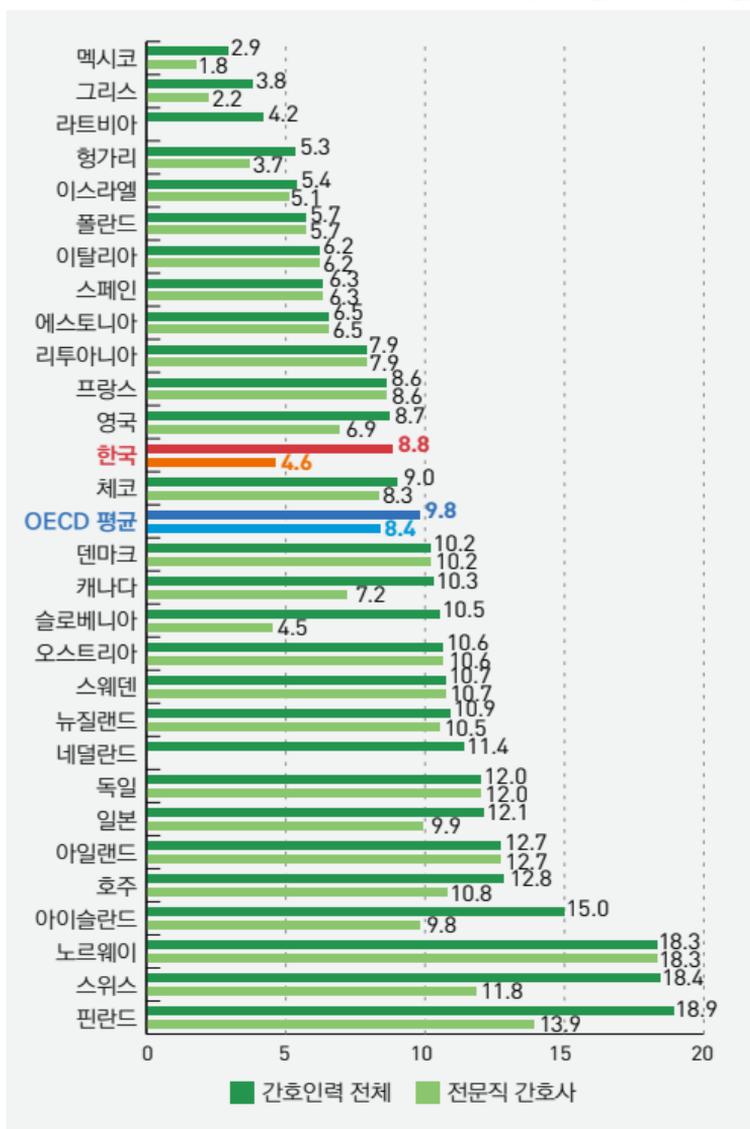
2)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간호인력 전체 29개국, 전문직 간호사 26개국 2021년 간호인력 전체 29개국, 전문직 간호사 27개국)의 평균임

3) 덴마크, 핀란드, 일본, 스웨덴은 2020년 수치임

4) 라트비아, 네덜란드는 전문직 간호사와 준 전문직 간호사를 구분한 통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그림 12 임상 간호인력 수, 2021년

(단위: 명/인구 1,000명)



-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간호인력 전체 29개국, 전문직 간호사 27개국)의 평균임
- 2) 덴마크, 핀란드, 일본, 스웨덴은 2020년 수치임
- 3) 라트비아, 네덜란드는 전문직 간호사와 준 전문직 간호사를 구분한 통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120>

13 >> 간호대학 졸업자 수¹⁵⁾

- >>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43.0명으로 OECD 평균(32.1명)보다 많음
- >> 간호대학 졸업자는 2016년 인구 10만 명당 36.8명에서 2021년 43.0명으로 6.2명 증가함(OECD 평균 1.0명 감소)
- >> OECD 회원국 중에서 간호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77.5명)이며, 가장 적은 국가는 슬로베니아(3.2명)임

15) 간호 인력 중 전문직 간호사(임상 간호사)와 연관된 통계임

표 13 간호대학 졸업자 수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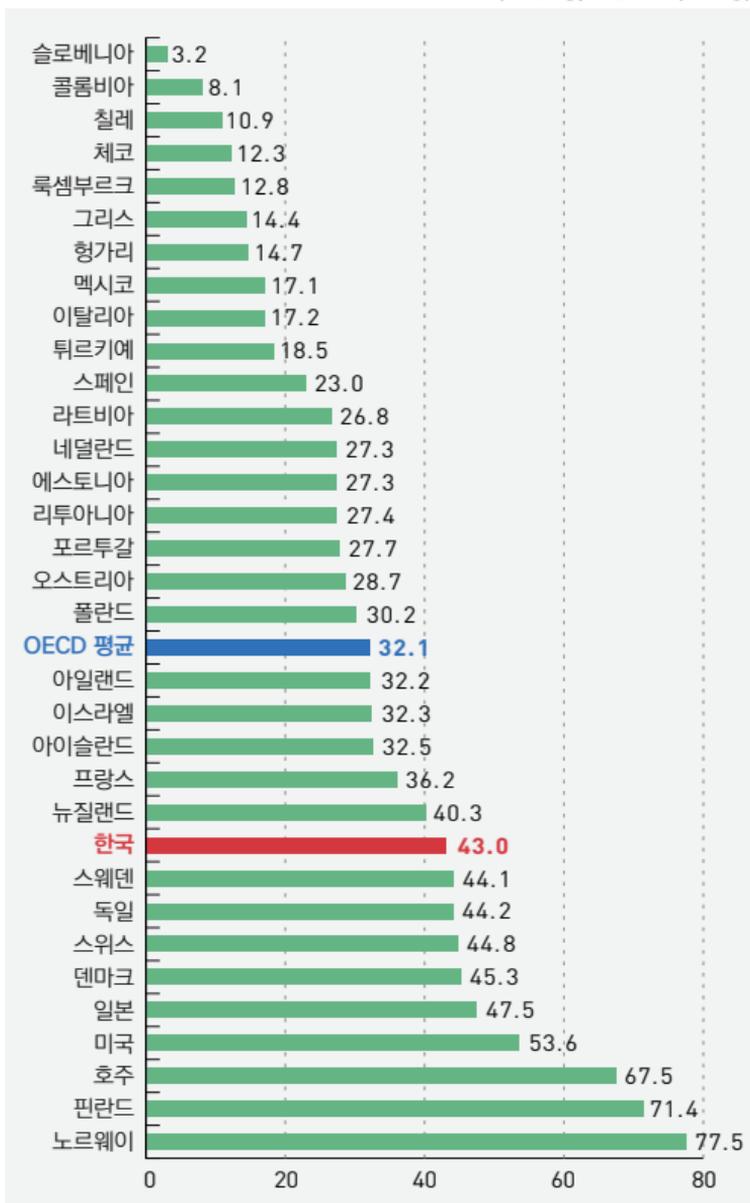
	2016	2021 ²⁾
호주	54.1	67.5
오스트리아	34.5	28.7
벨기에	-	-
캐나다	35.4	-
칠레	25.0	10.9
콜롬비아	8.1	8.1
코스타리카	-	-
체코	15.8	12.3
덴마크	44.1	45.3
에스토니아	32.4	27.3
핀란드	69.2	71.4
프랑스	39.1	36.2
독일	46.4	44.2
그리스	14.4	14.4
헝가리	20.7	14.7
아이슬란드	34.6	32.5
아일랜드	29.3	32.2
이스라엘	20.0	32.3
이탈리아	20.0	17.2
일본	44.4	47.5
한국	36.8	43.0
라트비아	20.0	26.8
리투아니아	18.9	27.4
룩셈부르크	14.6	12.8
멕시코	15.6	17.1
네덜란드	17.6	27.3
뉴질랜드	42.3	40.3
노르웨이	76.1	77.5
폴란드	17.9	30.2
포르투갈	24.5	27.7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	3.2
스페인	22.8	23.0
스웨덴	41.6	44.1
스위스	38.0	44.8
튀르키예	72.0	18.5
영국	-	-
미국	47.9	53.6
평균¹⁾	33.1	32.1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2) 아이슬란드는 2019년, 콜롬비아, 덴마크, 그리스는 2020년 수치임

그림 13 간호대학 졸업자 수, 2021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2) 아이슬란드는 2019년, 콜롬비아, 덴마크, 그리스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130>

- »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임금소득은 52,033US\$ PPP PPP¹⁸⁾(2020년)로 OECD 평균(53,453US\$ PPP)보다 적음
- » 2021년 OECD 회원국 중에서 간호사 1인당 임금소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108,036US\$ PPP)이며,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28,665US\$ PPP)임
- »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임금소득은 2016년 46,109 US\$ PPP에서 2020년 52,033US\$ PPP로 5,924 US\$ PPP 증가함(OECD 평균 9,294US\$ PPP 증가)¹⁹⁾

16) 간호 인력 중 임상(전문직) 간호사(professional nurse)만 해당함. 간호조무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국가 간 비교가 불가함

17)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자료원으로 사용하는 바, 3년 주기로 OECD에 통계를 제공함

18) PPP(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하며, 간호사 임금소득은 사적소비(Private consumption)에 대한 구매력평가환율임

19) 우리나라는 2016~2020년 증감을 나타내며, OECD 평균은 2016~2021년 증감을 나타냄

표 14 간호사 임금소득

(단위: 1인당 US\$ PPP)

	2016 ²⁾	2021 ³⁾
호주	63,215	70,569
오스트리아	-	-
벨기에	76,934	88,537
캐나다	54,254	59,939
칠레	48,732	50,434
콜롬비아	-	-
코스타리카	53,706	48,817
체코	26,436	47,175
덴마크	55,258	65,211
에스토니아	26,125	38,772
핀란드	40,222	44,772
프랑스	40,773	45,781
독일	51,065	-
그리스	30,090	35,328
헝가리	20,468	34,314
아이슬란드	53,462	68,099
아일랜드	52,141	53,612
이스라엘	51,514	57,068
이탈리아	35,477	39,674
일본	40,401	40,922
한국	46,109	52,033
라트비아	15,194	-
리투아니아	15,608	-
룩셈부르크	86,420	108,036
멕시코	29,315	28,665
네덜란드	62,295	71,689
뉴질랜드	49,065	56,792
노르웨이	50,110	59,126
폴란드	28,509	44,702
포르투갈	26,661	29,675
슬로바키아	21,795	31,598
슬로베니아	41,583	66,053
스페인	49,401	54,162
스웨덴	43,328	48,431
스위스	54,225	58,353
튀르키예	36,276	34,779
영국	39,305	45,912
미국	74,250	84,910
평균¹⁾	44,159	53,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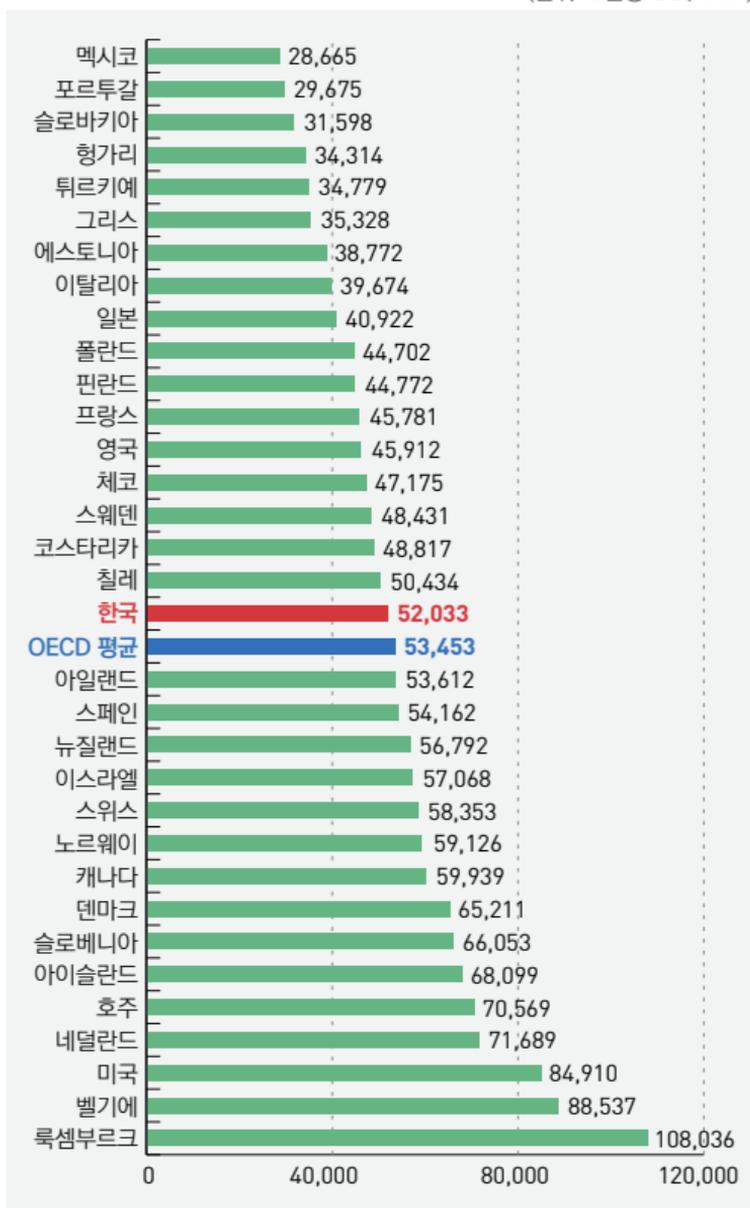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6개국, 2021년 33개국)의 평균임

2)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2014년, 그리스는 2015년 수치임

3) 호주, 코스타리카, 프랑스, 일본, 한국, 폴란드는 2020년 수치임

그림 14-1 간호사 임금소득, 2021년

(단위: 1인당 US\$ 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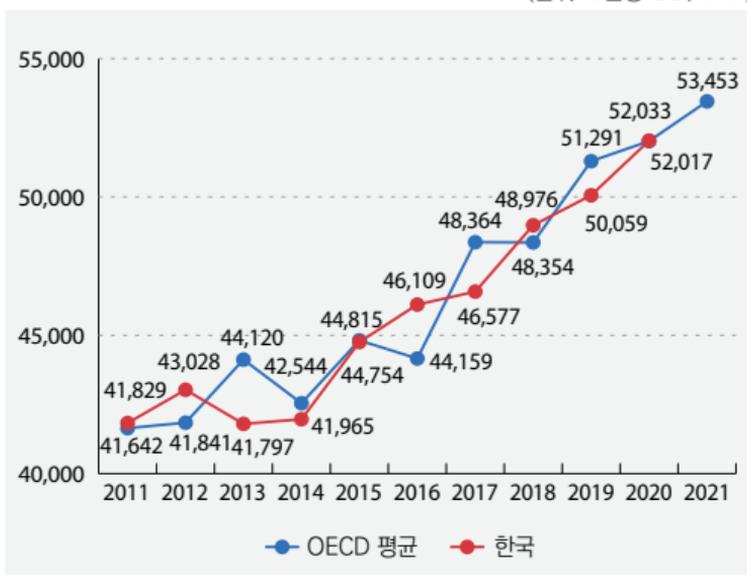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2) 호주, 코스타리카, 프랑스, 일본, 한국, 폴란드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140>

그림 14-2 연도별 간호사 임금소득, 2011~2021년

(단위: 1인당 US\$ PPP)



- 주 1) 2011년~2020년 OECD 평균은 당해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들의 평균이며 국가 수는 연도마다 상이함
 2) 2021년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3) 우리나라는 3년 주기로 통계가 생산되는 바, 2021년 수치는 2025년에 업데이트될 예정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140>

15 총 병원 병상 수

- ▶▶ 총 병원 병상 수(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약 3.0배임
 - 공공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개로 OECD 평균(2.8개)보다 적음
- ▶▶ 총 병원 병상 수는 2016년 12.0개에서 2021년 12.8개로 0.8개 증가함(OECD 평균 0.2개 감소)
 - 공공병원 병상 수는 2016년 1.3개에서 2021년 1.2개로 0.1개 감소함(OECD 평균 2016년과 2021년 2.8일로 동일함)
- ▶▶ OECD 회원국 중에서 총 병원 병상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1.0개)이고,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12.8개)임

표 15 총 병원 병상 수

(단위: 개/인구 1,000명)

	2016		2021 ²⁾	
	총 병원 병상 수	공공병원 병상 수	총 병원 병상 수	공공병원 병상 수
호주	3.8	2.6	-	-
오스트리아	7.4	5.1	6.9	4.7
벨기에	5.8	1.5	5.5	1.5
캐나다	2.6	2.6	2.6	2.6
칠레	2.1	1.6	2.0	1.5
콜롬비아	1.7	0.6	1.7	0.5
코스타리카	1.2	1.2	1.2	1.1
체코	6.7	5.7	6.7	5.6
덴마크	2.6	2.4	2.5	2.3
에스토니아	4.7	4.4	4.4	4.2
핀란드	4.0	3.8	2.8	2.7
프랑스	6.1	3.8	5.7	3.5
독일	8.1	3.3	7.8	3.1
그리스	4.2	2.7	4.3	2.9
헝가리	7.0	-	6.8	-
아이슬란드	3.1	3.1	2.8	2.8
아일랜드	3.0	-	2.9	2.6
이스라엘	3.0	2.1	2.9	2.0
이탈리아	3.2	2.1	3.1	2.0
일본	13.1	3.6	12.6	3.5
한국	12.0	1.3	12.8	1.2
라트비아	5.7	5.2	5.2	4.7
리투아니아	6.7	6.6	6.1	6.0
룩셈부르크	4.8	-	4.1	-
멕시코	1.0	0.7	1.0	0.7
네덜란드	3.4	-	3.0	-
뉴질랜드	2.7	2.3	2.7	2.3
노르웨이	3.7	2.8	3.4	2.6
폴란드	6.6	-	6.3	5.0
포르투갈	3.4	2.3	3.5	2.4
슬로바키아	5.8	-	5.7	-
슬로베니아	4.5	4.4	4.3	4.2
스페인	3.0	2.0	3.0	2.1
스웨덴	2.3	-	2.0	-
스위스	4.7	-	4.4	-
튀르키예	2.8	2.1	3.0	2.3
영국	2.6	2.6	2.4	2.4
미국	2.8	0.6	2.8	0.6
평균¹⁾	4.5	2.8	4.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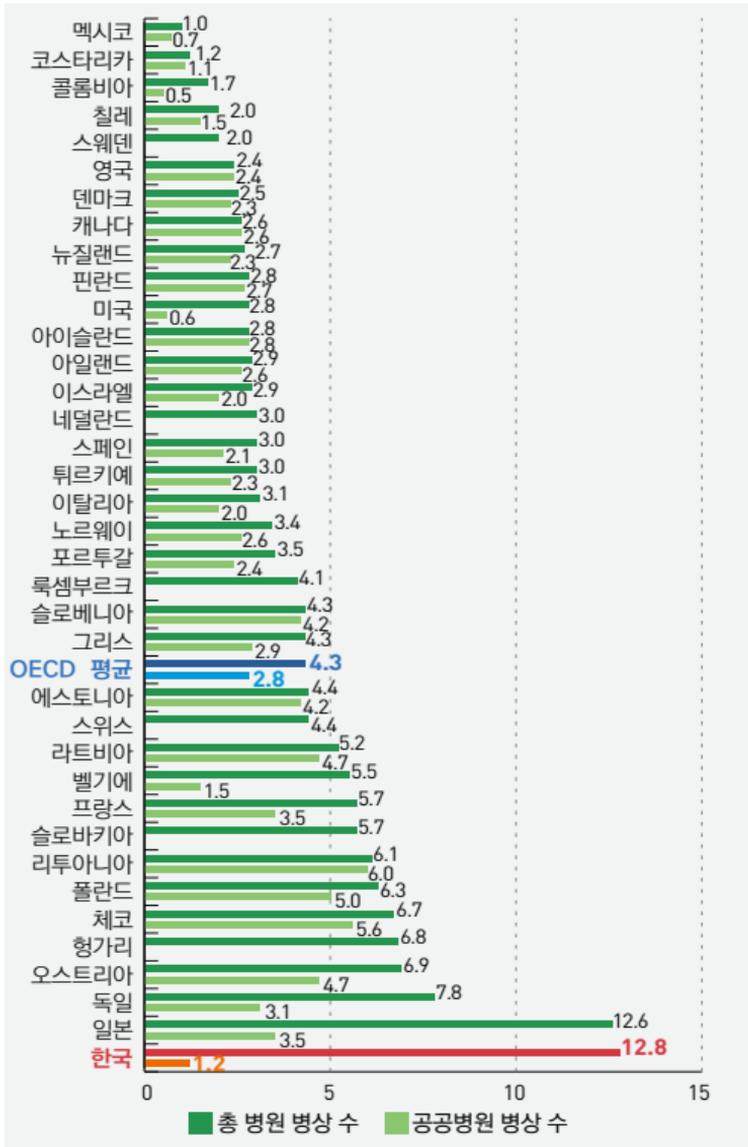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총 병원 38개국, 공공병원 30개국, 2021년 총 병원 37개국, 공공병원 31개국)의 평균임

2) 콜롬비아, 아이슬란드는 2020년 수치임

3)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는 공공병원 병상 수 통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그림 15 총 병원 병상 수, 2021년

(단위: 개/인구 1,000명)



-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총 병원 37개국, 공공병원 31개국)의 평균임
 주 2) 콜롬비아, 아이슬란드는 2020년 수치임
 주 3)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는 공공병원 병상 수 통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150>

16 > 급성기 병원 병상 수

- >> 급성기 병원 병상 수(급성기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약 2.1배임
- >> 2016년 7.1개에서 2021년 7.3개로 0.2개 증가함(OECD 평균 0.3개 감소)
- >> 급성기 병원 병상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콜롬비아(1.5개, 2020년)이고,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7.3개)임
- >> OECD 회원국 중에서 2016년에 비해 급성기 병원 병상 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7.1개 → 7.3개), 그리스(3.6개 → 3.7개)뿐임

표 16 급성기 병원 병상 수

(단위: 개/인구 1,000명)

	2016	2021 ²⁾
호주	-	-
오스트리아	5.6	5.0
벨기에	5.1	4.9
캐나다	2.0	2.0
칠레	-	1.9
콜롬비아	1.6	1.5
코스타리카	-	-
체코	4.2	4.2
덴마크	-	-
에스토니아	-	-
핀란드	2.9	2.4
프랑스	-	-
독일	6.1	5.8
그리스	3.6	3.7
헝가리	4.3	4.3
아이슬란드	2.6	2.3
아일랜드	2.8	2.7
이스라엘	2.1	2.0
이탈리아	2.6	2.6
일본	-	-
한국	7.1	7.3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5.6	5.1
룩셈부르크	3.9	3.2
멕시코	-	-
네덜란드	2.9	2.2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4.9	4.4
포르투갈	3.3	3.3
슬로바키아	4.9	4.8
슬로베니아	-	-
스페인	2.5	2.5
스웨덴	-	-
스위스	3.7	3.5
튀르키예	-	-
영국	-	-
미국	-	2.5
평균¹⁾	3.8	3.5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22개국, 2021년 24개국)의 평균임

2) 콜롬비아, 아이슬란드는 2020년 수치임

그림 16 급성기 병원 병상 수, 2021년

(단위: 개/인구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24개국의 평균임

2) 콜롬비아, 아이슬란드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160>

- » CT(Computeriz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 스캐너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42.2대로 OECD 평균(29.8대)보다 많음
- » CT 스캐너는 2016년 인구 100만 명당 37.8대에서 2021년 42.2대로 4.4대 증가함(OECD 평균 4.4대 증가)
- » CT 스캐너 보유 현황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OECD 회원국 중에서 CT 스캐너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인구 100만 명당 115.7대(2020년)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호주(69.6대), 아이슬란드(46.4대, 2020년), 그리스(45.2대), 뉴질랜드(45.0대), 덴마크(43.5대), 미국(42.6대)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여덟 번째로 CT 스캐너를 많이 보유함
 - 콜롬비아(5.9대, 2020년), 멕시코(7.5대), 이스라엘(9.2대)은 인구 100만 명당 10대 미만에 그침

표 17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단위: 대/인구 1,000,000명)

	2016 ²⁾	2021 ³⁾
호주	63.0	69.6
오스트리아	29.1	28.5
벨기에	23.9	24.5
캐나다	15.1	14.6
칠레	14.8	-
콜롬비아	7.2	5.9
코스타리카	-	-
체코	15.5	16.8
덴마크	39.1	43.5
에스토니아	17.5	21.0
핀란드	24.2	17.0
프랑스	17.0	19.5
독일	35.2	36.5
그리스	35.9	45.2
헝가리	8.9	10.3
아이슬란드	38.8	46.4
아일랜드	17.2	20.3
이스라엘	9.5	9.2
이탈리아	34.3	38.7
일본	107.2	115.7
한국	37.8	42.2
라트비아	36.2	37.7
리투아니아	23.0	29.3
룩셈부르크	17.2	21.9
멕시코	5.9	7.5
네덜란드	13.0	15.9
뉴질랜드	17.8	45.0
노르웨이	15.5	30.0
폴란드	17.3	22.0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17.3	19.8
슬로베니아	14.0	19.0
스페인	18.3	21.4
스웨덴	22.1	23.0
스위스	38.9	39.1
튀르키예	14.5	15.1
영국	9.5	-
미국	41.9	42.6
평균¹⁾	25.4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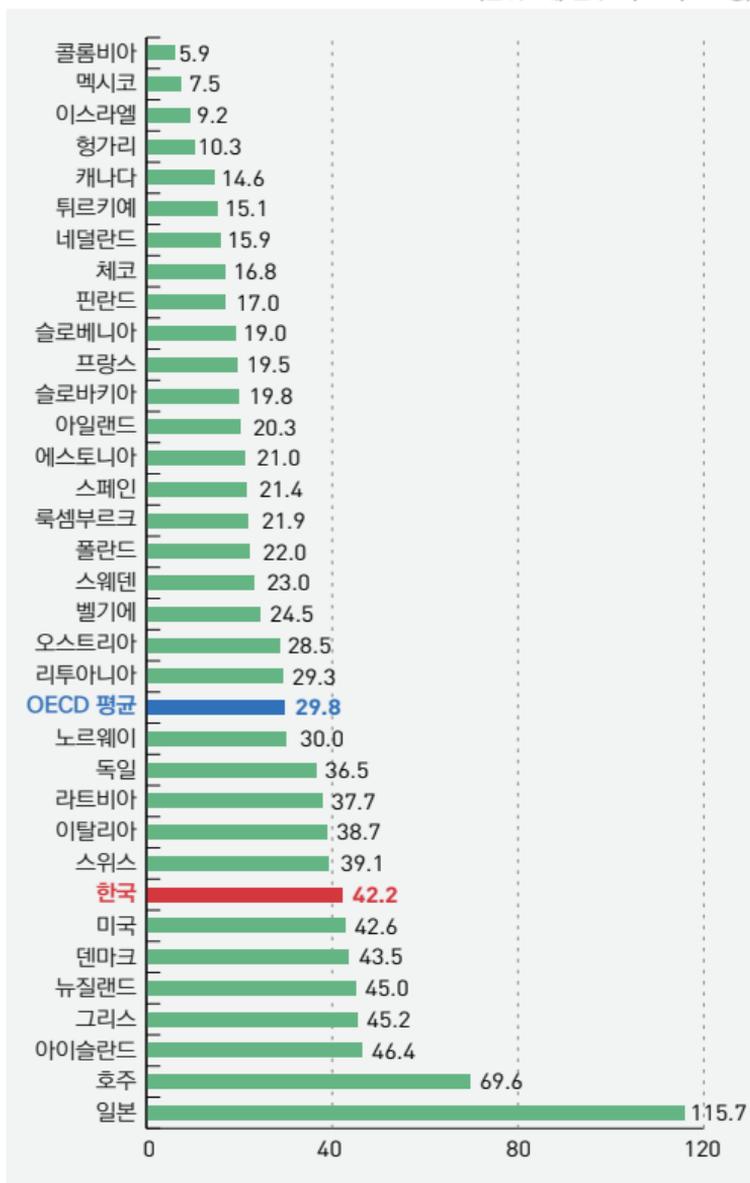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회원국(2016년 36개국, 2021년 34개국)의 평균임

2) 칠레, 일본, 영국은 2014년, 캐나다는 2015년 수치임

3) 캐나다는 2019년,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일본은 2020년 수치임

그림 17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2021년

(단위: 대/인구 1,0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는 2019년,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일본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170>

18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 »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장비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5.5대로 OECD 평균(19.6대)보다 많음
- » MRI 장비는 2016년 인구 100만 명당 27.8대에서 2021년 35.5대로 7.7대 증가함(OECD 평균 4.0대 증가)
- » MRI 장비 보유 현황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일본은 OECD 회원국 중에서 MRI 장비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인구 100만 명당 57.4대(2020년)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미국(38.0대)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MRI 장비를 많이 보유함
 - 멕시코(2.9대), 이스라엘(5.0대), 헝가리(5.2대), 덴마크(9.2대)는 인구 100만 명당 10대 미만에 그침

표 18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단위: 대/인구 1,000,000명)

	2016 ²⁾	2021 ³⁾
호주	14.3	15.0
오스트리아	22.4	26.6
벨기에	11.7	11.4
캐나다	9.5	10.1
칠레	9.4	-
콜롬비아	0.2	-
코스타리카	-	-
체코	8.5	11.8
덴마크	-	9.2
에스토니아	13.7	16.5
핀란드	25.5	31.2
프랑스	13.6	17.0
독일	34.5	35.3
그리스	26.9	33.8
헝가리	4.0	5.2
아이슬란드	20.9	19.1
아일랜드	14.7	15.5
이스라엘	5.3	5.0
이탈리아	28.4	33.3
일본	51.7	57.4
한국	27.8	35.5
라트비아	13.8	17.5
리투아니아	12.2	15.0
룩셈부르크	12.0	17.2
멕시코	2.5	2.9
네덜란드	12.8	14.9
뉴질랜드	13.8	16.6
노르웨이	4.4	31.1
폴란드	7.9	11.4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9.0	10.8
슬로베니아	11.1	13.3
스페인	16.1	20.4
스웨덴	15.7	17.2
스위스	-	-
튀르키예	10.6	11.4
영국	7.2	-
미국	36.7	38.0
평균¹⁾	15.6	19.6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4개국, 2021년 32개국)의 평균임

2) 칠레, 일본, 영국은 2014년, 캐나다는 2015년 수치임

3) 캐나다는 2019년, 아이슬란드, 일본은 2020년 수치임

그림 18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2021년

(단위: 대/인구 1,0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2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는 2019년, 아이슬란드, 일본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180>



04

보건의료이용

19.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20.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 진료 횟수
21.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22.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 일수
23. 제왕절개 건수
24.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건수
25.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수
2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19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음(OECD 평균 5.9회)
-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2016년 17.1회에서 2021년 15.7회로 1.4회 감소함(OECD 평균 0.9회 감소)
-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0회를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11.1회, 2020년), 슬로바키아(11.0회)가 있음
 - 멕시코(1.5회), 코스타리카(2.1회), 스웨덴(2.3회), 콜롬비아(2.6회, 2019년), 칠레(2.6회), 그리스(2.7회)는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회 미만임

표 19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단위: 회)

	2016 ²⁾	2021 ³⁾
호주	7.0	6.1
오스트리아	6.6	6.5
벨기에	6.9	6.7
캐나다	6.6	4.7
칠레	3.6	2.6
콜롬비아	1.3	2.6
코스타리카	2.2	2.1
체코	7.7	7.8
덴마크	4.1	3.8
에스토니아	6.3	4.1
핀란드	4.3	4.1
프랑스	6.2	5.5
독일	10.0	9.6
그리스	-	2.7
헝가리	11.1	9.5
아이슬란드	5.9	-
아일랜드	5.7	5.8
이스라엘	8.5	7.2
이탈리아	9.9	5.3
일본	12.6	11.1
한국	17.1	15.7
라트비아	5.9	6.0
리투아니아	9.2	6.5
룩셈부르크	6.0	4.8
멕시코	2.6	1.5
네덜란드	8.8	8.6
뉴질랜드	-	-
노르웨이	4.4	3.9
폴란드	7.5	7.6
포르투갈	3.9	3.5
슬로바키아	11.4	11.0
슬로베니아	6.7	5.9
스페인	7.6	4.8
스웨덴	2.8	2.3
스위스	-	-
튀르키예	8.6	8.0
영국	-	-
미국	3.6	3.4
평균¹⁾	6.8	5.9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아이슬란드, 스페인은 2014년 수치임

3) 콜롬비아, 아일랜드는 2019년, 캐나다, 일본, 미국은 2020년 수치임

01. 건강상태

02. 건강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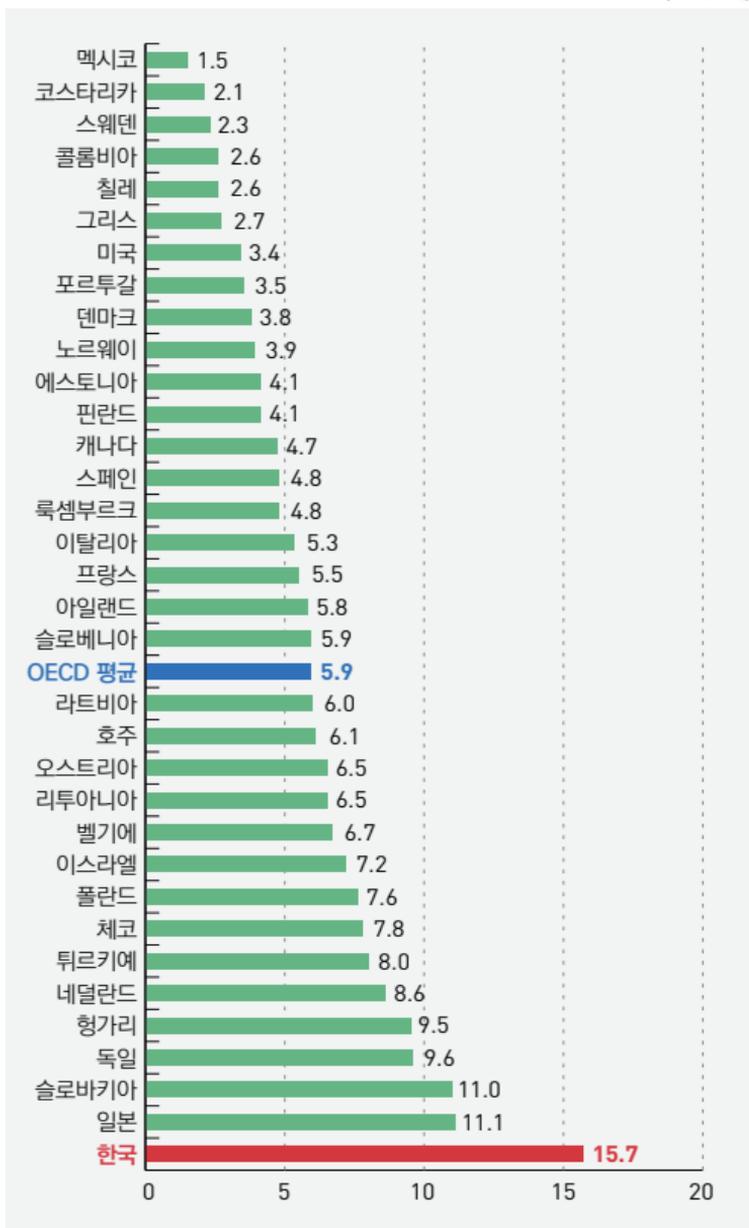
06. 보건의료비용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그림 19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2021년

(단위: 회)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콜롬비아, 아일랜드는 2019년, 캐나다, 일본, 미국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190>

20 >>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 진료 횟수

- >>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6회로 OECD 평균(1.1회)보다 많음
- >>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2016년 1.4회에서 2021년 1.6회로 0.2회 증가함(OECD 평균 0.1회 감소)
- >> OECD 회원국에서 치과의사 외래 진료는 일반 의사 외래 진료만큼 빈번하지 않지만, 네덜란드(3.1회)와 일본(3.0회, 2020년)은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많은 편임

표 20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 진료 횟수

(단위: 회)

	2016 ²⁾	2021 ³⁾
호주	1.0	1.1
오스트리아	1.2	1.1
벨기에	-	1.2
캐나다	1.4	1.0
칠레	0.5	0.3
콜롬비아	0.1	0.3
코스타리카	0.5	0.2
체코	1.6	1.7
덴마크	0.8	0.8
에스토니아	1.4	1.4
핀란드	1.1	0.9
프랑스	1.4	1.6
독일	1.5	1.4
그리스	-	-
헝가리	0.7	0.4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
이스라엘	-	-
이탈리아	1.4	1.6
일본	3.2	3.0
한국	1.4	1.6
라트비아	-	0.9
리투아니아	1.5	1.5
룩셈부르크	1.4	1.4
멕시코	0.1	0.0
네덜란드	2.6	3.1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0.9	0.8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1.2	1.2
슬로베니아	-	-
스페인	-	1.0
스웨덴	1.3	1.1
스위스	-	-
튀르키예	0.6	0.4
영국	0.7	0.5
미국	0.9	1.0
평균¹⁾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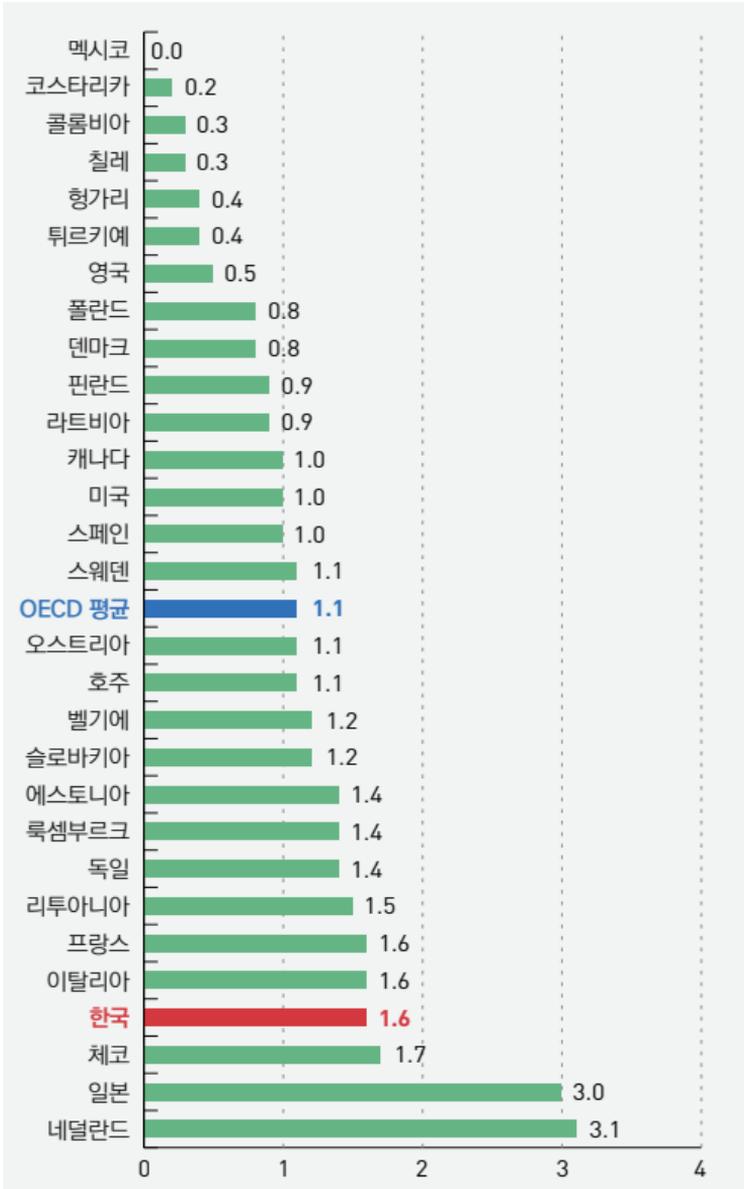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26개국, 2021년 29개국)의 평균임

2) 호주는 2014년 수치임

3) 콜롬비아, 미국은 2019년, 일본, 스페인은 2020년 수치임

그림 20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 진료 횟수, 2021년

(단위: 회)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29개국의 평균임

2) 콜롬비아, 미국은 2019년, 일본, 스페인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200>

21 >>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 >>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길(OECD 평균 8.1일)
- >>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는 2016년 17.4일에서 2021년 18.5일로 1.1일 증가함(OECD 평균 2016년과 2021년 8.1일로 동일함)
-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27.5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튀르키예(4.4일)임

표 21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단위: 일)

	2016 ²⁾	2021 ³⁾
호주	5.4	5.3
오스트리아	8.2	8.5
벨기에	7.4	6.7
캐나다	-	-
칠레	6.1	6.6
콜롬비아	5.7	-
코스타리카	7.1	6.8
체코	8.9	9.6
덴마크	5.4	6.1
에스토니아	7.7	7.6
핀란드	8.8	7.5
프랑스	9.0	9.1
독일	8.9	8.8
그리스	6.9	-
헝가리	9.4	9.7
아이슬란드	6.2	5.7
아일랜드	6.0	6.4
이스라엘	6.2	6.0
이탈리아	8.1	8.5
일본	28.5	27.5
한국	17.4	18.5
라트비아	8.3	8.1
리투아니아	7.8	7.6
룩셈부르크	9.1	9.2
멕시코	4.0	5.0
네덜란드	-	-
뉴질랜드	7.8	6.2
노르웨이	6.9	6.3
폴란드	7.1	7.3
포르투갈	9.0	9.3
슬로바키아	7.4	7.5
슬로베니아	6.8	6.5
스페인	7.3	7.5
스웨덴	5.8	5.5
스위스	8.3	8.1
튀르키예	4.0	4.4
영국	7.1	6.9
미국	6.1	6.5
평균¹⁾	8.1	8.1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6개국, 2021년 34개국)의 평균임

2) 그리스는 2015년 수치임

3) 호주, 뉴질랜드는 2020년 수치임

01. 건강상태

02. 건강 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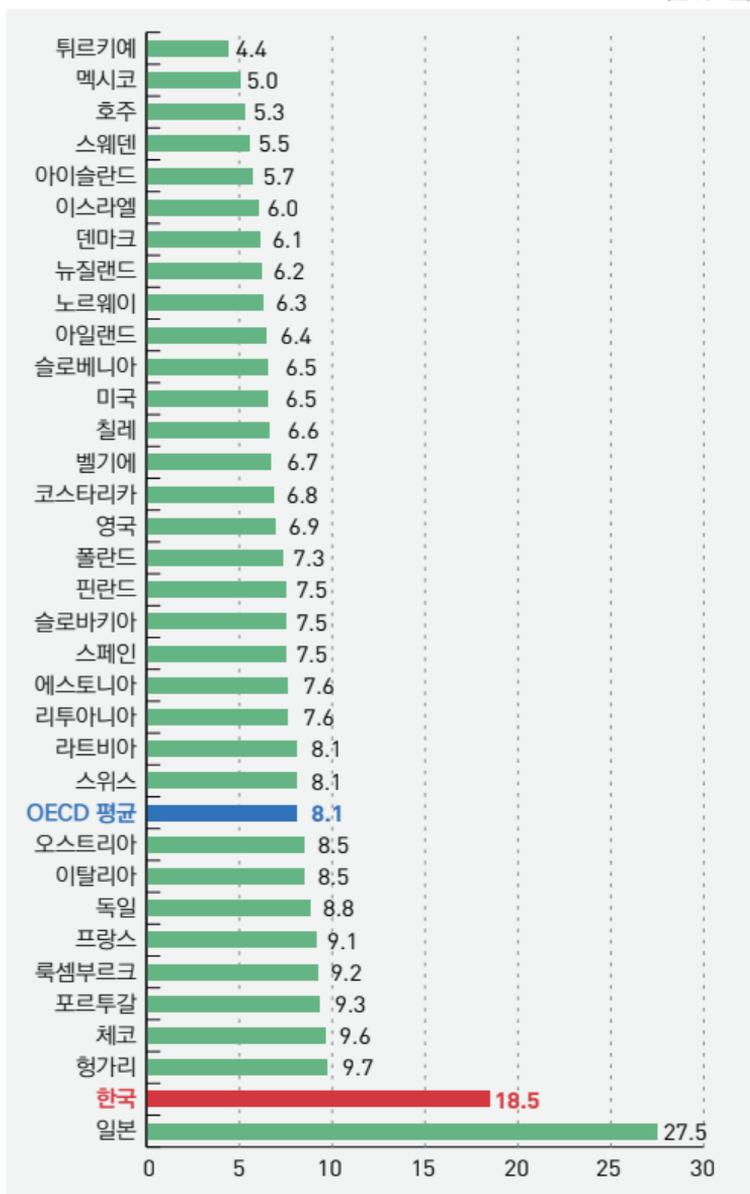
06. 보건의료비용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그림 21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2021년

(단위: 일)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호주, 뉴질랜드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210>

22 >>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

- >> 입원환자가 급성기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머문 평균 기간(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은 7.6일로 OECD 평균(6.6일)보다 1.0일 길
- >>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는 2016년과 2021년 7.6일로 동일함(OECD 평균은 2016년 6.5일에서 2021년 6.6일로 0.1일 증가함)
-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16.0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튀르키예(4.4일)와 뉴질랜드(4.4일, 2020년)임

표 22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

(단위: 일)

	2016 ²⁾	2021 ³⁾
호주	4.8	4.6
오스트리아	6.4	6.3
벨기에	6.7	6.3
캐나다	7.5	7.8
칠레	-	-
콜롬비아	-	-
코스타리카	7.1	6.8
체코	5.9	5.9
덴마크	-	-
에스토니아	6.1	6.3
핀란드	6.5	6.4
프랑스	5.6	5.6
독일	7.5	7.4
그리스	5.3	-
헝가리	5.5	5.9
아이슬란드	5.9	5.4
아일랜드	5.8	6.4
이스라엘	4.7	4.6
이탈리아	6.9	7.4
일본	16.3	16.0
한국	7.6	7.6
라트비아	5.9	6.0
리투아니아	6.6	6.5
룩셈부르크	7.4	7.3
멕시코	-	-
네덜란드	5.1	5.2
뉴질랜드	5.3	4.4
노르웨이	6.1	5.8
폴란드	6.7	6.9
포르투갈	8.9	9.2
슬로바키아	6.8	6.9
슬로베니아	6.5	6.4
스페인	6.0	6.3
스웨덴	5.6	5.4
스위스	7.1	6.8
튀르키예	4.0	4.4
영국	6.0	7.1
미국	5.5	5.9
평균¹⁾	6.5	6.6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4개국, 2021년 33개국)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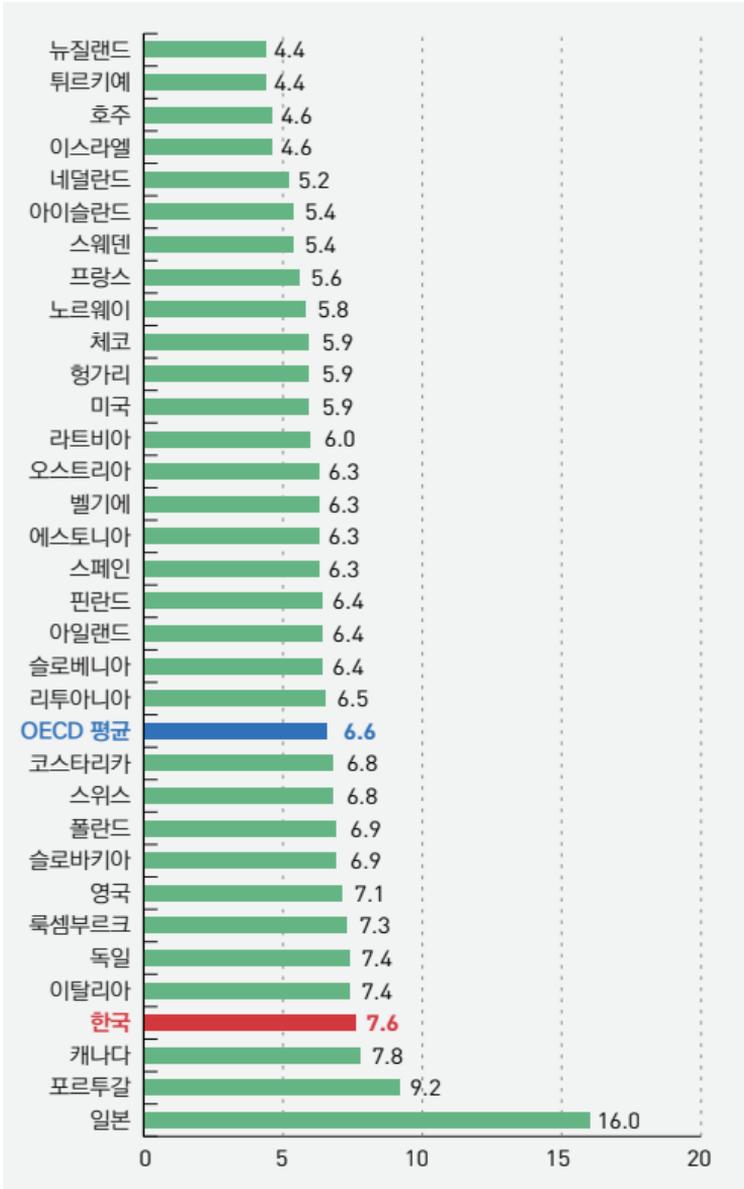
2) 그리스는 2015년 수치임

3) 호주, 뉴질랜드는 2020년 수치임

그림 22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 2021년

(단위: 일)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2) 호주, 뉴질랜드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220>

01. 건강상태
 02. 건강 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06. 보건의료비용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23 >> 제왕절개 건수²⁰⁾

- >>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537.7건(2020년)으로 OECD 평균(280.3건)의 약 1.9배임
- >> 제왕절개 건수는 2016년 419.0건에서 2020년 537.7건으로 118.7건 증가함(OECD 평균 10.3건 증가)²¹⁾
- >> OECD 회원국 중에서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튀르키예(584.2건)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이스라엘(143.4건)임
 -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튀르키예(58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20) 우리나라는 2021년 제왕절개 건수를 148,050건으로 OECD에 보고하였으나, 출생아 수가 2020년까지만 집계되어 있어서,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 지표의 2021년 수치는 산출이 불가함

21) 우리나라는 2016~2020년 증감을 나타내며, OECD 평균은 2016~2021년 증감을 나타냄

표 23 제왕절개 건수

(단위: 건/출생아 1,000명)

	2016	2021 ²⁾
호주	-	-
오스트리아	291.8	304.1
벨기에	210.3	218.7
캐나다	269.9	297.6
칠레	-	-
콜롬비아	-	-
코스타리카	223.0	236.2
체코	237.5	248.0
덴마크	205.1	196.4
에스토니아	200.1	200.0
핀란드	165.2	207.3
프랑스	197.8	204.5
독일	299.0	306.9
그리스	-	-
헝가리	370.8	346.0
아이슬란드	168.8	143.7
아일랜드	315.9	355.4
이스라엘	160.7	143.4
이탈리아	349.4	323.3
일본	-	-
한국	419.0	537.7
라트비아	212.3	218.8
리투아니아	193.7	210.8
룩셈부르크	310.6	280.7
멕시코	550.7	526.3
네덜란드	159.6	151.6
뉴질랜드	262.9	295.8
노르웨이	161.9	155.7
폴란드	385.3	422.0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297.5	295.8
슬로베니아	206.8	214.3
스페인	245.6	242.2
스웨덴	176.9	181.6
스위스	327.8	325.9
튀르키예	529.5	584.2
영국	263.5	313.4
미국	-	-
평균¹⁾	270.0	280.3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1개국의 평균임

2) 네덜란드는 2019년, 캐나다, 한국, 멕시코, 영국은 2020년 수치임

01. 건강상태

02. 건강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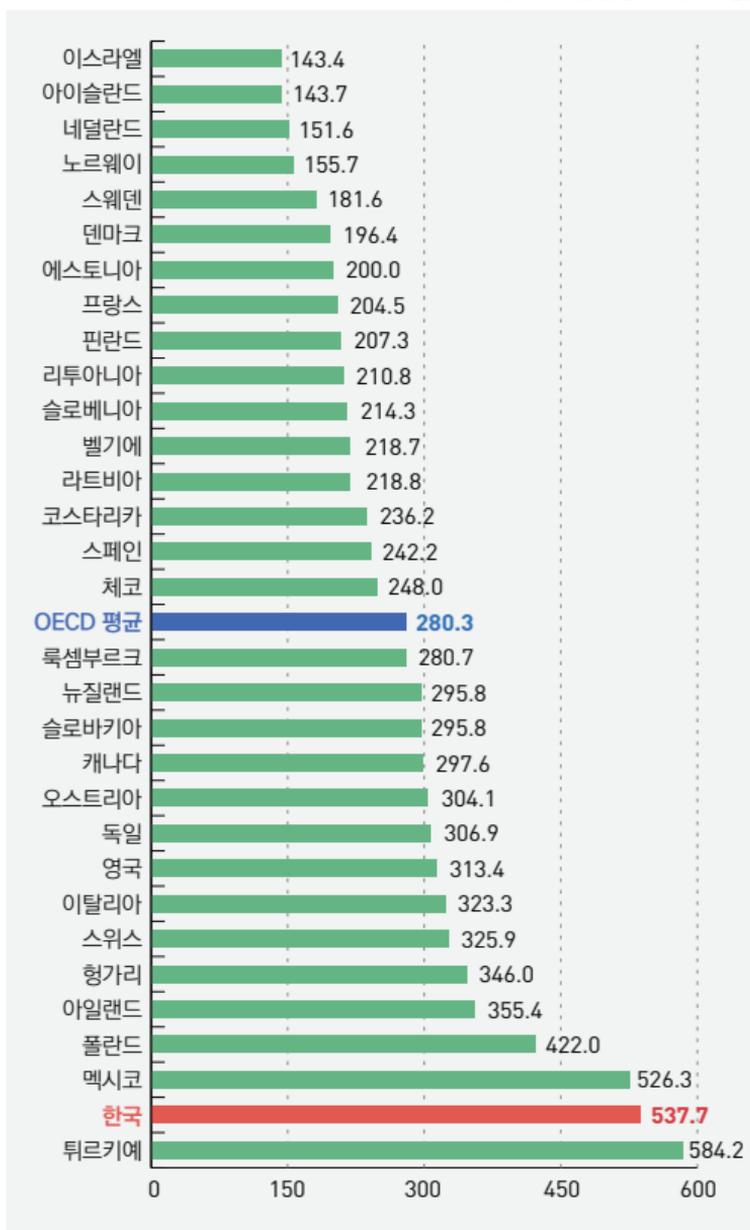
06. 보건의료비용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그림 23 제왕절개 건수, 2021년

(단위: 건/출생아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1개국의 평균임

2) 네덜란드는 2019년, 캐나다, 한국, 멕시코, 영국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230>

24 >>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 건수

- >> 인구 천 명당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 건수는 281.5건으로 OECD 평균(161.0건)보다 많음
- >> 인구 천 명당 CT 검사 건수는 2016년 191.3건에서 2021년 281.5건으로 90.2건 증가함(OECD 평균 22.3건 증가)
- >> OECD 회원국에서 CT 검사 건수는 한국(281.5건)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254.6건), 룩셈부르크(243.6건) 순으로 많았음
- >> CT 검사 건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핀란드(44.7건, 2020년)임

표 24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 건수

(단위: 건/인구 1,000명)

	2016 ²⁾	2021 ³⁾
호주	119.3	164.0
오스트리아	172.6	199.1
벨기에	199.7	223.3
캐나다	147.8	144.1
칠레	100.0	118.4
콜롬비아	-	-
코스타리카	26.7	51.1
체코	107.4	119.9
덴마크	160.7	206.2
에스토니아	138.0	143.8
핀란드	41.7	44.7
프랑스	194.0	217.8
독일	148.5	159.8
그리스	150.3	150.4
헝가리	-	204.4
아이슬란드	204.8	215.4
아일랜드	-	-
이스라엘	136.3	156.8
이탈리아	85.8	101.9
일본	230.8	-
한국	191.3	281.5
라트비아	178.4	217.8
리투아니아	103.3	148.7
룩셈부르크	211.8	243.6
멕시코	-	-
네덜란드	88.7	133.5
뉴질랜드	-	-
노르웨이	77.3	90.5
폴란드	76.3	116.5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162.3	167.1
슬로베니아	65.1	99.9
스페인	109.7	133.8
스웨덴	-	-
스위스	-	-
튀르키예	-	-
영국	-	-
미국	253.8	254.6
평균¹⁾	138.7	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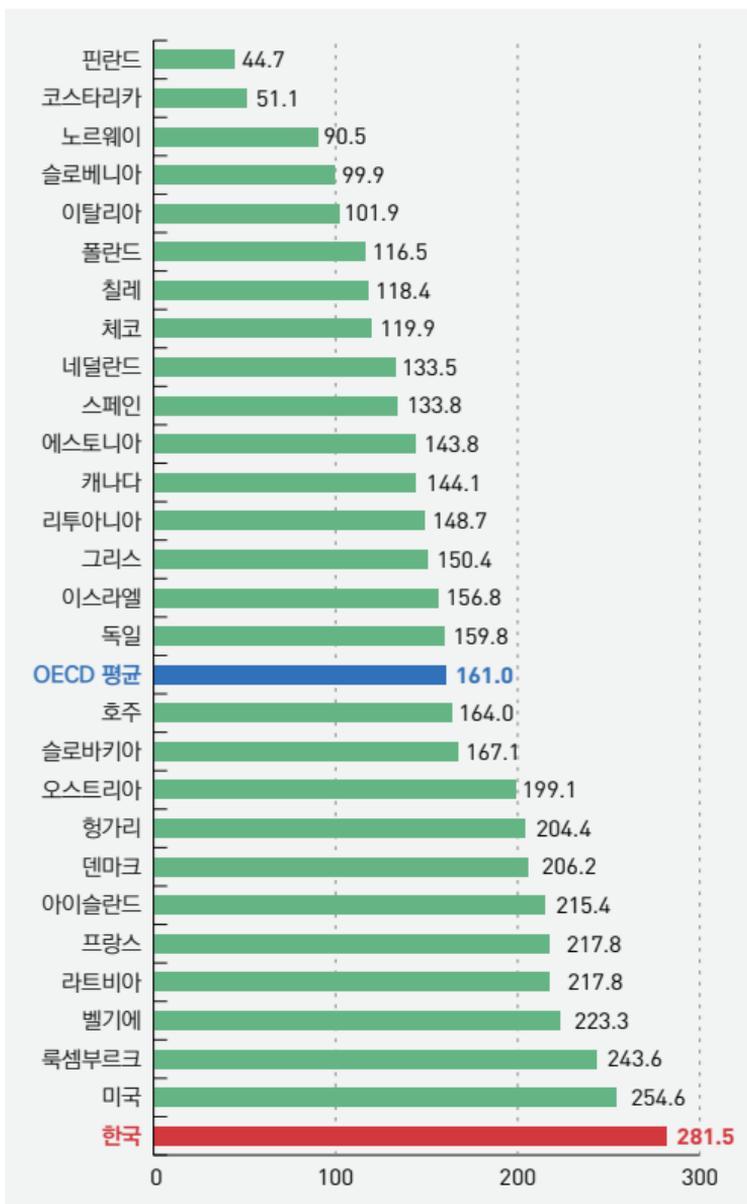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28개국의 평균임

2) 일본은 2014년, 캐나다는 2015년 수치임

3) 캐나다는 2019년,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2020년 수치임

그림 24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 건수, 2021년

(단위: 건/인구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28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는 2019년,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240>

25 >>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수

- >> 인구 천 명당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수는 80.1건으로 OECD 평균(83.7건) 보다 적음
- >> 인구 천 명당 MRI 검사 건수는 2016년 33.8건에서 2021년 80.1건으로 46.3건 증가함(OECD 평균 13.5건 증가)
- >> OECD 회원국에서 MRI 검사 건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159.6건)에 이어, 독일(157.7건), 프랑스(136.4건), 노르웨이(132.8건) 순으로 많았음
 - 코스타리카가 2.2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칠레(27.2건), 핀란드(41.3건, 2020년), 이스라엘(47.0건), 헝가리(49.8건)가 50건 미만으로 적었음

표 25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수

(단위: 건/인구 1,000명)

	2016 ²⁾	2021 ³⁾
호주	42.4	56.9
오스트리아	120.2	159.6
벨기에	89.4	104.2
캐나다	54.7	62.0
칠레	24.7	27.2
콜롬비아	-	-
코스타리카	-	2.2
체코	49.8	66.1
덴마크	82.2	98.1
에스토니아	49.9	55.8
핀란드	41.5	41.3
프랑스	110.7	136.4
독일	143.4	157.7
그리스	64.0	106.6
헝가리	-	49.8
아이슬란드	92.9	103.9
아일랜드	-	-
이스라엘	36.4	47.0
이탈리아	67.5	77.2
일본	112.3	-
한국	33.8	80.1
라트비아	47.7	82.5
리투아니아	45.1	79.5
룩셈부르크	83.8	116.0
멕시코	-	-
네덜란드	48.8	58.0
뉴질랜드	-	-
노르웨이	106.3	132.8
폴란드	29.8	52.9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61.4	76.1
슬로베니아	51.9	97.1
스페인	83.2	109.5
스웨덴	-	-
스위스	-	-
튀르키예	-	-
영국	-	-
미국	120.7	107.6
평균¹⁾	70.2	83.7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27개국, 2021년 28개국)의 평균임

2) 일본은 2014년, 캐나다는 2015년 수치임

3) 캐나다는 2019년,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2020년 수치임

01. 건강상태

02. 건강 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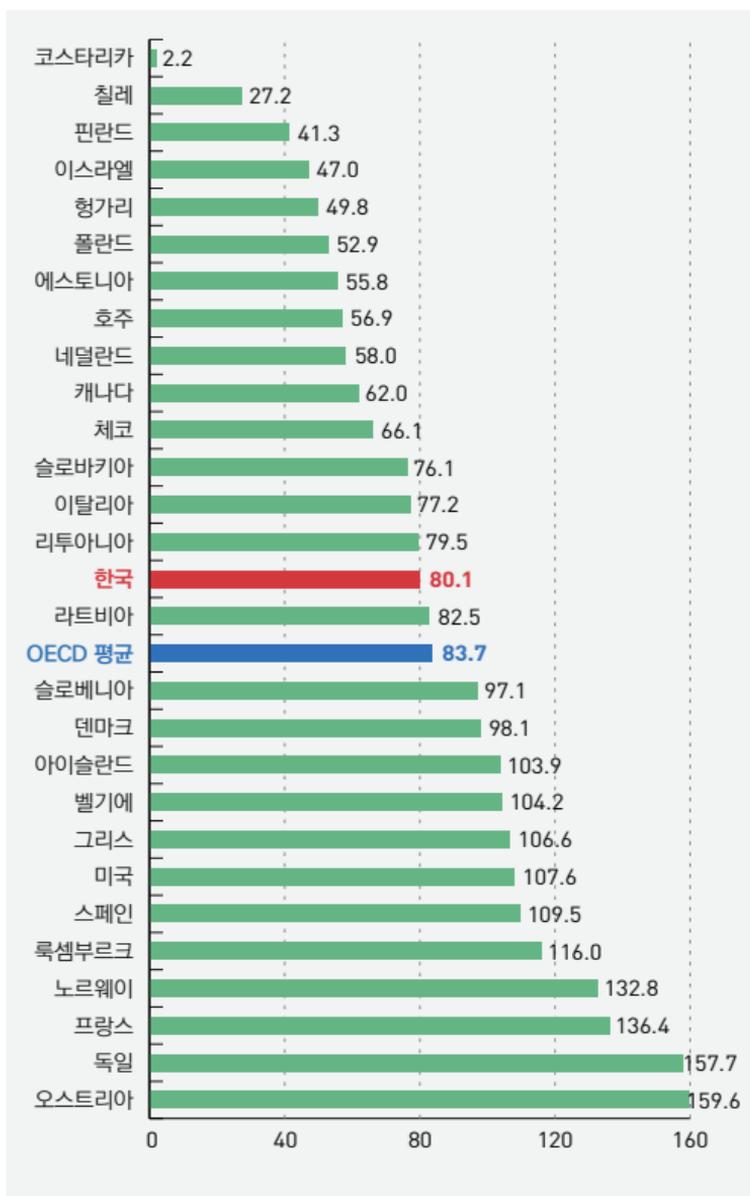
06. 보건의료비용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그림 25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수, 2021년

(단위: 건/인구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1년 (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28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는 2019년,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250>

26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80.1%로 OECD 평균(52.4%) 보다 높음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2016년 84.4%에서 2021년 80.1%로 4.3%p 감소함 (OECD 평균 9.4%p 증가)
- >> OECD 회원국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영국(80.9%), 한국(80.1%), 아일랜드(75.4%), 덴마크(75.0%) 순으로 높았음
 - 튀르키예가 5.9%(2019년)로 가장 낮았으며 라트비아가 7.7%로 두 번째로 낮았음

표 2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단위: %, 65세 이상 인구)

	2016 ²⁾	2021 ³⁾
호주	-	63.4
오스트리아	20.3	18.3
벨기에	54.7	57.3
캐나다	59.8	64.7
칠레	54.0	73.2
콜롬비아	-	-
코스타리카	-	60.6
체코	20.2	25.4
덴마크	44.0	75.0
에스토니아	2.8	21.1
핀란드	47.4	62.7
프랑스	50.8	59.9
독일	36.5	47.3
그리스	48.9	65.3
헝가리	26.0	30.5
아이슬란드	47.0	60.4
아일랜드	54.5	75.4
이스라엘	62.3	61.2
이탈리아	49.9	65.3
일본	50.0	66.0
한국	84.4	80.1
라트비아	4.3	7.7
리투아니아	9.6	26.3
룩셈부르크	38.0	44.2
멕시코	94.4	73.3
네덜란드	62.9	72.6
뉴질랜드	67.0	69.0
노르웨이	38.0	65.5
폴란드	9.7	10.0
포르투갈	50.1	60.7
슬로바키아	13.3	12.9
슬로베니아	9.8	24.5
스페인	56.1	67.7
스웨덴	49.1	60.4
스위스	-	-
튀르키예	7.0	5.9
영국	70.5	80.9
미국	67.2	72.8
평균¹⁾	43.0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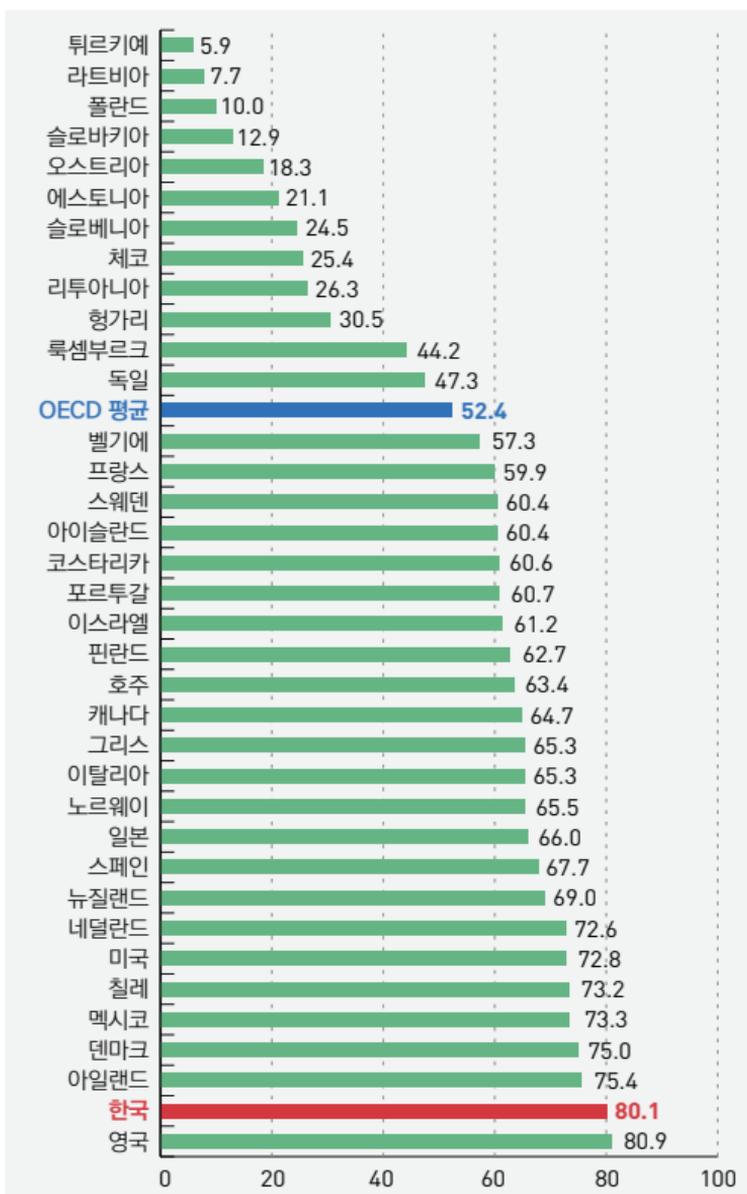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4개국, 2021년 36개국)의 평균임

2) 오스트리아, 그리스, 폴란드는 2014년 수치임

3) 오스트리아, 튀르키예는 2019년, 캐나다, 일본, 포르투갈은 2020년 수치임

그림 2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21년

(단위: %, 65세 이상 인구)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오스트리아, 튀르키예는 2019년, 캐나다, 일본, 포르투갈은 2020년 수치임



05

보건의료 질

- 27.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
- 28. 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
- 29.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의 총 처방량



27 >>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²²⁾

-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8.4%로 OECD 평균(6.9%) 보다 높음
 - 2016년 9.9%에서 2021년 8.4%로 1.5%p 감소함 (OECD 평균 0.1%p 감소)
 - 남자(8.0%)에 비해 여자(9.1%)의 치명률이 높음
- >> OECD 회원국 중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23.7%)였으며, 라트비아(15.9%), 에스토니아(11.3%) 순으로 높음

22) 치명률은 환자의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사망한 비율을 의미함. 환자의 입·퇴원을 고려하여 입원 단위로 산출함

표 27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¹⁾
(단위: %)

	2016 ³⁾			2021 ⁴⁾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3.8	3.8	3.7	3.3	3.2	3.2
오스트리아	6.5	5.9	7.1	5.8	5.7	5.8
벨기에	7.2	6.8	7.5	4.3	3.9	5.0
캐나다	4.7	4.7	4.9	4.7	4.8	4.7
칠레	8.6	7.6	10.0	7.2	7.3	7.4
콜롬비아	5.5	5.0	6.8	-	-	-
코스타리카	0.3	0.3	0.3	-	-	-
체코	6.1	6.0	6.1	6.2	6.2	6.2
덴마크	5.2	5.3	4.9	4.6	4.7	4.3
에스토니아	9.7	10.0	8.8	11.3	10.7	12.4
핀란드	8.3	8.8	7.7	7.3	7.7	7.0
프랑스	5.5	5.1	5.9	-	-	-
독일	7.6	7.5	7.9	8.6	8.7	8.5
그리스	-	-	-	-	-	-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2.3	2.8	2.0	1.7	2.4	0.6
아일랜드	5.5	5.2	6.1	5.4	5.6	5.9
이스라엘	5.2	4.3	6.4	5.2	4.4	6.4
이탈리아	5.3	5.1	5.6	-	-	-
일본	11.6	10.2	13.8	8.3	8.2	7.8
한국	9.9	9.6	10.4	8.4	8.0	9.1
라트비아	14.1	14.1	14.7	15.9	16.7	14.9
리투아니아	9.9	10.0	9.5	10.3	11.0	9.5
룩셈부르크	8.5	8.5	8.8	-	-	-
멕시코	28.4	25.7	34.8	23.7	21.4	29.0
네덜란드	3.5	3.4	3.9	2.9	2.7	3.0
뉴질랜드	4.4	4.1	4.8	4.1	4.3	3.8
노르웨이	3.8	3.8	3.9	2.6	2.6	2.6
폴란드	4.9	4.9	4.9	5.2	4.7	5.5
포르투갈	8.5	8.7	8.2	8.0	7.9	7.9
슬로바키아	5.8	5.3	6.3	7.4	7.3	7.5
슬로베니아	4.9	4.3	5.8	5.1	4.3	6.2
스페인	7.2	6.5	7.9	6.5	6.1	6.9
스웨덴	4.4	4.4	4.6	3.6	3.7	3.6
스위스	5.1	5.2	4.9	-	-	-
튀르키예	7.3	6.9	7.9	6.0	6.2	5.4
영국	7.1	7.0	7.3	6.7	6.7	6.7
미국	5.0	5.1	4.8	5.5	5.5	5.7
평균²⁾	7.0	6.7	7.5	6.9	6.8	7.1

주 1) 입원 단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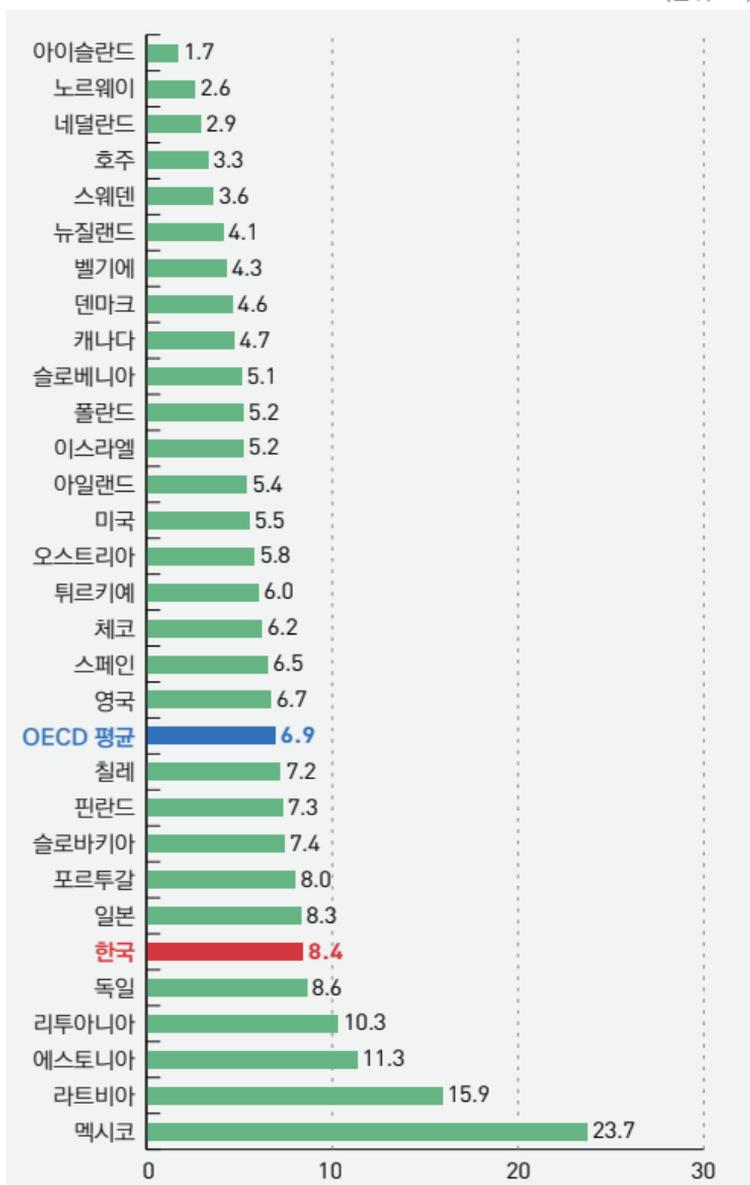
2)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6개국, 2021년 30개국)의 평균임

3) 일본, 스위스는 2014년, 코스타리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영국은 2015년 수치임

4) 칠레, 덴마크는 2019년, 호주, 일본, 미국은 2020년 수치임

그림 27-1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 2021년

(단위: %)



주 1) 입원 단위 기준임

2)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0개국의 평균임

3) 칠레, 덴마크는 2019년, 호주, 일본, 미국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270>

그림 27-2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성별), 2021년

(단위: %)



주 1) 입원 단위 기준임

2)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0개국의 평균임

3) 칠레, 덴마크는 2019년 수치, 호주, 일본, 미국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270>

- ▶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 (8.0%)보다 낮음
 - 2016년 4.0%에서 2021년 3.3%로 0.7%p 감소함 (OECD 평균 0.1%p 증가)
 - 남자(3.1%)에 비해 여자(3.4%)의 치명률이 높음

- ▶ OECD 회원국 중에서 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20.5%)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2.9%, 2020년)으로 큰 차이를 보임

23) 치명률은 환자의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사망한 비율을 의미함. 환자의 입·퇴원을 고려하여 입원 단위로 산출함

표 28 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¹⁾
(단위: %)

	2016 ³⁾			2021 ⁴⁾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6.0	5.6	6.3	4.8	4.4	4.9
오스트리아	6.5	6.0	6.9	6.6	6.0	7.1
벨기에	8.4	7.8	8.9	8.2	7.7	8.5
캐나다	8.5	8.5	8.5	7.7	7.7	7.8
칠레	8.9	8.2	9.5	8.3	8.6	8.1
콜롬비아	4.5	5.7	3.1	-	-	-
코스타리카	2.8	3.8	2.0	-	-	-
체코	8.6	8.5	8.6	9.4	9.3	9.3
덴마크	5.8	5.3	6.4	4.9	5.2	4.8
에스토니아	9.2	8.6	9.8	9.0	8.0	9.5
핀란드	9.5	8.7	9.9	9.1	8.7	9.2
프랑스	7.3	7.1	7.3	-	-	-
독일	6.3	5.9	6.6	6.6	6.1	6.9
그리스	-	-	-	-	-	-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2.8	1.5	3.6	3.1	1.1	4.6
아일랜드	8.8	9.0	8.7	6.3	7.0	6.0
이스라엘	6.3	5.4	7.2	5.4	5.3	5.7
이탈리아	6.6	6.1	6.9	-	-	-
일본	3.2	2.7	3.7	2.9	2.6	3.2
한국	4.0	3.4	4.5	3.3	3.1	3.4
라트비아	20.3	20.8	19.9	20.5	19.8	21.6
리투아니아	14.1	14.9	13.1	15.4	15.5	15.0
룩셈부르크	7.5	7.8	7.3	-	-	-
멕시코	19.7	19.0	20.3	17.2	16.4	18.1
네덜란드	5.3	5.3	5.2	4.9	5.1	4.8
뉴질랜드	6.4	6.2	6.4	5.9	5.1	6.1
노르웨이	4.2	4.0	4.3	3.1	2.9	3.1
폴란드	11.9	12.3	11.5	-	-	-
포르투갈	10.3	10.0	10.5	10.4	10.4	10.2
슬로바키아	8.8	8.6	8.9	9.9	10.4	9.4
슬로베니아	11.2	10.3	12.0	12.1	11.4	12.8
스페인	10.2	9.5	10.6	9.4	8.9	9.8
스웨덴	6.5	6.0	6.8	5.5	5.3	5.6
스위스	5.6	5.4	5.7	-	-	-
튀르키예	4.8	4.4	5.1	7.6	7.3	7.8
영국	9.8	8.9	10.4	9.0	8.5	9.4
미국	4.2	4.1	4.2	4.3	4.4	4.2
평균²⁾	7.9	7.6	8.1	8.0	7.7	8.2

주 1) 입원 단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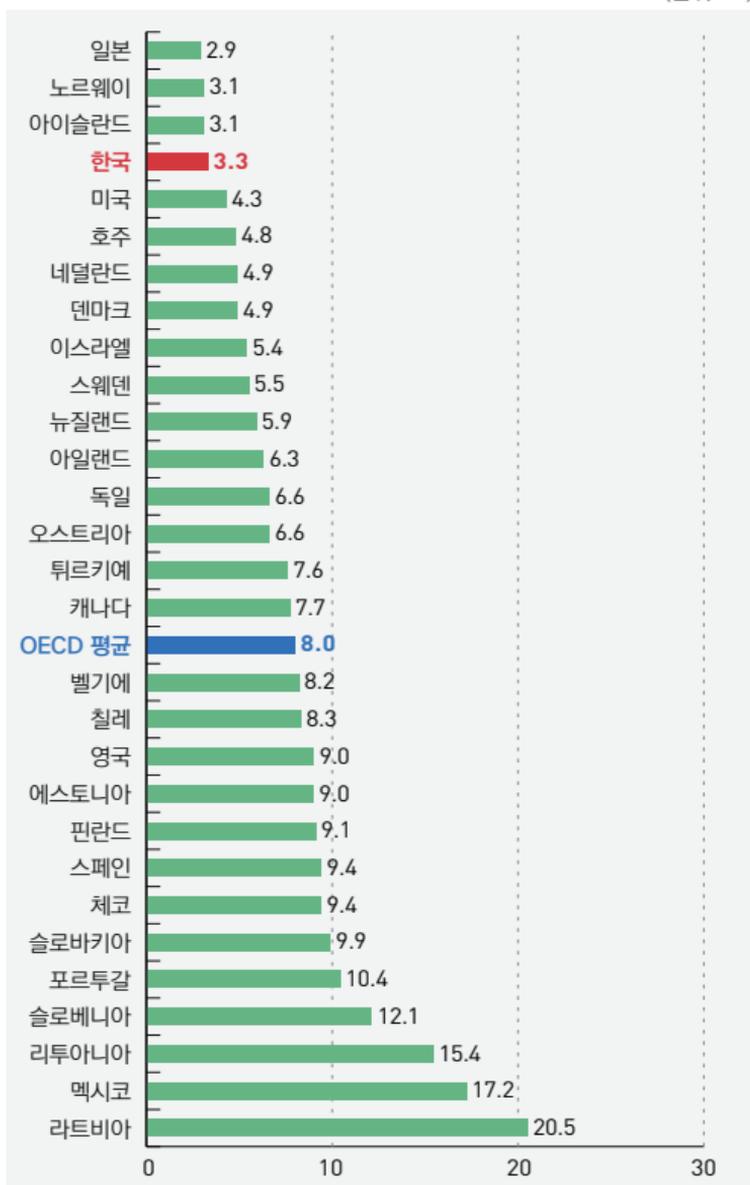
2)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36개국, 2021년 29개국)의 평균임

3) 일본, 스위스는 2014년, 코스타리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영국은 2015년 수치임

4) 칠레, 덴마크는 2019년, 호주, 일본, 미국은 2020년 수치임

그림 28-1 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 2021년

(단위: %)



주 1) 입원 단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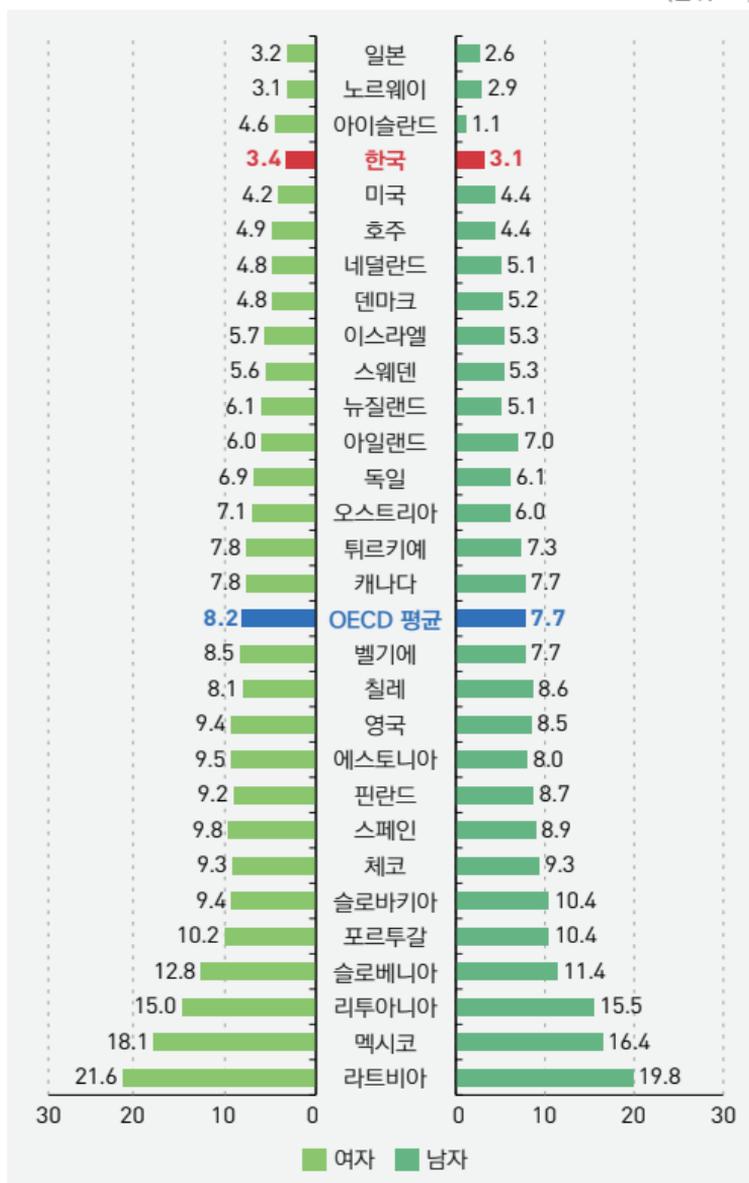
2)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29개국의 평균임

3) 칠레, 덴마크는 2019년, 호주, 일본, 미국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280>

그림 28-2 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성별), 2021년

(단위: %)



주 1) 입원 단위 기준임

2)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29개국의 평균임

3) 칠레, 덴마크는 2019년, 호주, 일본, 미국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280>

29 >>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 총 처방량

- >>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 총 처방량은 1일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6.0DDD²⁴⁾로 OECD 평균(13.3DDD)보다 많음
 - 2016년 26.9DDD에서 2021년 16.0DDD로 10.9DDD 만큼 감소함(OECD 평균 5.8DDD감소)
- >> OECD 회원국 중에서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 총 처방량은 호주(25.9DDD), 아이슬란드(21.2DDD), 이탈리아(20.6DDD), 노르웨이(19.0DDD, 2019년), 한국(16.0DDD), 이스라엘(15.5DDD) 순으로 많았음
 - 포르투갈(5.3DDD), 에스토니아(7.2DDD), 스웨덴(7.6DDD), 핀란드(8.3DDD, 2020년), 캐나다(9.1DDD), 스페인(9.9DDD)은 항생제 총 처방량이 10.0DDD 미만으로 나타남

24) DDD(Defined Daily Dose)란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함

표 29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 총 처방량

(단위: DDD/약제처방 인구 1,000명/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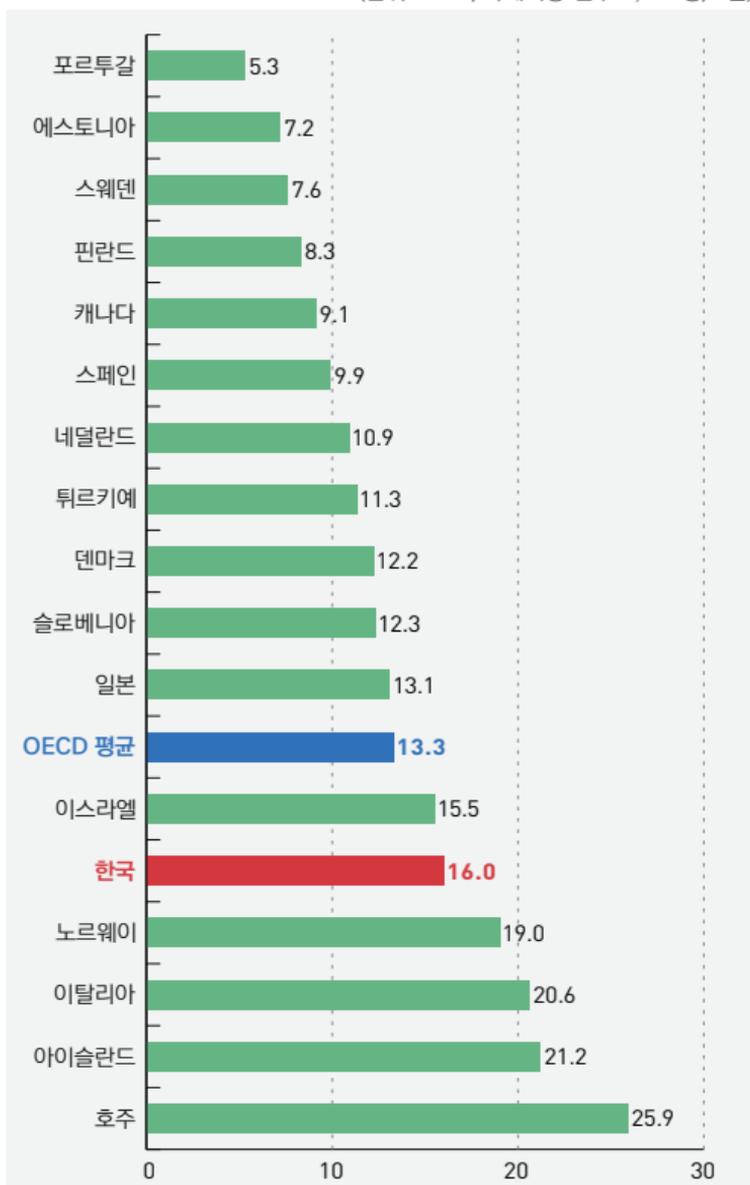
	2016 ²⁾	2021 ³⁾
호주	33.2	25.9
오스트리아	12.9	-
벨기에	18.1	-
캐나다	14.4	9.1
칠레	-	-
콜롬비아	-	-
코스타리카	-	-
체코	-	-
덴마크	14.9	12.2
에스토니아	10.0	7.2
핀란드	14.3	8.3
프랑스	-	-
독일	-	-
그리스	36.3	-
헝가리	-	-
아이슬란드	24.0	21.2
아일랜드	-	-
이스라엘	20.8	15.5
이탈리아	28.8	20.6
일본	14.5	13.1
한국	26.9	16.0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	-
룩셈부르크	25.4	-
멕시코	-	-
네덜란드	14.4	10.9
뉴질랜드	-	-
노르웨이	21.6	19.0
폴란드	-	-
포르투갈	11.4	5.3
슬로바키아	23.6	-
슬로베니아	15.6	12.3
스페인	12.6	9.9
스웨덴	10.5	7.6
스위스	-	-
튀르키예	16.6	11.3
영국	19.3	-
미국	-	-
평균¹⁾	19.1	13.3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23개국, 2021년 17개국)의 평균임

2)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영국은 2015년 수치임

3) 일본, 노르웨이는 2019년, 덴마크, 핀란드는 2020년 수치임

그림 29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 총 처방량, 2021년
(단위: DDD/약제처방 인구 1,000명/1일)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17개국의 평균임
2) 일본, 노르웨이는 2019년, 덴마크, 핀란드는 2020년 수치임



06

보건의료비용

- 30.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 31.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 3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
가입제도 비중
- 33. 경상의료비 중 개인의료
서비스 비중



30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 >>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최종 소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GDP 대비 경상의료비)은 9.3%로 OECD 평균(9.7%)보다 낮음
 -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10.0%를 넘는 국가는 미국(17.4%)을 비롯하여 17개국에 달함
 - 한편, 튀르키예(4.6%), 룩셈부르크(5.7%), 멕시코(6.1%), 폴란드(6.4%), 아일랜드(6.7%), 헝가리(7.4%), 에스토니아(7.5%), 코스타리카(7.6%), 슬로바키아(7.8%), 리투아니아(7.8%), 이스라엘(7.9%)는 8.0%에 미치지 못함
- >>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편으로 알려져 있음
 -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16년 대비 연평균 6.3% 증가하였음
 - OECD 회원국은 연평균 2.1% 증가하였음

표 30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단위: %)

	2016	2021
호주	10.1	10.6
오스트리아	10.4	12.1
벨기에	10.8	11.0
캐나다	11.0	12.3
칠레	8.6	9.3
콜롬비아	7.5	9.0
코스타리카	7.3	7.6
체코	7.4	9.5
덴마크	10.2	10.8
에스토니아	6.7	7.5
핀란드	9.4	10.3
프랑스	11.5	12.3
독일	11.2	12.9
그리스	8.4	9.2
헝가리	7.0	7.4
아이슬란드	8.1	9.7
아일랜드	7.5	6.7
이스라엘	7.1	7.9
이탈리아	8.7	9.4
일본	10.7	11.3
한국	6.9	9.3
라트비아	6.1	9.0
리투아니아	6.6	7.8
룩셈부르크	5.1	5.7
멕시코	5.6	6.1
네덜란드	10.3	11.4
뉴질랜드	9.2	10.1
노르웨이	10.5	9.9
폴란드	6.6	6.4
포르투갈	9.4	11.1
슬로바키아	7.0	7.8
슬로베니아	8.5	9.5
스페인	8.9	10.7
스웨덴	10.9	11.2
스위스	11.0	11.8
튀르키예	4.3	4.6
영국	9.7	12.4
미국	16.8	17.4
평균¹⁾	8.8	9.7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8개국의 평균임

01. 건강상태

02. 건강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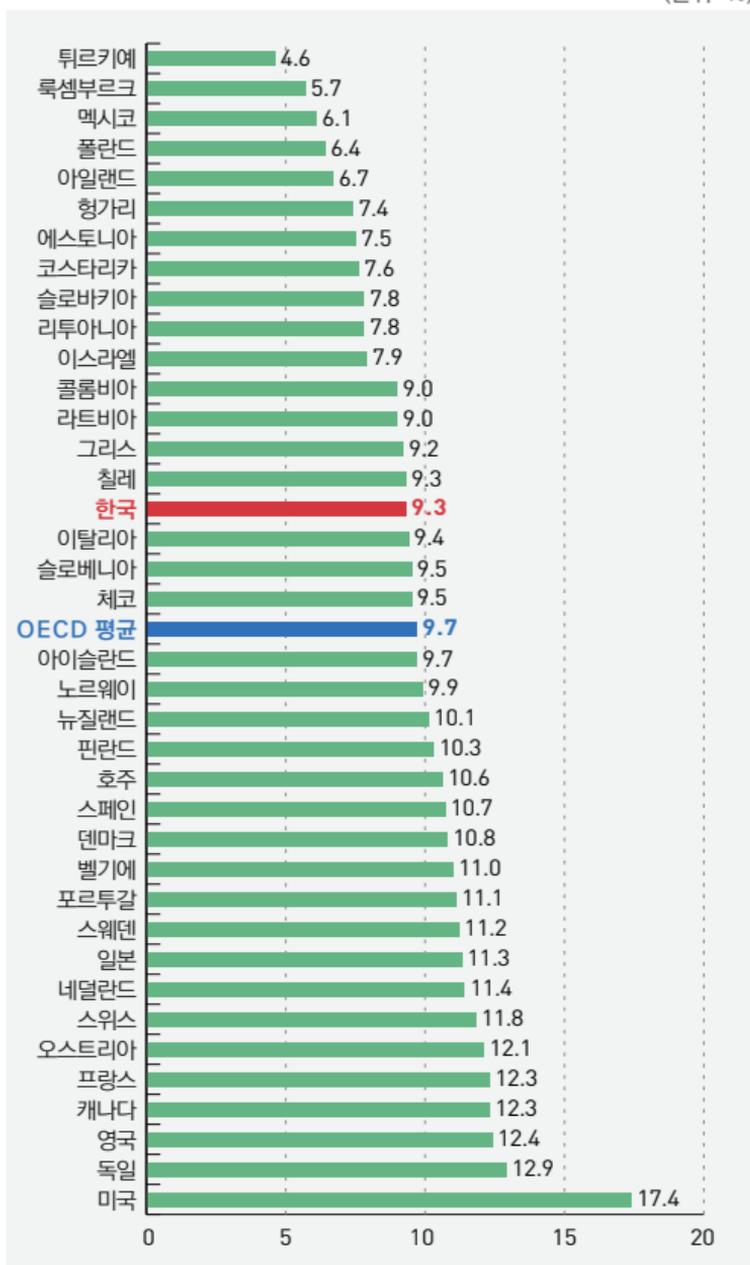
06. 보건의료비용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그림 30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2021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21년 통계가 있는 38개국의 평균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300>

31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 >> OECD 회원국 각각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4,189US\$ PPP²⁵⁾로 OECD 평균(4,715US\$ PPP)보다 낮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12,197US\$ PPP)으로, OECD 평균의 약 2.6배에 달하는 지출을 하고 있음
 - 반면, 멕시코(1,262US\$ PPP)는 1,500US\$ PPP 이하의 낮은 지출을 하고 있음
- >> 2021년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2016년(2,646US\$ PPP)에 비교해서 1.6배 증가함

25) 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하며,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환율임

표 31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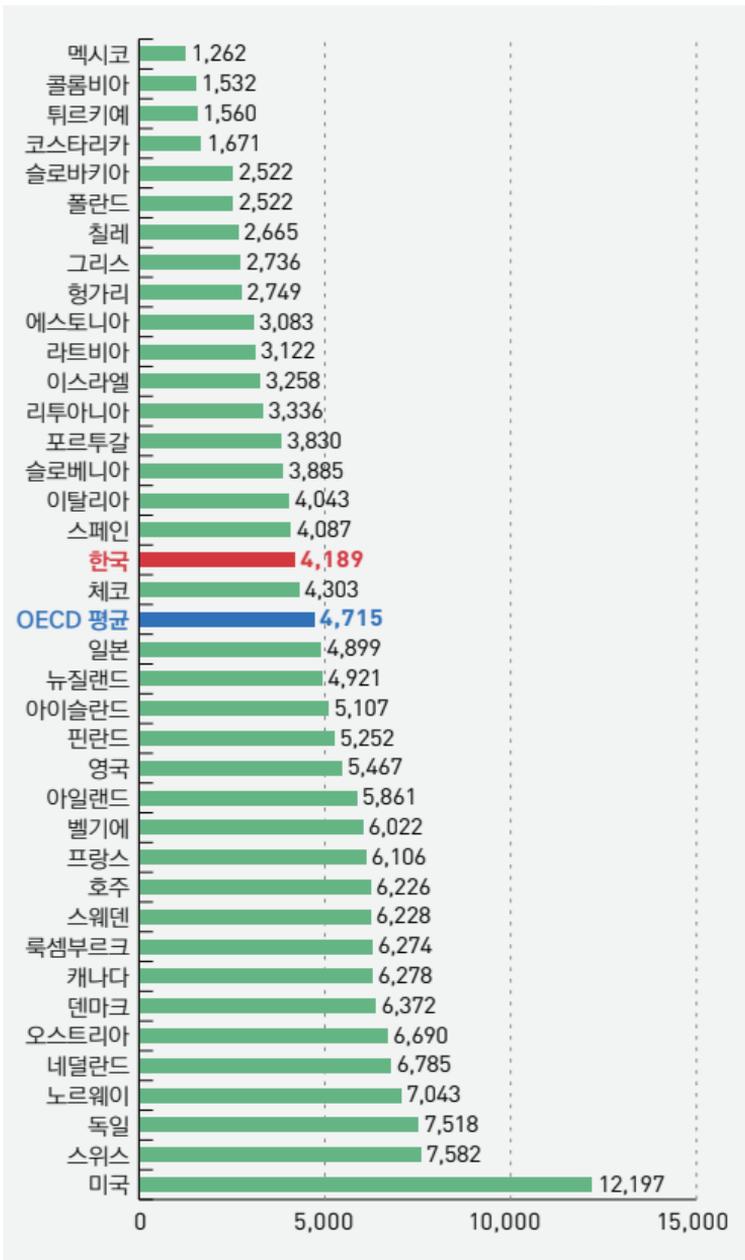
(단위: US\$ PPP)

	2016	2021
호주	5,037	6,226
오스트리아	5,196	6,690
벨기에	5,013	6,022
캐나다	5,044	6,278
칠레	1,941	2,665
콜롬비아	1,102	1,532
코스타리카	1,413	1,671
체코	2,798	4,303
덴마크	4,894	6,372
에스토니아	2,097	3,083
핀란드	4,104	5,252
프랑스	4,922	6,106
독일	5,674	7,518
그리스	2,258	2,736
헝가리	2,000	2,749
아이슬란드	3,932	5,107
아일랜드	4,553	5,861
이스라엘	2,524	3,258
이탈리아	3,274	4,043
일본	4,296	4,899
한국	2,646	4,189
라트비아	1,614	3,122
리투아니아	2,098	3,336
룩셈부르크	4,876	6,274
멕시코	1,103	1,262
네덜란드	5,096	6,785
뉴질랜드	3,733	4,921
노르웨이	5,904	7,043
폴란드	1,959	2,522
포르투갈	2,815	3,830
슬로바키아	2,040	2,522
슬로베니아	2,738	3,885
스페인	3,149	4,087
스웨덴	5,128	6,228
스위스	6,548	7,582
튀르키예	1,129	1,560
영국	3,940	5,467
미국	9,723	12,197
평균¹⁾	3,640	4,715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8개국의 평균임

그림 31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2021년

(단위: US\$ PPP)



주 1) OECD 평균은 2021년 통계가 있는 38개국의 평균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310>

01. 건강상태
02. 건강 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06. 보건의료비용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32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 >> 경상의료비 중에서 정부·의무가입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3%로 OECD 평균(76.0%)보다 낮음
 -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이 높은 국가는 체코(86.4%), 룩셈부르크(86.0%), 스웨덴(85.9%), 노르웨이(85.6%), 독일(85.5%)임
 - 한편, 멕시코(50.2%), 그리스(62.1%)는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의 비중이 낮은 국가로 분류됨
-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왔으나,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이 아직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	59.1	58.2	58.3	57.8	57.9	57.9	58.4	58.9	59.4	61.4	62.3
OECD 평균	73.1	72.6	72.5	73.4	73.5	73.7	73.7	73.9	74.1	76.0	76.0

표 3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단위: %)

	2016	2021 ²⁾
호주	68.8	71.9
오스트리아	74.0	78.3
벨기에	76.8	77.6
캐나다	69.8	72.9
칠레	58.5	63.0
콜롬비아	76.1	78.4
코스타리카	75.1	74.5
체코	84.3	86.4
덴마크	84.2	85.2
에스토니아	74.6	76.4
핀란드	76.2	79.8
프랑스	83.0	84.8
독일	84.4	85.5
그리스	61.4	62.1
헝가리	68.1	72.5
아이슬란드	81.5	83.7
아일랜드	72.5	77.4
이스라엘	63.3	68.2
이탈리아	74.4	75.5
일본	84.0	84.9
한국	57.9	62.3
라트비아	55.9	69.5
리투아니아	66.6	68.6
룩셈부르크	83.6	86.0
멕시코	51.3	50.2
네덜란드	81.2	85.0
뉴질랜드	78.7	80.3
노르웨이	85.4	85.6
폴란드	69.3	72.5
포르투갈	61.7	63.2
슬로바키아	80.4	79.7
슬로베니아	72.7	73.7
스페인	71.6	71.6
스웨덴	84.3	85.9
스위스	66.6	67.7
튀르키예	78.4	78.8
영국	80.6	83.0
미국	82.8	83.6
평균¹⁾	73.7	76.0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8개국의 평균임

2) 호주와 일본은 2020년 수치임

01. 건강상태

02. 건강위험요인

03. 보건의료자원

04. 보건의료이용

05. 보건의료 질

06. 보건의료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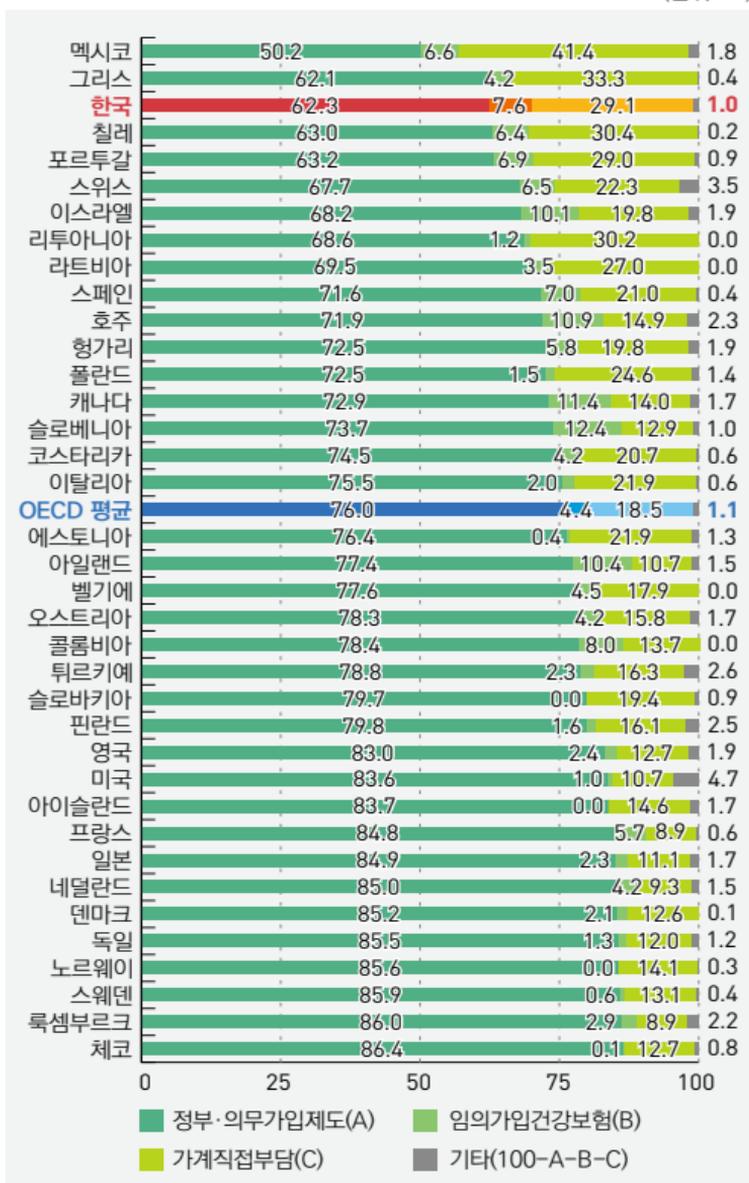
07. 의약품시장

08. 장기요양

그림 3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2021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 38개의 평균임. 단, 뉴질랜드는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항목(임의가입건강보험, 가계직접부담 등)은 2018년까지만 제공하는 바 그래프에서 제시하지 않음

2) 호주와 일본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320>

33 >> 경상의료비 중 개인의료서비스 비중²⁶⁾

- >> 경상의료비 중에서 개인의료서비스²⁷⁾가 차지하는 비중은 87.1%로 OECD 평균(88.5%)보다 낮음
 - 입원서비스 25.8%, 외래서비스 28.6%, 장기요양서비스 12.1%, 보조의료서비스 1.4%임
 - 의약품 등 의료재화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의료비 비중은 19.2%로 OECD 평균(18.3%) 보다 높음
- >> 집합보건의료비 중 예방서비스는 9.0%(OECD 평균 5.4%),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는 3.9%(OECD 평균 6.1%)임

<2021년 기준 경상의료비 기능별 구성>

	개인의료서비스						집합보건의료비		
		입원 서비스	외래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보조의료 서비스	의료 재화	예방 서비스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	
한국	87.1	25.8	28.6	12.1	1.4	19.2	12.9	9.0	3.9
OECD 평균	88.5	26.4	25.4	13.2	5.3	18.3	11.5	5.4	6.1

26) OECD의 기능별 분류체계 중 기타 항목(other health care services unknown)에 값을 보고한 14개 국가(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체코,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는 비교에서 제외하였으며, 기능별 구성에서 1개라도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외함

27) 입원서비스, 외래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 의료재화에 대한 지출이 개인의료서비스 비용에 해당함

표 33 경상의료비 중 개인의료서비스 비중¹⁾

(단위: %)

	2016	2021 ²⁾
호주	89.4	88.2
오스트리아	92.8	85.7
벨기에	87.3	83.7
캐나다	-	-
칠레	-	-
콜롬비아	87.7	-
코스타리카	-	-
체코	-	-
덴마크	93.2	86.5
에스토니아	92.4	87.7
핀란드	-	-
프랑스	83.9	81.7
독일	90.3	87.4
그리스	96.3	93.1
헝가리	-	-
아이슬란드	92.6	91.0
아일랜드	-	-
이스라엘	-	-
이탈리아	89.8	88.3
일본	92.6	91.8
한국	92.6	87.1
라트비아	87.1	89.2
리투아니아	94.8	90.8
룩셈부르크	90.6	85.7
멕시코	-	-
네덜란드	-	-
뉴질랜드	-	-
노르웨이	94.8	94.3
폴란드	-	-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95.2	89.1
슬로베니아	91.6	89.6
스페인	92.0	90.8
스웨덴	-	-
스위스	-	-
튀르키예	-	-
영국	-	-
미국	-	-
평균²⁾	91.4	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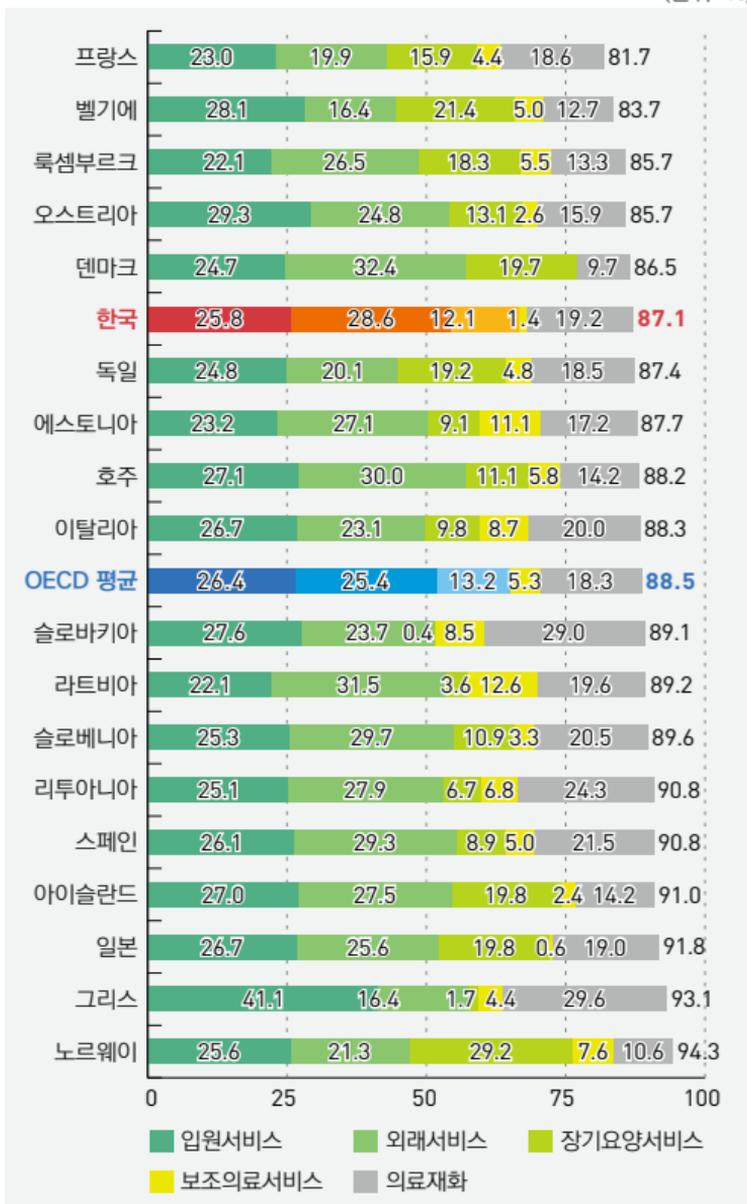
주 1) 개인의료서비스 비중은 입원, 외래, 장기요양, 보조의료서비스, 의료재화를 포함한 값임(기타 제외)

2)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 20개국, 2021년 19개국)의 평균임

3) 호주, 일본은 2020년 수치임

그림 33 경상의료비 중 개인의료서비스 비중, 2021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19개국의 평균임
 2) 호주, 일본은 2020년 수치임
 3) 그래프의 마지막 수치는 개인의료서비스 비중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330>



07

의약품 시장

34. 의약품 소비량

35. 의약품 판매액



34 >> 의약품 소비량

- >> ATC(WHO 의약품 분류 기준) 대분류를 기준으로 전신성 항감염약 의약품 소비량이 28.3DDD²⁸⁾, 근골격계 의약품 소비량이 88.2DDD로 OECD 평균(전신성 항감염약 19.1DDD, 근골격계 61.8DDD)보다 많음
- >> 세분류에 따라서는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J01) 소비량이 19.5DDD로 칠레(30.9DDD), 튀르키예(27.0DDD), 그리스(23.5DDD), 뉴질랜드(22.0DDD), 프랑스(21.5DDD), 폴란드(20.2DDD), 스페인(20.0DDD)에 이어서 여덟 번째로 많음
- >> 만성질환 치료제, 항우울제 등 복합제 의약품은 집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국가 간 비교에 주의가 필요함
- >> 의약품 소비량은 판매 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질」 영역에서 다루어진 ‘전신적 사용을 위해 처방된 항생제 총 처방량’의 수치와는 다름

28) DDD(Defined Daily Dose)란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함

표 34 의약품 소비량,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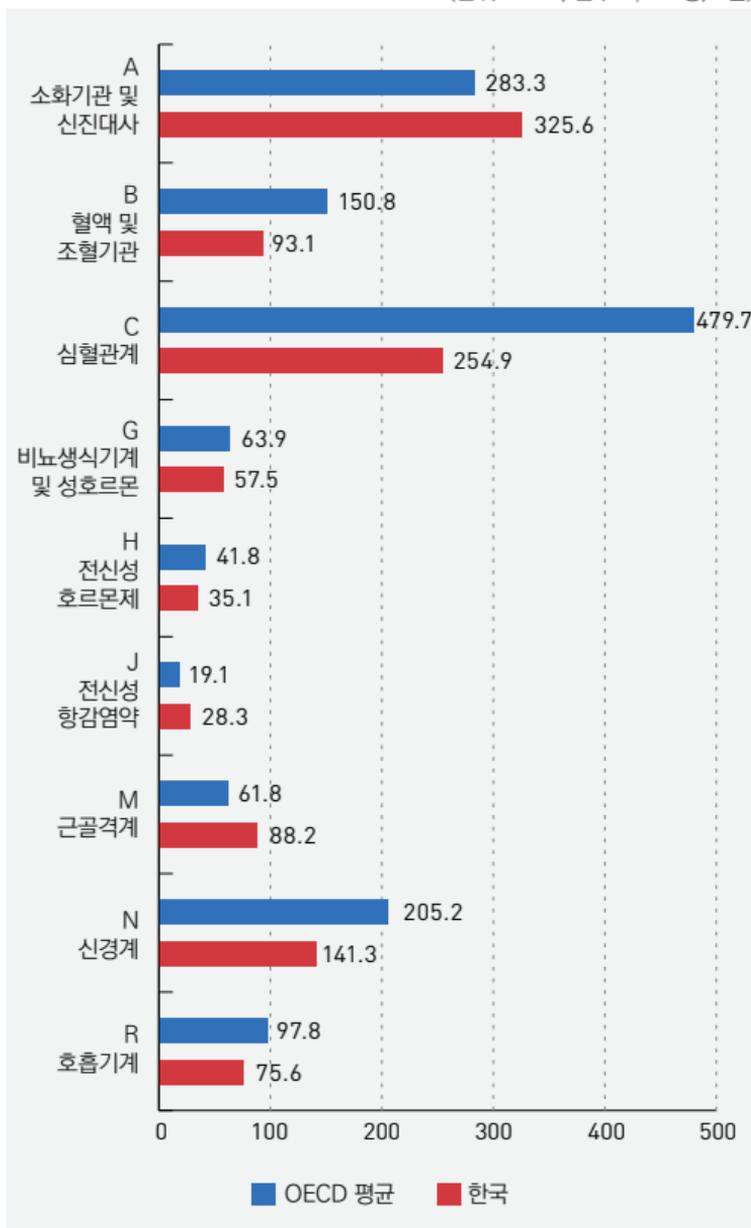
(단위: DDD/인구 1,000명/1일)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¹⁾	중앙값 ¹⁾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325.6	143.1	559.1	283.3	279.6
A02A	제산제	4.8	0.0	10.6	1.5	0.8
A02B	위궤양 치료제	81.5	29.8	134.9	83.5	81.9
A10	당뇨병 치료제	78.5	49.2	124.5	77.1	77.7
B	혈액 및 조혈기관	93.1	39.9	305.3	150.8	121.0
C	심혈관계	254.9	221.7	799.9	479.7	472.6
C01A	강심배당체	0.9	0.1	2.8	1.5	1.5
C01B	항부정맥약	2.0	0.8	10.6	4.0	2.9
C02	혈압강하제	1.9	1.0	35.7	8.8	6.2
C03	이뇨제	15.8	10.4	100.2	40.7	39.9
C07	베타 차단제	14.4	14.4	80.2	43.4	39.6
C08	칼슘 차단제	46.6	16.0	106.4	56.8	52.4
C09	레닌 안지오텐신 약물	54.9	54.9	397.1	183.5	171.2
C10	지질완화 약물	94.0	36.0	195.2	128.8	135.7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57.5	16.2	142.7	63.9	54.8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12.4	4.3	97.8	34.5	25.3
H	전신성 호르몬제	35.1	27.1	88.1	41.8	39.5
J	전신성 항감염약	28.3	10.7	33.1	19.1	17.9
J01	전신성 항균물질	19.5	8.3	30.9	15.7	14.6
M	근골격계	88.2	27.1	99.9	61.8	63.1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52.7	8.5	78.4	39.7	36.1
N	신경계	141.3	95.7	387.8	205.2	176.5
N02	진통제	14.9	1.7	98.8	33.8	30.1
N05B	불안제거약	14.4	2.0	85.9	17.0	11.2
N05C	취면제 및 진정제	14.6	0.0	73.2	20.5	15.5
N06A	항우울제	31.1	21.5	161.1	74.1	64.0
R	호흡기계	75.6	29.7	246.6	97.8	86.7
R03	기도폐색질환약	12.2	5.8	81.0	41.7	41.2

주 1) ATC 항목별로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과 중앙값으로, 항목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통계 제출 국가는 상이함

그림 34 의약품 소비량, 2021년

(단위: DDD/인구 1,000명/1일)



주 1) ATC 항목별로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으로, 항목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통계 제출 국가는 상이함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340>

- >> ATC(WHO 의약품 분류 기준) 대분류를 기준으로, 구매력지수를 적용한 우리나라 1인당 의약품 판매액(1인당 US\$ PPP²⁹⁾ 기준)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임
- >> 우리나라의 의약품 판매액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 정보 및 의약품 유통정보에 기초함에 따라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판매액이 집계되기 때문임
 - OECD 국가의 통계 산출 매뉴얼(Definitions, Sources and Methods)에 따르면 많은 국가가 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한적으로 수집함

29) 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하며, 의약품 판매액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환율임

표 35 의약품 판매액, 2021년

(단위: 1인당 US\$ 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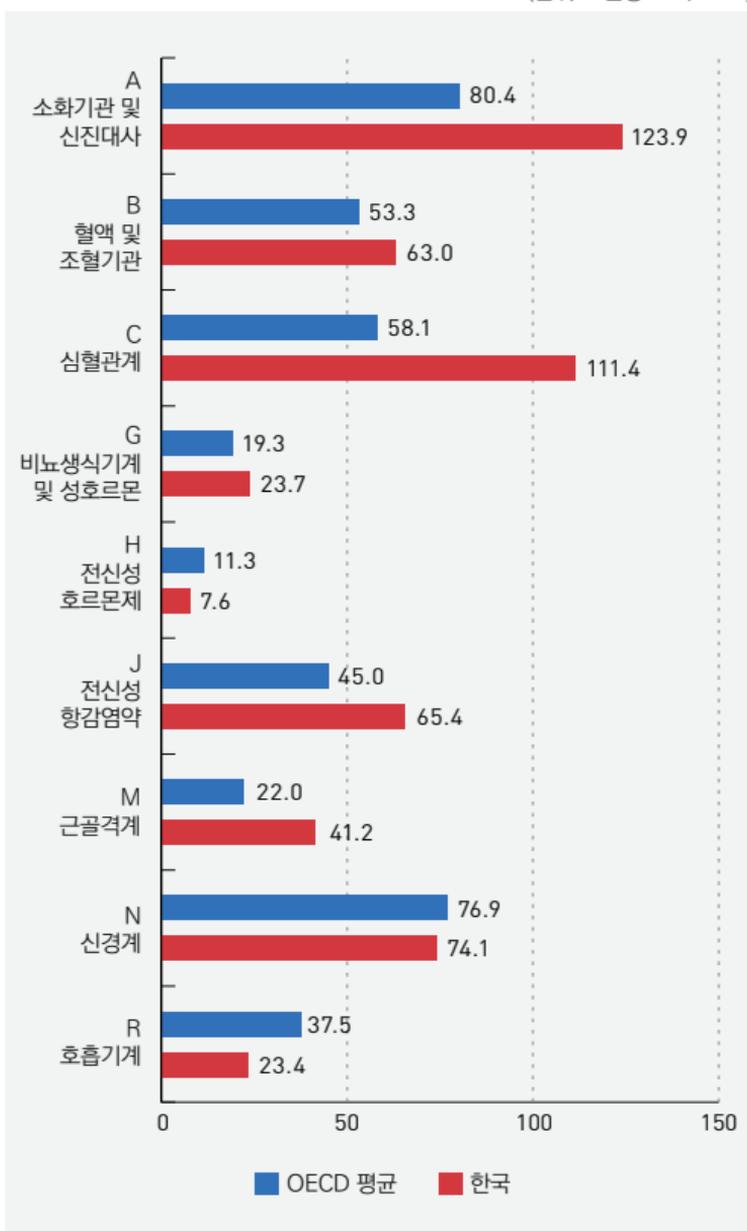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¹⁾	중앙값 ¹⁾
	총판매	785.3	238.3	943.3	594.4	619.3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123.9	17.7	163.8	80.4	77.8
A02A	제산제	1.8	0.0	1.8	0.7	0.7
A02B	위궤양 치료제	27.7	0.7	27.7	10.7	8.8
A10	당뇨병 치료제	32.1	3.5	89.1	40.0	33.7
B	혈액 및 조혈기관	63.0	1.8	142.1	53.3	58.1
C	심혈관계	111.4	5.7	143.8	58.1	58.4
C01A	강심배당체	0.0	0.0	0.3	0.1	0.1
C01B	항부정맥약	0.7	0.1	2.2	1.0	0.8
C02	혈압강하제	1.0	0.5	7.4	3.1	3.3
C03	이뇨제	0.7	0.3	9.6	3.3	3.2
C07	베타 차단제	3.4	0.5	13.5	6.1	6.1
C08	칼슘 차단제	7.8	0.3	8.8	3.5	2.9
C09	레닌 안지오텐신 약물	36.2	2.1	44.8	20.5	20.4
C10	지질완화 약물	50.4	1.1	57.3	16.1	12.6
G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23.7	3.6	34.4	19.3	19.8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6.2	1.8	22.2	8.3	7.2
H	전신성 호르몬제	7.6	3.1	27.6	11.3	10.1
J	전신성 항감염약	65.4	9.0	115.6	45.0	42.0
J01	전신성 항균물질	24.1	2.1	38.8	11.8	9.0
M	근골격계	41.2	1.8	43.7	22.0	20.0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16.9	0.9	17.5	8.3	8.0
N	신경계	74.1	14.1	142.9	76.9	74.1
N02	진통제	12.4	2.8	39.0	17.6	16.6
N05B	불안제거약	1.5	0.1	8.4	2.6	2.1
N05C	최면제 및 진정제	1.8	0.0	15.0	3.4	2.6
N06A	항우울제	7.1	0.8	31.4	11.1	10.3
R	호흡기계	23.4	3.0	70.3	37.5	37.1
R03	기도폐색질환약	7.8	2.9	51.8	23.3	22.4
	기타 ²⁾	251.5	0.0	429.9	203.8	200.8

주 1) ATC 항목별로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과 중앙값으로, 항목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통계 제출 국가는 상이하

2)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그림 35 의약품 판매액, 2021년

(단위: 1인당 US\$ PPP)



주 1) ATC 항목별로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으로, 항목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통계 제출 국가는 상이함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350>



08

장기요양

- 36.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 37.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
- 38.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



36 >>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상과 침상³⁰⁾(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을 모두 집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57.3개로 OECD 평균(45.6개)보다 많음
- >> 장기요양 병원 병상 및 침상은 2016년 61.3개에서 2021년 57.3개로 4.0개 감소함(OECD 평균 3.8개 감소)
- >> OECD 회원국 중에서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79.6개)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칠레(0.1개)임
 -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시설의 침상이 병원의 병상보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30)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의 병상을 '장기요양 병원 병상 수'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상을 '장기요양 시설 침상 수'로 OECD에 제공함

표 36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단위: 개/65세 이상 인구 1,000명)

	2016 ³⁾			2021 ⁴⁾		
	전체 ¹⁾	병원 병상	시설 침상	전체 ¹⁾	병원 병상	시설 침상
호주	51.6	-	51.6	47.6	-	47.6
오스트리아	45.4	3.5	41.9	48.6	2.9	45.7
벨기에	70.4	0.6	69.8	67.4	0.5	66.9
캐나다	59.6	2.7	56.9	49.2	2.5	46.7
칠레	-	-	-	0.1	0.1	-
콜롬비아	-	-	-	-	-	-
코스타리카	-	-	-	-	-	-
체코	48.0	10.7	37.3	44.2	9.3	34.9
덴마크	47.5	-	47.5	37.1	-	37.1
에스토니아	34.9	-	34.9	41.4	-	41.4
핀란드	63.6	4.7	58.9	52.2	1.4	50.8
프랑스	52.0	-	52.0	47.4	-	47.4
독일	54.4	0.0	54.4	53.9	0.0	53.9
그리스	2.8	2.8	-	2.5	2.5	-
헝가리	53.2	6.7	46.5	47.9	5.3	42.6
아이슬란드	59.6	2.5	57.1	53.4	2.4	51.0
아일랜드	49.8	1.1	48.7	44.2	1.1	43.1
이스라엘	23.3	3.3	20.0	19.5	3.0	16.5
이탈리아	19.0	0.7	18.3	21.8	0.5	21.3
일본	24.0	-	24.0	26.5	-	26.5
한국	61.3	36.5	24.8	57.3	32.3	25.0
라트비아	13.9	-	13.9	12.4	-	12.4
리투아니아	39.3	2.7	36.6	40.8	2.3	38.5
룩셈부르크	83.7	0.0	83.7	79.6	0.7	78.9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78.2	2.2	76.0	77.1	3.2	73.9
뉴질랜드	56.4	-	56.4	50.4	-	50.4
노르웨이	47.4	-	47.4	40.7	-	40.7
폴란드	12.1	0.1	12.0	10.9	0.2	10.7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57.1	5.2	51.9	50.2	4.0	46.2
슬로베니아	54.2	-	54.2	49.5	-	49.5
스페인	46.7	2.5	44.2	45.4	2.0	43.4
스웨덴	65.0	-	65.0	63.9	-	63.9
스위스	65.8	0.8	65.0	62.4	0.5	61.9
튀르키예	8.1	-	8.1	9.5	-	9.5
영국	46.1	-	46.1	41.3	-	41.3
미국	33.4	-	33.4	29.8	0.9	28.9
평균²⁾	49.4	4.4	45.0	45.6	3.5	42.1

주 1) 전체는 병원 병상 수와 시설 침상 수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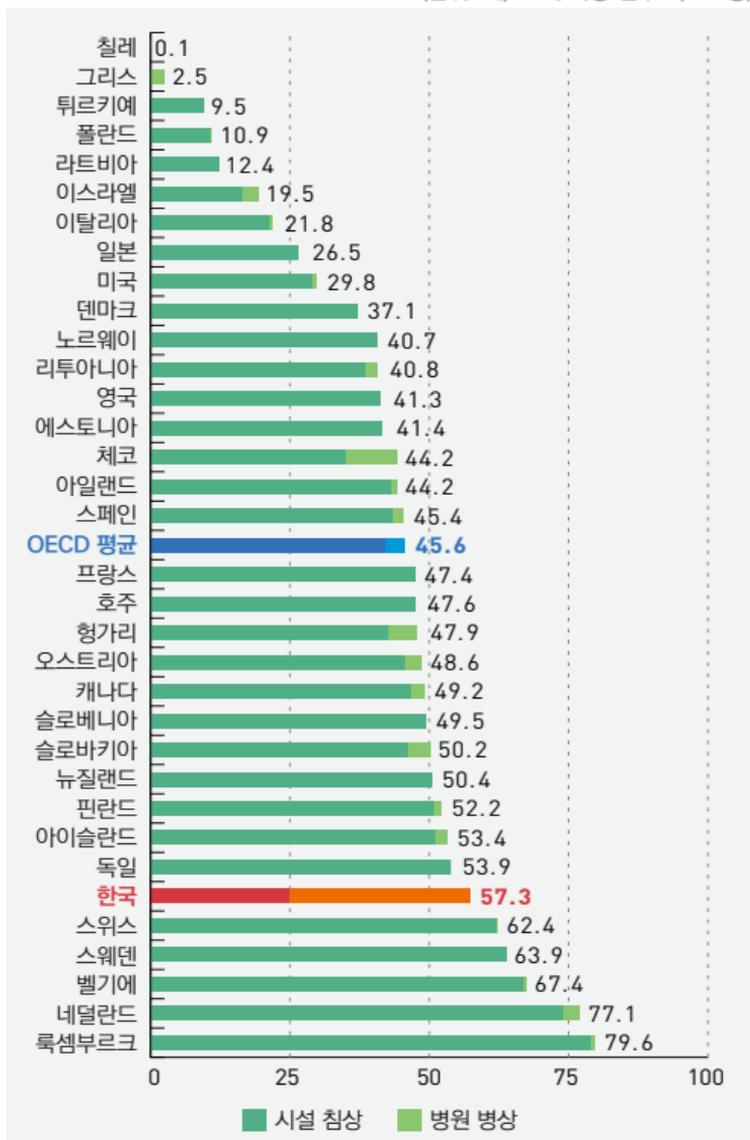
2)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병원 병상 2016년 20개국, 2021년 22개국, 시설 침상 32개국)의 평균임

3) 독일은 2015년 수치임

4) 아이슬란드는 2020년 수치임

그림 36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2021년

(단위: 개/65세 이상 인구 1,000명)



- 주 1) 그래프 수치는 병원 병상 수와 시설 침상 수의 합임
- 2)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병원 병상 22개국, 시설 침상 32개국)의 평균임
- 3) 아이슬란드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360>

37 >>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

- >>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5.6명)보다 0.8명 적음
 - 재가서비스 제공 인력은 2016년 2.4명에서 2021년 3.8명으로 1.4명 증가함(OECD 평균 변동 없음)
 - 시설서비스 제공 인력은 2016년 1.0명에서 2021년 1.1명으로 0.1명 증가함(OECD 평균 변동 없음)
- >> OECD 국가 중에서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0명), 스웨덴(11.7명), 이스라엘(11.2명)이고, 적은 국가는 포르투갈(0.8명), 슬로바키아(1.3명), 슬로베니아(1.7명)임

표 37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

(단위: 명/65세 이상 인구 100명)

	2016 ²⁾			2021 ³⁾		
	전체	재가	시설	전체	재가	시설
호주	6.2	2.2	4.0	7.3	2.7	4.6
오스트리아	4.1	1.5	2.6	4.1	1.4	2.7
벨기에	-	-	-	-	-	-
캐나다	3.7	0.5	3.2	3.8	0.6	3.2
칠레	-	-	-	-	-	-
콜롬비아	-	-	-	-	-	-
코스타리카	-	-	-	-	-	-
체코	2.2	-	-	2.4	-	-
덴마크	8.0	3.2	4.8	7.4	3.2	4.2
에스토니아	5.5	4.5	1.0	5.2	4.0	1.2
핀란드	-	-	-	4.3	1.5	2.8
프랑스	-	-	1.8	-	-	1.8
독일	5.1	1.9	3.2	5.5	2.2	3.3
그리스	-	-	-	-	0.1	-
헝가리	2.2	0.9	1.3	1.8	0.8	1.1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4.1	-	3.1	3.6	-	2.9
이스라엘	11.1	10.0	1.1	11.2	10.9	0.3
이탈리아	-	-	1.1	-	-	1.1
일본	5.9	4.5	1.4	6.8	5.3	1.5
한국	3.5	2.4	1.0	4.8	3.8	1.1
라트비아	-	-	-	-	-	-
리투아니아	-	-	-	-	-	-
룩셈부르크	7.7	2.7	5.1	7.5	2.9	4.6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8.0	3.1	4.9	8.2	2.9	5.3
뉴질랜드	-	-	-	-	-	-
노르웨이	12.7	-	-	12.0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0.7	0.1	0.6	0.8	0.2	0.7
슬로바키아	1.5	-	0.8	1.3	-	0.5
슬로베니아	1.6	0.2	1.5	1.7	0.5	1.3
스페인	4.5	-	-	4.9	-	-
스웨덴	12.4	-	-	11.7	-	-
스위스	8.1	2.9	5.2	8.3	3.2	5.1
튀르키예	-	-	0.1	-	-	0.1
영국	-	-	-	-	-	-
미국	5.7	2.6	3.1	4.5	2.2	2.3
평균¹⁾	5.7	2.7	2.4	5.6	2.7	2.4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은 전체 22개국, 재가 16개국, 시설 21개국, 2021년은 전체, 23개국, 재가 18개국, 시설 22개국)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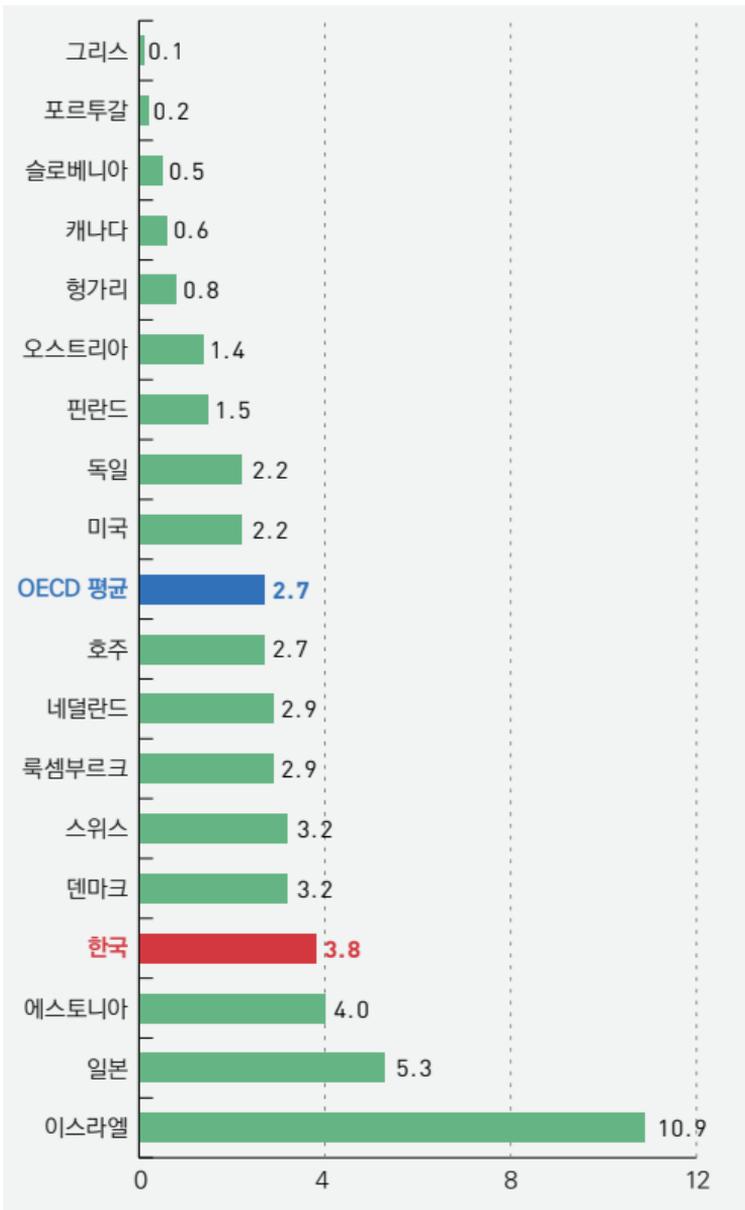
2) 독일은 2015년 수치임

3) 프랑스는 2019년, 호주, 덴마크는 2020년 수치임

4) 프랑스, 이탈리아, 튀르키예는 시설만, 아일랜드, 슬로바키아는 전체와 시설,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체코는 전체 값만 보고함

그림 37-1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재가),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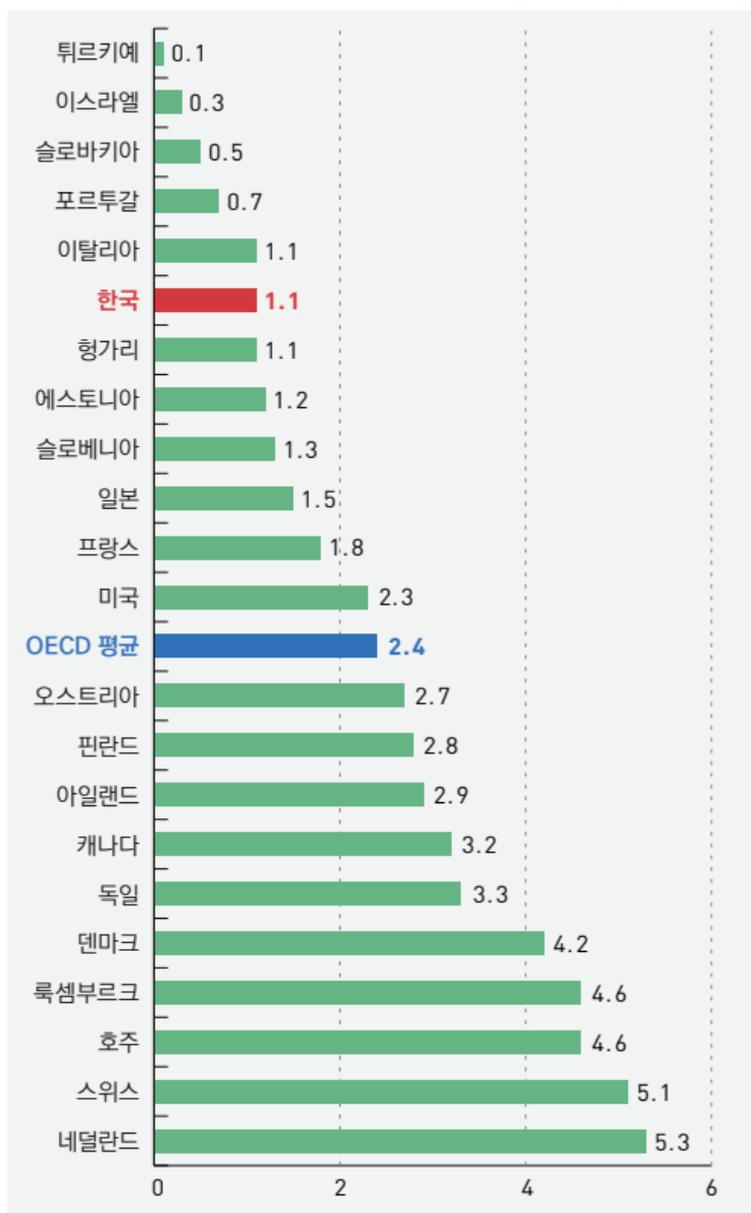
(단위: 명/65세 이상 인구 1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에 재가 통계를 제출한 18개국 평균임
 2) 호주, 덴마크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370>

그림 37-2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시설), 2021년
(단위: 명/65세 이상 인구 100명)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에 시설 통계를 제출한 22개국 평균임
 2) 프랑스는 2019년, 호주, 덴마크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370>

38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

-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은 인구는 8.1%로 OECD 평균(10.2%)보다 낮으며, 시설서비스를 받은 인구도 2.6%로 OECD 평균(3.5%)보다 낮음
- ▶▶ 비록 OECD 국가보다 수급률이 낮지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모두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재가서비스 수급률은 2016년에 5.2%였지만, 2021년까지 2.9%p 증가하였음(OECD 평균 0.1%p 증가)
 - 시설서비스 수급률은 2016년 2.6%, 2021년 2.6%로 변동 없음(OECD 평균 0.4%p 감소)
- ▶▶ OECD 국가 중에서 재가서비스 수급률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26.4%), 리투아니아(25.9%), 스위스(19.0%)이고, 시설서비스 수급률이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10.3%), 호주(5.6%), 벨기에(5.5%, 2020년), 스위스(5.2%)임

표 38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

(단위: %, 65세 이상 인구)

	2016		2021	
	재가 ¹⁾	시설	재가 ¹⁾	시설 ¹⁾
호주	5.7	6.3	8.5	5.6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7.6	5.9	7.5	5.5
캐나다	8.7	4.3	-	3.5
칠레	20.9	-	-	-
콜롬비아	-	-	-	-
코스타리카	-	-	-	-
체코	9.8	2.6	8.9	2.6
덴마크	11.5	3.5	11.0	3.3
에스토니아	5.8	4.2	5.5	4.5
핀란드	9.7	4.7	9.1	4.0
프랑스	6.0	4.2	5.6	3.8
독일	9.5	4.1	16.6	3.9
그리스	-	-	-	-
헝가리	9.3	3.0	8.1	2.8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	3.5	-	2.9
이스라엘	18.6	1.8	26.4	1.4
이탈리아	5.8	-	6.3	-
일본	-	2.7	-	2.7
한국	5.2	2.6	8.1	2.6
라트비아	-	0.4	-	0.4
리투아니아	24.8	10.0	25.9	10.3
룩셈부르크	7.3	5.4	7.6	5.1
멕시코	17.2	-	-	-
네덜란드	8.6	4.4	7.7	4.0
뉴질랜드	9.6	4.6	7.3	4.1
노르웨이	11.4	4.5	10.9	3.7
폴란드	-	0.9	-	0.8
포르투갈	0.8	1.2	0.6	1.1
슬로바키아	-	4.3	4.2	3.0
슬로베니아	6.6	4.8	7.1	3.9
스페인	7.1	1.9	10.3	2.1
스웨덴	10.9	4.5	11.8	3.9
스위스	16.6	5.8	19.0	5.2
튀르키예	-	-	-	-
영국	-	-	-	-
미국	7.5	2.4	-	1.7
평균¹⁾	10.1	3.9	10.2	3.5

주 1) 2016년과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6년은 재가 26개국, 시설 28개국, 2021년은 재가 23개국, 시설 28개국)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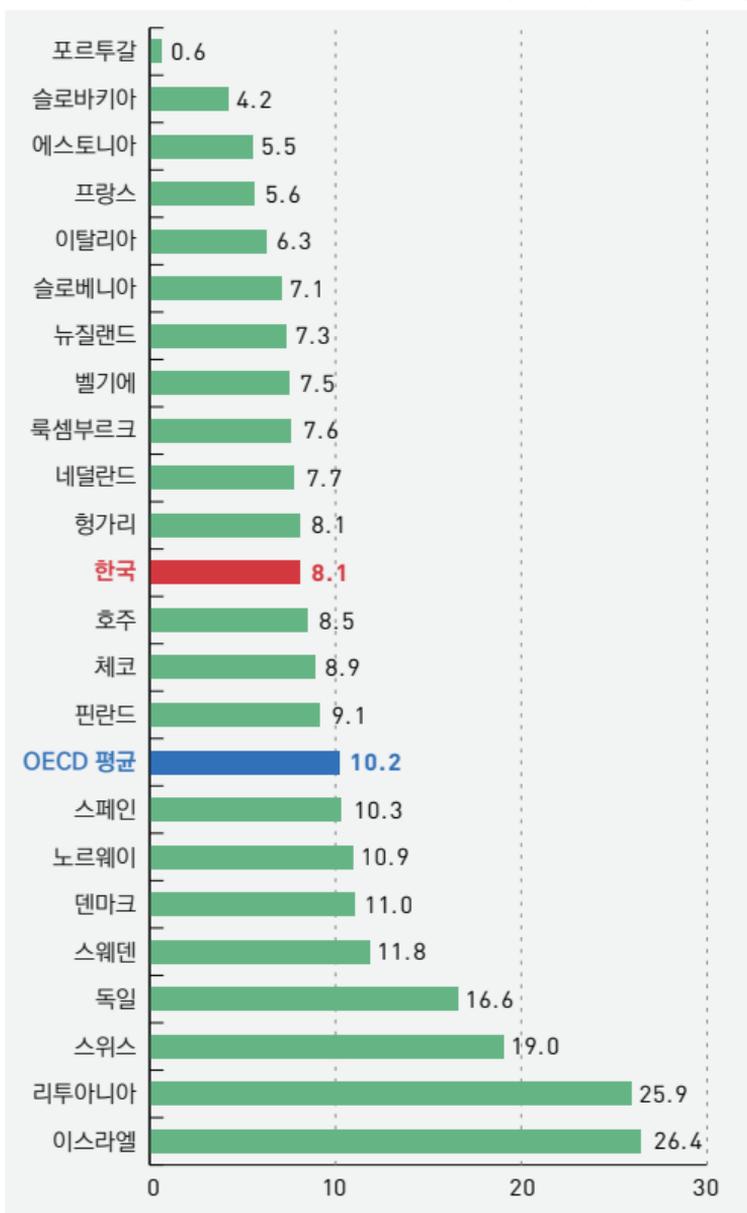
2) 칠레는 2015년 수치임

3) 벨기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는 2020년 수치임

4) 벨기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미국은 2020년 수치임

그림 38-1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재가),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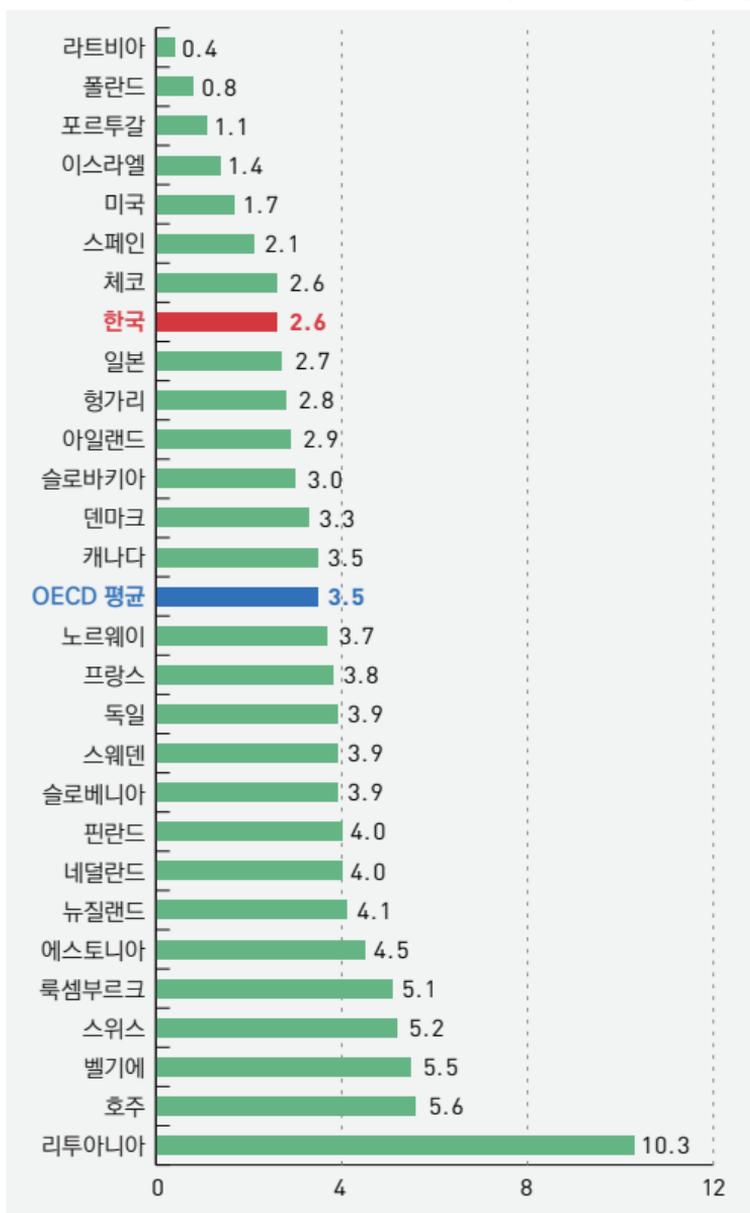
(단위: %, 65세 이상 인구)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에 재가 통계를 제출한 23개국 평균임
 2) 벨기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는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380>

그림 38-2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시설), 2021년
(단위: %, 65세 이상 인구)



주 1) OECD 평균은 2021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에 시설 통계를 제출한 28개국 평균임
 2) 벨기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미국은 2020년 수치임

Statlink  <http://doi.org/10.23061/HS2023380>

OECD Health Statistics 2023

본 책자는 OECD Health Statistics 2023에서 주요 지표만을 발췌하여 구성·편집한 자료이며, OECD 공식 번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보건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실

☎ (044)202-22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 (044)287-8391

» 만든 곳

- 좋은PR소야 ☎ (070)4616-4040~3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s://stats.oecd.org>